금주의 법구–〈법구경〉
항상 새벽처럼 깨어있어라.
부지런히 노력함을 즐겨라.
자기의 마음을 지켜라.

현대불교

행복 더하는
현대불교 ARS 후원
060-700-1080

1994년 10월 15일 창간 주1회 발행 제1355호 구독신청 (02)2004-8212 hyunbulnews.com (불기 2565년 음력 8월 2일) 2021년 9월 8일 수요일



한국 대표 선승인 고우 대종사의 영결식이 9월 2일 봉암사서 엄수됐다. 사진은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법어를 설하는 모습. 사진=박재완 기자

'禪僧' 고우 대종사 적멸에 들다

8월 29일 종립선원 봉암사서 원적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거행
9월 2일 봉암사에서 영결식
전국 대표 선승들 대거 운집
"수행자의 사표였던 선지식"
중도 법문으로 대중 회향도

문경 봉암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명예원로 은암당 고우 대종사가 8월 29일 영원한 적멸의 세계에 들었다. 세수 85세, 법납 60세. 고우 대종사는 한평생 수행자로 살며 깨달음의 가치를 대중에게 회향했던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이다. 수행자들의 사표로 폭넓은 존경을 받았던 만큼, 스님의 마지막 길에는 생전 가르침을 기억하는 전국의 수좌들이 운집했다.

은암당 고우 대종사의 영결식과 다비식은 9월 2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에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치러졌다. 한평생 수행자로 살아간 스님의 원적에 대한 최고의 예우인 만큼, 장의위원회도 전국 선원을 이끄는 대표 선승들로 구성됐다. 조계종 종정예하 진제 법원 대종사가 증명을 맡은 가운데, 축서사 조실 무여 스님이 장의위원장을,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영진 스님과 일오 스님이 부위원장을 맡았고 지도위원과 장의위원으로 종단과 수좌계 대표 스님들이 대거 이름을 올렸다.

영결식은 총무원장 원행 스님,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 중앙종회의장 정문 스님 등 종단 주요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명종 5타로 시작됐다.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이 고우 대종사의 행장을 통해 생전 행적을 되짚었고, 이어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의 영결사를 시작으로 조계종 종정 진제 스님의 법어,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과 원로의장 세민 스님을 비롯한 각계의 추도사가 이어졌다.

원행 스님은 "고우 대종사는 일평생 산중 수행을 최고의 복락으로 여기며 살았던 산인이었지만, 종단과 대중의 간절한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외면하지 않는 자비행을 베풀어 주셨다"며 "10.27법난으로 종단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원만한 수습과 종단 안정에 진력을 다했고 2000년대 이후부터는 원근을 마다않고 종도들에게 간화선 법문을 펼쳐주셨다"고 회고했다.

한국불교의 대표적인 선지식이었던 만큼, 이날 영결식에는 전국 각지에서 추모객들의 발길도 이어졌다. 장의위원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는 것은 물론, 대인방역을 위한 버스도 별도로 설치하는 등 감염예방을 위한 만반의 조치를 취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영결식을 하루 앞둔 9월 1일 전국선원수좌회장 장의위원회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고우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고 수행자로서의 삶과 가르침을 기렸다. 이 자리에서 스님들은 "고우 대종사는 모든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수행자였다"며 "봉암사 태고선원을 현재 100여 명의 수좌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도량으로 일궈낸 주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은 "고우 대종사는 수행자의 길을 몸소 보여준 선승"이라며 "이미 경계를 넘어선 수행자였기에 세간에서 기대하는 일화는 많지 않다. 그나마 기억나는 일화 역시 모두 수행자 그 자체로서의 모습"이라고 상찬했다.

조계종 명예원로인 고우 대종사의 장례는 종단 관례상 원로회의장으로 진행돼야 하나, 이례적으로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결정된 계기도 명확히 밝혔다. 전국선원수좌회 대표 영진 스님은 "명예원로셨기에 원로회의장으로 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나 생전에 당신이 당부하셨고 후학들도 이를 원했기에 종단과 논의를 통해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거행키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고우 대종사는 한국불교 대표 선지식으로 손꼽힌다. 1962년 김천 수도암에서 출가한 후 한평생 수좌로서 정진했다.

2002년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장 소임을 맡아 대중들을 직접 이끌며 가행정진 결사에 매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했으며, 이후에도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해 화두참선의 대중화에 한 획을 그었다.

한편 고우 스님의 초재는 9월 4일 오전 10시 봉암사에서 거행된다. 2재는 9월 11일 금봉암에서, 3재는 9월 18일 석종사에서, 4재는 9월 25일 공주 학림사에서, 5재는 10월 2일 축서사에서, 6재는 10월 9일 고양 흥국사에서, 마지막 49재는 봉암사로 이어진다. 〈추모특집 4 · 5면〉

군승 수급 '빨간불' 교구할당제로 돌파

군종교구장 선일 스님, 제도 개선 추진

내년부터 군승 자원 고갈
각 교구당 2명 추천 추진
3일 본사주지협서 요청도

올해 군승 파송이 미달된 가운데 군종특별교구가 교구할당제 도입 등 군승 수급 제도 개선에 나선다.

조계종 5대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9월 1일 "군승 수급 현안을 해소하기 위해 교구할당제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군불교 일선에서 포교활동에 임하는 군승은 불교군종장교 중 하나로 2010년 불교 파송주체인 조계종의 군종장교 독신 예외 종헌 조항 삭제 이후 독신비구승 정체성이 강화되며 불교군종장교, 혹은 군종법사에서 군승으로 불리고 있다.

불교군종장교 선발은 군종사관후보생과 군종요원 2가지로 이뤄진다. 최근에는 동국대와 중앙승가대 등에서 사관후보생을 모집하는 군종사관후보생 선발보다 스님을 대상으로 하는 군종요원 선발이 주를 이루고 있다.

국방부 1.3배수 추천 요구

조계종 군승 파송은 2013년부터 2020년까지 최소 10명에서 최대 19명까지 국방부의 파송요구를 모두 충족하는 인원을 추천해왔다. 하지만 올해는 국방부 군승파송 요구인원인 20명에 3명 부족한 17명이 추천될 예정이다. 국방부에 추천된 인원은 국방부 최종선발 절차를 거쳐 임관 · 파송된다.

군승 파송은 군장병들의 심리상담 등 군내 종교활동 다변화로 파송 요구 인원이 증가하고 있다. 2021년 20명에 이어 2022년부터 2024년까지의 임관 예상 인원은 총 60명에 달한다. 여기에 국방부 최종선발 과정의 신체검사와 신원조회로 인한 불합격 사례의 증가로, 국방부는 1.3배수 인원 추천을 요구하는 상황이다.

군종특별교구가 제도 개선 등 수급 현안 해결에 나선 이유는 미달된 올해뿐만 아니라 2022년부터의 예비군승 자원이 고갈 상태기 때문이다. 임관 예정 60명 중 현재 확보된 예비군승은 12명에 불과하다.

기독교는 5대 1 경쟁

불교계가 군승 수급에 헐떡이는 동안 이웃 종교계는 높은 경쟁률로 우수 자원을 파송하고 있다. 군종교구 관계자는 "기독교계의 경우 5:1에 달하는 경쟁률을 자랑한다. 경쟁률이 높아 우수한 재원을 선발하고 군종장교 정원 도 확대하고 있다"며 "불교가 지속적으로 계획 인원에 미달할 시 원불교와 타종교의 군종장교 진입 · 확대 요구가 가속화 될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예비군승 자원의 부족현상은 출가자 감소와 고령 출가 등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예비군승 응시자격은 현재 조계종 사미 · 사미니계 승적을 소지한 스님이면서 4년제 대학 졸업 및 동등 학력을 소지하고, 만 35세를 초과하지 않는 스님이어야 한다. 장교 선발 기준 준수와 함께 고령임관의 경우 군 적응과 장기복무 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부 고령화와 성직자 감소 등 불교와 유사한 문제를 겪고 있는 가톨릭의 경우 교구당 할당제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군종장교 퇴직시 파송한 교구에서 결원을 충족하고, 신규 파송인원 발생시 협의 하에 각 교구로 파송인원을 할당하는 체제다. 파송인원의 경력 또한 소속교구에서 그대로 이어진다.

군종특별교구장 선일 스님은 "9월 10일 예비군승 응시 1차 서류 접수와 함께 10월 말 2차 서류접수가 있다. 교구본사주지협의회에 상황을 공유하고, 자격을 충족하는 스님 2명 이상을 추천받는 등 적극적인 문제 해결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군종특별교구는 군포교 역점 사업인 호국 홍제사 불사가 8월 27일 기준 20% 공정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공사기간은 2022년 6월까지로 최근 내부장엄과 성보조성 등이 계획에 추가되며 대웅보전 불사총액이 100억원 규모로 증가한 상태다.

군종특별교구는 군불교후원기금 조성 등 후원 활성화를 통해 거점불사와 군승 처우개선 등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또 9월 둘째주 중 육해공군 부교구장을 비롯한 국장단 임명으로 집행부를 구성하고, 관련 세부계획 수립 등에 나선다.

노덕현 기자 noduc@hyunbul.com

대한불교조계종
교육원인증 승려연수과정

승려연수과정 수강생 모집
현대인을 위한 생활수행과 포교



일 정 2021년 9월 8일(수) ~ 10일(금), 2박 3일
장 소 경주 황룡원
(경북 경주시 엑스포로 40 (지번) 신평동 150-8)
문 의 031-470-3196, 3200 (월요일 휴무)
정 원 50명(선착순)
교 육 비 20만원 (국민은행, 292-01-0033-316) (재)한마음선원과학원
수업참여 오프라인(황룡원), 온라인(Zoom)

법회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컨텐츠
▶ 생활 속 참선 수행의 원리와 교육방법
▶ 불교의 현대적 사찰 운영 사례
▶ 온라인법회 운영과 컨텐츠 제작 및 사례
▶ 마음과 과학

	1일차 (9월 8일, 수)	2일차 (9월 9일, 목)	3일차 (9월 10일, 금)
09:00~12:00		생활수행의 원리와 사례	마음과 과학 특강
14:00~17:00	불교상담과 마음치유	현대인을 위한 포교	
18:30~20:30	한마음 교육의 원리 '나로부터의 시작'	온택트 시대 법회 활용 방안	

재단법인한마음선원 한마음과학원
QR코드를 스캔하시면 모바일 신청도 가능합니다.



상월결사는 9월 3일 삼보사찰 예비 순례를 진행했다. 이날 상월결사는 인제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24km를 행선했다.

설악 정기 받아 '10월 천리순례' 각오 다져

상월결사 9월 3일 삼보사찰 예비순례 성료

만해마을서 백담사 24km 행선
순례단 비롯해 120여명 동참해
자승 스님 안거한 무문관 참배
2일 입재서 '新 불교운동' 발원

인제=노덕현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상월결사 삼보사찰 천리순례의 한국불교 중흥을 위한 원력이 설악산으로 이어졌다.

상월결사(회주 자승)는 9월 3일 인제 만해마을부터 백담사까지 왕복 24km구간에서 예비순례를 진행했다. 삼보사찰 천리순례 점검 성격의 이날 순례에는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과 지원단, 자원봉사자 등 120여 명이 참여했다. 또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과 동국대 이사장 성우 스님이 동참해 순례단의 정진을 격려했다.

예비순례는 새벽 3시 대중을 깨우는 도량석으로 시작됐다. 삼삼오오 만해광장에 모인 순례단은 발원문을 함께 낭독 후 출발했다.

만해마을에서 용대리를 거쳐 백담사로 향하는 길은 차량 1대가 겨우 지나갈 수 있는 가파른 계곡길이다. 언덕길에도 묵언으로 임하는 순례단의 결의에서 천리순례를 앞둔 마음가짐이 느껴졌다. 어둠을 헤치고 앞사람에 의지해 순례단은 발걸음을 이어갔다. 순례 행렬에서는 염주를 돌리며, 조용히 정근하는 이들도 간혹 눈에 띄었다.

백담계곡의 청량한 계곡물 소리가 순례단의 발걸음을 가볍게 했고, 달빛이 순례단의 앞을 비췄다.

순례에서는 행선 시작과 끝마다 거리두기 속에 발열체크가 시행됐다. 혹시 모를 응급상황에 대비해 순례단 뒤에는 구급차와 함께 동국대 의료팀이 대기했다.

순례단은 당초 예정시간보다 빠른 오전 6시 경 백담사에 도착했다. 세심교(洗心橋)를 지나서 일까. 순례단의 표정에서는 새벽부터 오랜 시간을 걸으며 쌓인 피로를 찾아볼 수 없었다.

회주 자승 스님을 비롯한 순례단은 부처님과 무산당 오현 대종사 영전에 순례단 도착을 고하며 백담사를 참배했다. 방역지침에 따라 순례단은 도량 곳곳에 흩어져 도시락으로 아침공양을 한 후 회주 자승 스님이 안거에 들었던 무금선원 무문관도 둘러봤다. 순례단 대부분이 상월선원 천막결사 당시 스님들의 정진에 감동받아 순례에 참가한 이들이기에 쉽게 볼 수 없는 무문관을 둘러본다는 것만으로도 이들에게 또 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77세 고령 참가자인 불일심 이태순 불자는 "아홉 스님 수행을 보며 감명 받아 이번 천리순례에 참여하게 됐다. 회주 자승 스님이 정진했다는 무문관을 보니 죽기 전 꼭 무문관 정진을 하겠다는 마음을 먹게 됐다"며 "선재동자가 53선지식을 찾아가는 각오로 천리순례에도 임하겠다"고 다짐했다.

가톨릭 신자였지만 불교와 인연을 맺은 이태경 씨는 "상월선원 천막정진을 지켜봤지만 고찰의 무문관은 처음"이라며 "스님들의 치열한 구도정진을 본받아 더욱 열심히 수행정진하겠다"고 말했다.

청년불자를 대표해 천리순례 전 일정에 참여하는 안현민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장은 "청년들에게 불교는 찾아가는 종교가 아닌 찾아가야만 하는 종교였다. 산중과 도시에서 함께 걷고 정진하는 순례를 통해 찾아가는 불교로 거듭날 것"이라며 "불교에 대해 잘 모르는 청년들에게도 출가부터 깨달음까지 삼보 의미를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주윤식 조계종 중앙신도회장은 "지난해 했던 만행결사 자비순례에 이어 점점 발전되는 순례 현장을 경험할 수 있었다. 역동적인 불교, 움직이는 불교가 이제는 포교로 이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순례에 동참한 조계종 포교원장 범해 스님은 '포교'를 주제로 진행되는 천리순례에 대해 "불자들이 불자라고 밝히기 꺼리는 이유 중 하나는 불 · 법 · 승 삼보에 대한 믿음이 희박하기 때문"이라며 "삼보에 대한 이해를 정립하고 신앙으로 확고히 하는 계기를 마련하고자 함이 이번 순례 동행의 의미"라고 강조했다.

한편, 상월결사는 순례에 앞서 9월 2일 인제 만해마을에서 입재식과 오리엔테이션을 가졌다. 순례단은 만해마을 입소와 함께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백신 접종 증명 및 참가자 서약 등을 진행했다.

순례단은 입재식에서 "정법존엄을 지켜온 삼보종찰을 세상에 알려 새로운 희망의 빛이 되길 바란다. 천리순례를 통해 자기 수행과 대중 화합의 새 불교운동을 실천하겠다"고 발원했다.

30km 오체투지로 평등사회 발원

조계종 사노위, 9월 10일까지 릴레이로

158개 단체 경유하며
차별금지법 제정 촉구

제21대 국회 정기회 개회를 앞두고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특히 불교계는 오체투지로 차별을 상징하는 공간을 순례하고 사회적 약자들과 만나 평등한 사회를 발원하고 나서 주목된다.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위원장 지몽, 이하 사노위)는 8월 30일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0㎞ 오체투지에 돌입했다. 9월 10일까지 진행되는 오체투지 순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시작으로 첫발을 디뎌 국회 정문까지, 10일간 릴레이로 이어진다.

사노위측은 "이번 오체투지는 차별금지법의 차별사유인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출신학교, 용모 등 신체조건, 혼인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및 가족상황, 종교, 사상 또는 정치적 의견, 전과,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에 관한 활동을 하는 단체들을 경유하는 형태로 진행된다"며 "이를 통해 차별금지법 제정의 간절함과 국민 10만 청원의 뜻을 국회에 촉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오체투지는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를 출발해 한국HIV/AIDS감염인연합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4.19통일평화재단 등을 경유한다.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해 하루 3㎞씩 오체투지로 단체 2~4곳을 경유하며, 9월10일에는 한국여성단체연합을 마지막으로 정의당,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을 거쳐 국회 정문 앞까지 오체투지를 이어간다. 마지막날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국민 10만 청원의 뜻과 차별금지법 제정의 시급함을 전할 예정이다.

오체투지 시작을 알리는 기자회견은 서울 종로 동숭길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앞에서 진행됐다. 평등한 세상을 발원하는 장애인들도 피켓을 들고 차별금지법 제정 요구에 힘을 실었다.

권달주 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대표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불교계 노력에 감사한다. 오체투지는 많은 차별 속에 살았던 소수자, 약자들의 외침이자 더 이상 물러날 수 없음을 몸으로 보여주는 출발점"이라며 "21대 국회가 차별금지법을 제정해 모든 국민이 더 이상 차별받지 않는 세상이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사노위원장 지몽 스님은 "21대 국회의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국회의원들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 문턱에 멈춰있고 국회 국민동의 10만 청원에도 무한정 심사만 하고 있다"며 "이번 오체투지를 통해 함께하는 시민단체 158곳과 함께 차별없는 세상을 바라는 국민들의 염원을 담아 국회로 갈 것"이라고 밝혔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는 9월 10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30km 릴레이 오체투지를 진행한다.

전국비구니회, 미얀마 위한 의약품 지원

8월28일 서울 법룡사에서
미얀마유학생聯 기도법회

전국비구니회가 군부쿠데타와 코로나19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미얀마에 자비온정을 보탰다.

전국비구니회(회장 본각)는 8월 28일 전국비구니회관 서울 법룡사에서 '미얀마 민주평화 기원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전국비구니회는 미얀마 시민봉사 단체에 2800만원 상당의 의료 물품을 지원했다. 물품은 마스크와 방호복, 감기약, 코로나 자가 진단 키트 등으로 재한미얀마대학생연합회를 통해 현지에 전달될 예정이다.

전국비구니회장 본각 스님은 "미얀마에 직접 갈 수는 없지만 한국에 있는 분들을 통해서라도 조금이나마 필요한 물건이 안전히 갈 수 있도록 돕겠다"며 "물품 지원과 함께 위로와 희망을 조금이나마 전하고 싶다.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 요청해 달라"고 위로를 전했다.

이날 법회에는 재한 미얀마대학생연합회 학생들이 참석해 발원문을 낭독했다. 연합회는 "군부의 무자비한 살생으로 희생된 모든 이들이 극락왕생하기를 발원하오며 저희들의 이 기도와 발원으로 마음속의 모든 생명이 고통을 여의고 부처님의 자비광명 속에 평안함을 얻게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송지희 기자

대한불교조계종 원로 은암당 고우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감사 인사드립니다.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과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를 지내신 고우 대종사께서 지난 8월 29일 오후 3시 30분에 봉암사 동방장실에서 열반에 드셨습니다.
이에 9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봉암사에서 영결식과 다비를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엄숙하게 봉행하였습니다.

이번 고우대종사 장례에 함께해 주신 종정예하와 원로대덕 스님, 그리고 불자님들께 깊이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대종사께서 늘 강조하신 무한경쟁에서 무한향상으로, 중도 정견을 세우고 수행하여 중생이란 착각에서 깨어나 본래 부처로 돌아가 영원한 행복을 누리시길 발원하며 저희도 더욱 더 정진하겠습니다.

추모의 마음으로 함께 해주심에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 고우 대종사 추모일정(49재) 안내

초재(봉암사)	9월 04일(음7월28일)	오전10시
2재(금봉암)	9월 11일(음8월5일)	오전10시
3재(석종사)	9월 18일(음8월12일)	오전10시
4재(공주 학림사)	9월 25일(음8월19일)	오전10시
5재(축서사)	10월 2일(음8월26일)	오전10시
6재(고양시흥국사)	10월 9일(음9월4일)	오전10시
49재(봉암사)	10월 16일(음9월11일)	오전10시

대한불교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문의 : 054-571-9088
010-4050-5969

불기 2565(2021)년 9월 2일

대한불교조계종 전국선원수좌회 · 종립선원 봉암사 · 문도 일동

한국 속 네팔불자 구심점…투병으로 본국행

뇌졸중으로 출국하는 우르겐 스님

동두천=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지난 15년간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 이주민들의 안식처로 활동해 왔던 동두천 용수사 주지 우르겐 스님이 9월 8일 한국생활을 마무리하고 본국으로 돌아간다.

우르겐 스님은 재한 네팔인들의 종교적 스승이자 한국생활을 지원하는 매개였던 만큼, 스님의 부재 이후 그 빈자리에 대한 우려가 적지 않다. 무엇보다 우르겐 스님이 본국으로 돌아가는 이유가 한국 생활 중 갑작스레 닥친 뇌졸중 때문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안타까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15년 세월 동안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불자들의 정서적 의지처이자 해결사 역할을 해왔던 만큼, 우르겐 스님을 향한 아쉬움과 애정의 목소리가 높다.

8월 28일 동두천에 위치한 네팔법당 용수사에서 우르겐 스님을 만났다. 휠체어에 의지한 스님은 1년 새 체중이 급격히 감소된 모습이었다. 트레이드마크였던 통통한 얼굴에 장난꾸러기 같은 웃음 대신 지친 기색이 역력했다. 얼굴과 목 주위의 근육이 뜻대로 움직이지 않아, 간단한 의사표시조차 힘든 상황이다.

우르겐 스님은 지난해 7월 법당에서 갑자기 쓰러져 생사의 고비를 넘나들었다. 뇌출혈로 인한 뇌졸중이었다. 긴급히 수술을 했고 이후 10일간 깨어나지 못했다. 다행히 의식을 회복했지만 온몸이 마비되고 자가호흡에 어려움을 겪는 등 심각한 상태가 이어졌다. 담당의사는 "이대로라면 6개월을 넘기지 못할 수도 있다"며 최악의 상황까지 내다봤다.

그로부터 1년이 지났다. 스님은 기적적으로 회복됐다. 거동이 쉽지 않고 아직 정신이 명료하지 못해 세밀한 내용은 기억하지 못하지만, 휠체어에 의지해 앉거나 서고 부축을 받아 걷는 정도는 가능하다. 그럼에도 예후는 낙관적이지 못하다. 오른쪽 신체가 여전히 마비된 상태로, 재활의 속도도 더디다. 신도들의 도움으로 재활을 위한 노력을 지속하고 있지만, 병원에서는 재활의 가능성을 낮게 진단했다.

네팔법당 용수사 주지로
15년간 이주민 지원행보
2020년 7월 쓰러져 투병

결국 스님은 본국행을 결정할 수밖에 없었다. 무엇보다 말을 할 수 없고 거동이 불편하니 기도와 법문, 법회를 집전할 수 없는 상황이 막막하다. 치료비 고민도 크다. 수술비와 병원 치료비는 능인선원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다행히 해결됐지만, 재활의 기간을 보장할 수 없는 상황에서 비용부담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스님의 출국은 불가피한 결정이지만, 한국에 남은 네팔인들이 스님의 부재로 겪을 상실감은 또 다른 과제다. 우르겐 스님의 역할은 용수사를 찾는 신도들의 신행을 돕는 차원이 아니라, 비자나 노동문제, 병원 진료시 전화 통역까지 한국 전역에 분산돼 있는 네팔인들이 의지할 수 있는 창구나 마찬가지기 때문이다.


휠체어에 의지한 우르겐 스님.


불교계 前 불교계 이주민활동가들과 함께.

스님을 곁에서 돕는 다와 타망씨는 "스님이 쓰러진 후 1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전국 각지에서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가 걸려온다. 스님의 연락처가 오랜시간 네팔이주민들 사이에서 널리 공유돼 왔기 때문"이라며 "다행히 서울 텍첸사에 쿤상 스님이 계셔서 긴급한 사안은 부탁드리지만, 우르겐 스님이 없다면 정말 막막한 상황에 처할 네팔인들이 많을 것"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다.

차도 없어 9월 8일 출국
부재로 인한 공백 '우려'
감사인사로 아쉬움 전해

휠체어에 의지한 채 대화에 임하는 우르겐 스님은 만감이 교차한 표정이었다. 대화가 진행되는 동안에도 웃거나 답답함을 토로하는 등 표정을 통한 의사 표시는 했지만, 두 음절 이상의 단어를 발언하지 못했다.

이날 동행한 前 불교계 이주민활동가들도 그런 스님의 모습을 마주하며 참담함을 숨기지 못했다. 어려운 시절 우르겐 스님과 동고동락했던 만큼, 스님의 원력과 활동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남춘호 마하이주민지원단체협의회 전 사무국장은 "우르겐 스님은 네팔 이주민과 한국을 잇는 독보적인 소통창구이자 그분들이 한국에서도 신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안식처를 제공했던 지지자"라며 "자비심으로 정말 많은 일을 해왔는데 정작 당신이 병고로 쓰러져 회복되지 못한 채 한국을 떠나게 됐다는 사실이 너무나도 가슴 아프다"고 눈시울을 붉혔다.

우르겐 스님은 2006년경 능인선원 산하조직이었던 YBA와 인연을 맺고 한국에 정착했다. YBA를 통한 능인선원의 지원으로 한국에서 만다라전을 개최했고 모연된 기금으로 지금의 동두천에 용수사를 개원했다. 이후 재한네팔인들을 보듬으며 한국불교계와도 긴밀하게 교류해 왔다.

특히 무뚝뚝하면서도 잔정 깊은 따뜻한 성품으로, 활동가들 사이에서 '네팔 포대화상' 혹은 '곰돌이 푸우' 라는 애칭으로 지칭되곤 했다.

우르겐 스님은 9월 8일 오전 네팔행 비행기에 오른다. 네팔에서 약초치료 등 전통요법으로 재활을 시도할 계획이다. "꼭 회복해서 한국에서 다시 뵙자"는 인사에 씁쓸한 웃음이 번진다. 15년간 머문 한국은 스님에게 이미 제2의 고향이다.

뜻대로 움직이지 않는 두 팔로 합장자세를 취하려던 스님이 이내 포기한 채 신중하게 한 음절, 한 음절 목소리를 냈다. "감사합니다." 스님의 따뜻한 미소가 영원한 작별이 아닌, 다시 만날 날을 예고하는 인사이길 바라본다.

후원계좌 : 기업은행 589-002076-02-018 (예금주 LAMA URGEN)

진흥원, 제18회 대원상 후보 공모

출 · 재가 부문…오는 9월 30일까지

불법 홍포 앞장 선 공로에
대상 2000만원 상금 지원

불법 홍포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출가자 · 재가자 · 불교단체를 시상하는 제18회 대원상 후보자를 공모한다.

재단법인 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이한구, 이하 진흥원)은 "불교를 현대적으로 재조명하고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 방법을 창출 · 장려하기 위해 시상하는 제18회 대원상 후보 접수를 시작한다"고 9월 2일 밝혔다.

2003년 제정돼 올해 18회째를 맞는 대원상은 출가 부문, 재가 부문으로 나눠 공모한다. 대상에 2000만원, 특별상에 1000만원, 장려상에 500만원을 각각 수여한다.

서류 제출은 대한불교진흥원 홈페이지(www.kbpf.org)에서 소정양식을 내려 받아, 우편으로 접수하면 된다. 접수기간은 오는 9월 30일까지다.

한편, 대원상은 (재)대한불교진흥원의 설립자인 故 대원 장경호 거사의 뜻을 기리고 '세상을 위한 불교' 라는 기치 하에 21세기 현대사회에 적합한 불교정신과 사상의 보급과 전파를 위하여 모범적으로 정진하고 있는 출가와 재가의 각 개인 및 단체를 선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이를 통해 현대사회에 적합한 새로운 포교방법을 창출 · 장려한다는 취지다. 제1회 불국사 주지 성타 스님을 시작으로 맑고향기롭게 회주 법정 스님과 동국역경원장 월운 스님, 前 조계종 포교원장 무진장 스님 등이 역대 수상자로 선정됐다. 02)719-2606 신성민 기자

생명나눔, 난치병 환아 지원금 전달

8월 30일 조계종복지재단에



생명나눔실천본부(이사장 일면)는 8월 30일 본부 회의실에서 조계종 사회복지재단(대표이사 보인)이 난치병 어린이 치료비 지원금으로 1,600만 원을 본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전달식에는 일면 스님과 보인 스님, 사회복지재단 사무처장 해공 스님 등이 참석했다.

선정된 난치병 어린이는 가와사키병으로 급성심정지 이후 심근경색 및 뇌손상을 입어 입원 재활 치료 중인 권성윤(가명, 3세) 환아와 중추신경계통의 상세불명 장애를 앓고 있는 박율(가명, 5세) 환아 그리고 진행성 다초점 백질뇌병증으로 5세부터 혼자 걷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검진을 통해 장애 진단 후 누워서 생활 중인 이연수(가명, 18세) 환아로 총 3명이 선정됐다.

일면 스님은 "난치병 어린이를 돕기 위해 치료비를 전달해 주신 조계종사회복지재단에 감사드린다. 전달 받은 치료비 지원금은 선정된 난치병 환아에게 잘 전달하겠다"며 "이번에 선정된 난치병 환아 이외에도 고액의 치료비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환아 가족들이 많은데 생명나눔실천본부도 사회복지재단과 협력하여 난치병 어린이를 돕는데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보인 스님은 "어려운 상황에도 선한 도움의 손길과 관심은 끊이지 않을 테니 희망을 잃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노덕현 기자

종로노인복지관, 인문학 강좌 운영

9~11월 서울시민 대상 무료

서울 종로노인종합복지관(관장 정관이)이 9월부터 11월까지 서울시민들을 대상으로 무료 인문학 강좌 '인문학, 마음을 읽다 다독(多讀)다독' 을 진행한다.

인문학 강좌는 본관과 분관에서 나눠 진행되며 본관 4층 종로마루홀에서는 9월 9일부터 10월 14일까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오후 4시 진행된다. 온라인 강의는 복지관 유튜브 '종로의 품격' 을 통해서 중계된다.

강좌서는 인문학 서적 저자들이 직접 나선다. 〈랜선 인문학 여행〉 박소영 작가의 '랜선여행으로 설레는 인문학', 〈영화가 나에게 하는 질문들〉 원은정 작가의 '영화로 보는 관계의 인문학', 〈하고싶은대로 살아도 괜찮아〉 윤정은 작가의 '어른을 위한 용기 인문학' 강좌 등이다.

강좌는 각 5회기씩 구성되어 있으며, 교육 진행방식은 강의에 따라 각각 다르다.

분관 무악센터에서는 9월 4일부터 11월 13일까지 매주 토요일 10시부터 1시간 가량 '토요 온라인 인문학 아카데미' 가 화상회의 플랫폼인 'ZOOM' 으로 진행된다.

이근후 이화여대의대 정신과 명예교수가 강사로 '86세 정신과 교수가 친구들에게 들려주는 노인 이야기' 를 강의한다.

관장 정관 스님은 "코로나19 상황에서 평생교육을 열망하는 지역민들을 위한 인문, 교양 함양의 기회"라며 "비대면 온라인 강의를 통해 보다 많은 이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앞으로도 종로노인종합복지관이 지역 문화복지의 거점 역할을 해낼 것"이라고 말했다. (02)742-9500 노덕현 기자

동국의 꿈 세상을 깨우다

dongguk UNIVERSITY

4차산업혁명 시대에 대학민국의 미래를 이끌 인재를 키워 나갑니다

2022학년도 수시모집
2021.9.10 (금) 10:00 ~ 2021.9.14 (화) 17: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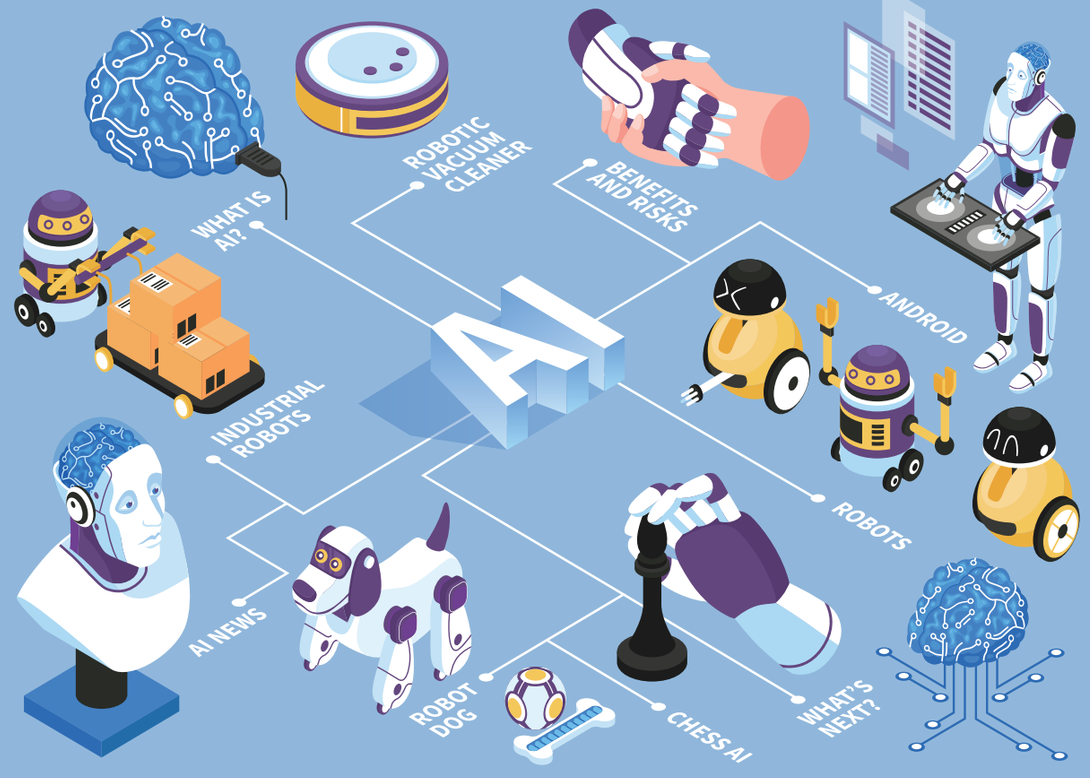
동국대학교 특성화분야

불교 & 문화예술
- 불교 및 불교융합
- 문학, 연극, 영화영상

Safety & Security
- 재난방지, 식품안전
- 치안, 범죄, 정보보호

바이오 & 메디
- 의생명과학, 한의학, 약학 및 BT
- 신약, 의료기기, 기능성 식품

D.N.A
- Big Data, Network(IoT, Cloud), A.I



“마음 연등 달라”… 선풍 진작 매진한 선지식

은암 고우(隱庵 古愚) 대종사 약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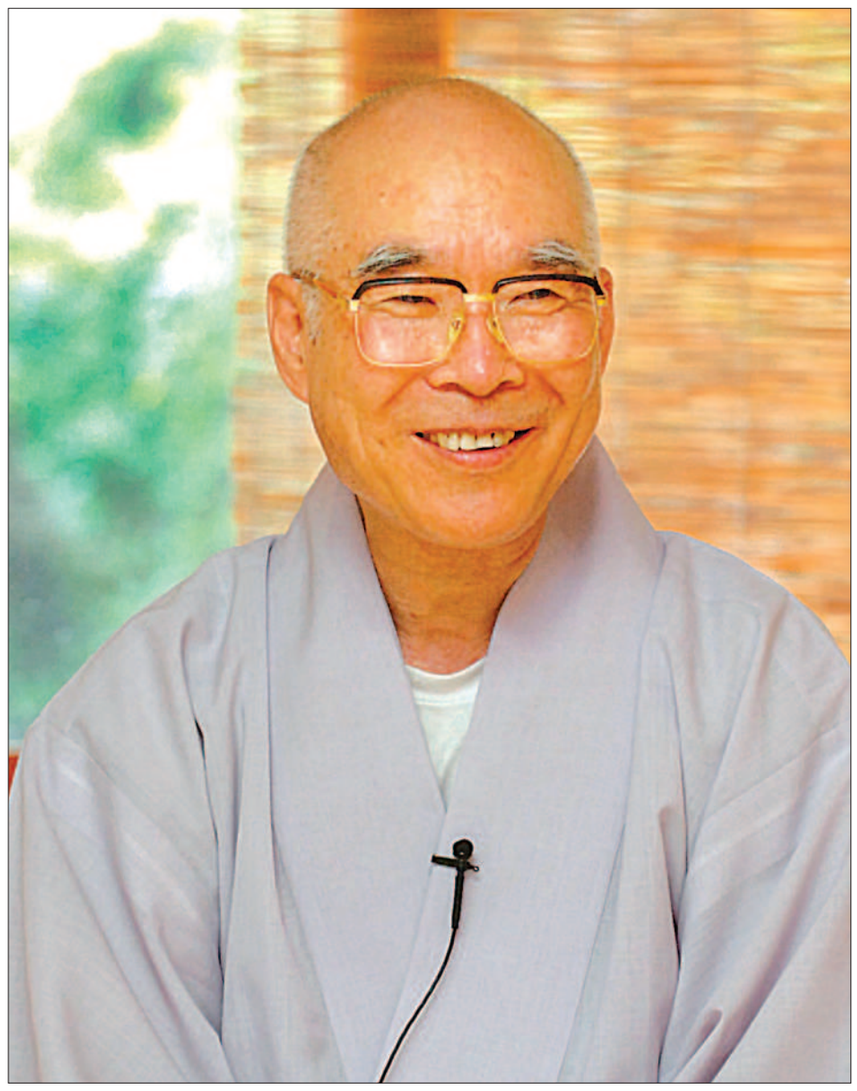
-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남
- **1962년** 경북 김천 수도암서 출가(직지사 영수 스님을 은사로 모심, 폐결핵이 걸려 제대 후 방황하던 중 26세에 한 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출가)
- **1966년** 부산 묘관음사 길상선원서 첫 안거(향곡 스님 주석) 이후 제방선원에서 정진하며 평생 참선의 길을 걸음.
- **1968년** 문경 김룡사에서 ‘제2 봉암결사’의 뜻을 세우고 법련 무비 법화 정광 혜규 등 10여 선승들과 봉암사에 들어가 결사를 시작하여 오늘날 봉암사의 기틀을 마련.
- **1970년** 문경 심원사서 정진 중 공을 이치로 깨달음.
- **1975년** 남해 용문사 염불암에 있던 중 성철 스님과 돈오돈수와 돈오점수를 논함
- **1980년** 10.27법난의 원만한 수습과 종헌 개정 등 일대 개혁 조치를 함. (봉암사 대중들이 공사를 열어 조계사에 올라와 총무원을 임시로 운영)
- **1987년** 봉화 각화사 동암에서 정진 중 ‘백척간두진일보’의 뜻을 깨침. 선승들과 선납회(禪衲會, 현 전국선원수좌회)를 창립. 합천 해인총림에서 전국 선승들과 함께 제1회 선화자법회 주도
- **2002년** 봉화 각화사 태백선원 선원장을 맡아 결제 대중이 15개월 15시간 가행정진 결사를 하게 이끔.
- **2005년**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하여 화두 참선의 현대적인 지침을 제시.
- **2006년** 봉화 금봉암을 창건. 제방에서 선(禪)법문 청이 오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다님.
-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되었고, 대종사(大宗師) 품계를 받음.
- **2011년**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위빠사나를 대표하는 미얀마 파옥 스님과 2박3일 문답 대화
- **2012년** 조계사 선림원, 불교인재원 증명법사에 추대
- **2017년** 80세가 되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일체 대중을 만나지 않고 은퇴.
- **2021년** **8월 29일** 봉암사 동방장실서 원적. 세수 85세 법납 60세.

  제자들이 엮어낸 법문집 〈고우스님 육조단경 강설〉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등이 있음.

[행장]
은암당 고우 대종사
(1937~2021)

군 복무 중 폐결핵 걸려 방황
김천 수도암서 불문에 귀의해
1968년 제2 봉암사 결사 추진
現봉암사 종립선원 기틀 구축
적명스님과 함께 선납회 결성

“한국禪 가치 높아” 평소 지론
어디서든 법문, 禪대중화 매진
주석사찰서 제사 · 불공 안하고
오로지 법문 · 참선에만 몰두해
임종게 대신 “그렇게 살다갔다”



정리=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8월 29일 문경 봉암사 동방장실에서 원적에 든 조계종 명예원로의원 은암당 고우(隱庵 古愚, 1937~2021, 사진) 대종사는 한국 선풍 진작과 대중화에 평생을 매진한 선지식이었다.

고우 대종사는 1937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났으며, 어린 시절에는 책 보기를 좋아해 작가가 되는 것이 꿈이었다. 하지만, 군 복무 중 갑자기 폐결핵에 걸려 제대 후 방황했다. 그러던 중 26세에 한 생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김천 수도암서 직지사 영수 스님을 은사로 불문(佛門)에 들었다.

수도암에서 불교를 처음 만나 공부하며 너무 재밌어 폐결핵 병이 저절로 지나간 것도 모를 정도로 공부에 심취했다. 이후 청암사와 남장사 강원에서 당대 대강백인 고봉, 관응, 흔해 스님에게 강원 교과를 이수하며 불교를 정립했다. 강원을 마칠 무렵에는 참선에 발심해 29세에 향곡 스님이 주석한 묘관음사 길상선원에서 첫 안거를 지낸 이래 제방 선원에서 정진하며 평생 참선의 길을 걸었다.

1968년 문경 김용사에서 법련 무비 법화 정광 혜규 스님 등 10여 명의 선승과 함께 “구산선문의 유구한 수선도량인 봉암사의 전통을 되살리자”면서 제2 봉암사 결사의 뜻을 모았다. 또한 고우 스님은 결사를 결성한 직후 봉암사로 가서 당대 선지식인 서옹, 서암, 지유 스님을 모시고 주지 소임을 맡아 도반들과 함께 조계 선풍과 결사 정신을 되살려 현재의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태고선원의 기틀을 만들었다.

1970년대에 문경 심원사서 지유, 대효 스님과 정진 중 하루는 불현 듯 “무시이래(無始以來)”라는 말뜻을 깨닫고 마음이 편안해졌다. 당시 선원이 대체로 돈오점수 공부하는 이들이 많았고, 스님도 그런 견해로 공부하던 때라 돈오(頓悟)했다고 생각하고는 제방을 유력하였는데, 1975년 어느 날 남해 용문사 염불암에 있던 중 갑자기 돈오돈수(頓悟頓修)를 주창한 성철 스님이 오셨다.

마침 잘 되었다는 마음으로 가사 장삼을 수하고 삼배 드리자마자, “스님, 돈오점수(頓悟漸修)가 맞지 않습니까” 하고 대들었다. 이 말을 듣자마자 성철 스님은 휙 돌아누워 아무런 대꾸가 없었다. 하는 수 없이 물러나왔는데, 후일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과 〈선문정로〉를 보고는 그때 돌아누워 아무 대꾸하지 않은 것이 그대로 법문임을 깨닫고 더 대들지 못했음을 못내 아쉬워했다.

1980년 신군부가 정권을 탈취하고는 불교에 10.27법난을 자행해 당시 총무원장 월주 스님을 비롯 종단 주요 소임자들이 계엄군에 연행되어 총무원 기능이 마비되자 봉암사 대중들이 공사를 열어 조계사에 올라와 총무원을 임시로 운영하게 되었다. 이때 봉암사 탄성 스님을 총무원장으로 모시고 총무부장을 맡아 10.27법난의 원만한 수습과 종헌 개정 등 일대 개혁조치를 한 뒤 3개월 만에 다시 봉암사로 돌아왔다.

1987년 봉화 각화사 동암에서 정진 중 무심코 〈육조단경〉의 ‘정혜품’을 보다 ‘백척간두진일보’의 뜻을 깨치고는 마음이 환해졌다. 평소 공부를 마쳤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이 무엇인가’ 하는 마음으로 각화사 서암으로 가서 시중의 불교 교리서와 법문을 몽땅 구해서 살펴보니 성철 스님의 〈백일법문〉이 부처님 팔만대장경을 잘 요약하여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는 성철 스님과 선의 돈오돈수를 다시 보게 되었다.

이후 한국불교의 유구한 참선 수행을 바르게 하고 선을 널리 전하기 위해 도반 적명 스님과 함께 선납회(禪衲會, 현 전국선원수좌회)를 창립하고 공동대표를 맡아 1987년에 참선 수행자도 경전과 조사어록을 공부하여 정견을 갖추고 해야 한다는 생각으로 해인총림서 전국 선승들과 함께 제1회 선화자법회 주도했다. 당시 법회에서는 종정 성철 스님이 〈육조단경〉 지침 법문을 하고 서암 스님이 〈육조단경〉 강의, 일타 스님이 율장 특강을 하여 수좌 500여 명이 수일 동안 탁마 정진하는 선문에서는 보기 드문 법회를 열어 선풍을 진작하고자 애썼다.

2002년에 각화사 태백선원 선원장을 맡아 결제 대중이 15개월동안 매일 15시간 가행정진 결사를 이끌었다.

고우 스님은 한국 선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평생을 매진했다. 2000년대에 남방불교에서 팔리어 경전이 번역 소개되고 초기경전과 위빠사나 수행, 티베트 불교 수행이 도입되어 화두 참선과 충돌이 일어나 대중이 혼란스러워 하자, 선원수좌회의 공의를 모아 무여 혜국 의정 설우 스님과 조계종 교육원의 지원으로 2005년에 〈조계종 수행의 길, 간화선〉을 편찬해 화두 참선의 현대적인 지침을 제시했다.

2006년에는 봉화 금봉암을 창건하여 주석하며, 제방에서 선(禪) 법문 청이 오면 원근을 가리지 않고 갔다. 평생 남에게 신세 지는 것을 싫어하여 법문 다니는데 필요하다고 운전면허시험을 보아 단번에 합격하기도 했다.

2012년 조계사 선림원 증명법사에 추대되어 불교인재원과 더불어 서울 도심에서 재가자들에게 중도 정견과 화두 참선을 안내하는데 애쓰셨다. 특히 백일법문 강좌에는 수백 석 강의장이 꽉 차서 더 들어갈 수가 없었다.

고우 스님은 평소 “한국불교의 선(禪)이 세계적인 가치가 있다”고 주장했다. 스님은 “중국은 공산화와 문화혁명으로 선맥(禪脈)이 단절되었고, 일본은 의리선(義理禪)으로 변질되었지만, 오직 한국불교 조계종만이 조사선, 간화선풍의 원형을 전승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세계에서 한국 간화선풍을 주목할 날이 올 것”이라고 확신했다. 그래서 종단 차원에서 국제 선센터를 세워 간화선 인재를 양성하기를 발원하셨고, 선원수좌회 차원에서 봉암사 앞에 세계명상마을 건립을 적극 성원했다.

한국 선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수좌였지만, 다른 수행법을 경시하지 않았다. 2011년에 간화선과 위빠사나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조계종 한국문화연수원이 주최한 간화선과 위빠사나 국제연찬회에 한국 수좌를 대표하여 참석해 미얀마 대표 수행자인 파옥스님과 2박3일 동안 문답 대화했다. 평소 부처님이 깨친 중도를 화두 참구해 깨치는 길을 가장 지름길이라 보았지만, 염불이나 위빠사나, 지계와 보시, 봉사도 불교 수행으로 다 같이 평등하다고 생각했다.

스님은 평소 ‘부처님 가르침대로 살자’는 입장에서 절에 제사와 불공을 일체 하지 않고 오직 법문과 참선 수련만 했다. 심지어 부처님오신날 연등도 켜지 않았는데 왜 절에 연등을 켜지 않느냐고 물으면 “외형의 등 공양도 좋지만, 마음의 등을 밝히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답했다. 또 절 아래 마을 사람들이 세운 작은 교회가 있었는데, 낡아 새로 짓는다고 하자 선뜻 적지 않은 돈을 보시했다. 어린이들을 좋아하여 절에 아이들이 오면 남모르게 용돈을 주거나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에게 장학금도 전달해왔다.

평생 한국 선 발전과 대중화에 매진한 고우 스님은 그 공로를 인정받아 2007년 조계종 원로의원에 추대되었고, 대종사(大宗師) 품계를 품수받았다. 종단 원로가 되어서는 종단의 청정 종풍을 진작하기 위해 애썼다.

80세가 되어 기력이 급격히 떨어지자 이제는 은퇴할 때라며 일체 대중을 만나지 않았다. 그럼에도 손수 빨래를 하시며 검소하게 소욕지족으로 사셨는데, 말년에 스님은 가까운 이들이 안부를 여쭈면 “폐결핵에 걸려 절에 왔는데, 불교를 만나 병도 낫고 지금까지 행복하게 잘 살았다”며 “아무런 여한이 없다. 이제 빨리 가야지”라고 했다고 한다.

열반게(임종게)도 따로 남기지 않았다. 누군가 물으면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고 전해라”고 담박하게 답할 뿐이었다.

오로지 수좌로서의 삶을 살았던 고우 스님은 8월 29일 홀연히 본래 자리로 돌아가니 세수 85세, 법납 60세다. 제자들이 엮어낸 법문집으로 〈고우스님 육조단경 강설〉과 〈태백산 선지식의 영원한 행복〉 등이 있다.

“참선, ‘본래 부처’로 가는 길”

다시 읽는 고우 대종사 법문

한국불교 선풍 진작을 위해 평생을 매진한 선지식 은암당 고우 대종사(사진)가 8월 29일 원적에 들었다. 대종사는 평소 법문을 청하면 거절하는 일 없이 전국 어디든 가서 부처님 법을 전했다. 본지에 게재됐던 고우 대종사의 지상 법문 중 일부를 소개한다. 〈편집자 주〉



‘나’를 없애면 행복해진다

‘내가 있다’ 고 생각하니까 나한테 불리하고 욕되는 이야기를 들으면 화를 내는 것이다.

그렇게 내가 있으니 상대도 있는 것이다. 우리는 나와 상대를 갈라놓고 사고를 한다. 이게 자기존재의 원리를 모르니까 그렇게 사는 것이다. ‘나’ 라는 카테고리 속에 자기 자신이 갇혔다. 그래서 상대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섭섭하고 불리한 이야기를 하면 화를 벌컥 낸다. 이게 잘못됐다.

우리가 상대적(너와 나를 분리하는 생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꾸어 생활하면 부처님이 돼 외적인 조건과 능력을 가질 수 있고 절대로 나를 해하지 않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러한 삶으로 바꾸려면 불교 수행을 해야 한다. 그 가운데 제일 빠른 방법을 가르쳐주겠다. 〈반야심경〉에 쓰여있다.

〈반야심경〉은 270자이다. 그 중 오온개공도일체고액(五蘊皆空度一切苦厄)이 내용의 핵심이다. 이 중 핵심은 ‘공(空)’ 이다. 오온이 공한 줄 알면 모든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게 되고 상대적이고 유한한 사고에서 절대적이고 무한한 사고로 바뀌어 매일 좋은 날이 된다.

〈2011년 서울 봉은사 선지식 초청 일요법회〉

참선, 이타행 위한 수행

참선이 무엇인가? 참선도 부처님 가르침을 성취하는 여러 가지 방법 가운데 하나다. ‘참선을 왜 하는가?’ ‘불교를 왜 믿는가?’ 라는 질문도 같다. 둘 다 목적이 있다. 다 행복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목적이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가? 그 방법이 불교는 여타 종교나 사상의 그것과는 다르고 목적에 도달했을 때도 여타의 종교 사상과는 다르다. 다른 점이 무엇일까? 지구상의 모든 사람은 행복을 내 밖에서 얻으려 한다. 자본주의 사회로 가다보니 행복의 조건을 물질에 두게 되었다. 물질은 행복의 조건이 될 수 없다.

우리는 나 혼자 잘 되려고 참선을 하는 것이 아니다. 처음에는 나와 우리 집을 위하여 하다가, 선을 자꾸 하다보면 눈이 열리고 이웃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이웃을 위하는 것이 나를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것이 이웃을 위하는 것이라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된다. 참선을 제대로 하면 내 개인은 물론 사회와 국가도 편안하게 하려는 큰마음이 열린다.

〈2010년 동국대 국제학술대회 회향법문〉

“오온이 공함을 알면 행복하다”

팔만대장경의 핵심이 ‘공’ 을 알게 되고 깊이 이해하게 되면 어떤 변화가 올까.

첫째, 공을 이해하면 남과 비교하고 차별하지 않는다. 공을 통해 비교하지 않게 되면 모든 사람이 인종, 민족, 이데올로기, 종교를 초월할 수 있다.

둘째, 공을 알게 되면 자기가 하는 일의 가치와 의미를 느끼게 된다. 부처님은 고관대작이라도 국민을 괴롭히면 그 사람이 천민이라고 했다. 비록 똥을 푸고 있어도 아무도 안 하려는 일을 열심히 하고 그것으로 남을 돕고 생계를 잇고 있으니 고관대작이 되어 남을 괴롭히는 사람보다 훨씬 귀한 사람이라고 했다. 이 세상에 가치와 의미 없는 일은 아무 것도 없다.

셋째, 공을 알면 언제 어디서나 주인으로 살 수 있다. 백양사 방장스님이셨던 서옹 스님이 강조한 ‘수처작주(隨處作主)’ 라는 말이 그것이다.

넷째, 공을 알게 되면 그 무엇과도 소통이 된다. 성철 스님은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했다. 산은 물이 될 수 없고 물은 산이 될 수 없지만, ‘공’ 이란 본질을 보게 되면 산과 물이 소통 된다. 현상만 갖고는 절대 소통이 안된다. ‘공’ 이라는 존재원리에서는 산하고 물이 둘이 아니고 있는 그대로 하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서로 인정하고 존중하게 된다.

오온(五蘊)이 공한 것을 믿고 이해하면 내가 있다는 집착을 안할 것이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과 반대되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된다. 공에 대해 이해하면 지혜가 나와서 각계 각분야에서 갈등과 대립 없이 서로 인정하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 올 것이다. 나부터 그런 삶을 살아가면 행복과 보람을 느낄 것이다. 그 길로 간다고 불이익을 받는 일은 없다. 나와 남이 모두 자유롭고 행복해지고 덕스럽고 당당해지는 길이다. 이것이 누구나 본래부터 가진 ‘본래 부처’ 의 길, 깨달음의 길이다.

〈2009년 ‘깨달음의 길을 찾는 백양사 야단법석’〉



한평생 수행자의 삶으로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대중들에게는 중도법문을 통해 따뜻한 가르침으로 불법을 전했던 고우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배웅 속에 미련 없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시대의 선지식 고우 대종사 빛으로 화하다

문경 봉암사=송지희 기자, 사진=박재완 기자

조계종 명예원로 은암당 고우 대종사가 빛으로 화했다. 한국불교를 대표하는 선승이자 한평생 수행자로 살아간 스님에 대한 최고의 예우로써, 장례는 원로회의장이 아닌 전국선원수좌회장으로 치러졌다.

전국선원수좌회 장의위원회는 9월 2일 문경 봉암사 태고선원 대웅전 앞마당에서 고우 스님의 영결식을 거행했다. 영결식은 명종 5타로 시작돼 조계종 전 어장 원명 스님의 영결법요와 내빈 및 수좌 스님들의 헌향과 헌화가 이어졌다.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은 고우 대종사의 행장을 통해 생전 행적을 되짚었다. 스님은 "고우 스님은 늘 불교의 근본이 중도(中道)이고 선은 중도를 체험하고 실천하는 것이라 하셨다"며 "모든 수행자들의 사표로 한국불교의 참선수행을 바르게 하고 선을 널리 전파하는데 큰 토대가 됐다"고 강조했다.

장의위원장 무여 스님(축서사 조실)은 영결사에서 "큰스님께서 보여주신 화광동진(和光同塵)의 유지를 받들어 선의 대중화와 선의 세계화가 이뤄져 억조창생(億兆蒼生)이 안심입명하는 그날까지 이 땅의 선자들은 백의단원과 더불어 무한상상의 죽비를 놓지 않겠다"고 다짐했다.

종정예하 진제법원 대종사는 법어에서 "금일 고우 대종사의 영전에 공양을 올린다"며 '월락담공수저정(달이 못에 떨어지나 물 밑은 고요함이요)/ 금풍소지산야수(가을바람이 땅을 쓰니 산과 들이 앙상함이로다)' 가르침을 내렸다.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추도사에서 "오늘 우리종단의 큰 스승이자 모든 수행자의 사표와도 같은 어른을 적요의 세계로 떠나보낸다"며 "이제 누구에게 의지해 대종사의 크나큰 원력을 실현할 수 있을지 막막하다"고 아쉬움을 전했다.

원로회의 의장 세민 스님은 "대종사는 우리 선문을 지켜온 기둥이었으며 육조의 현지와 임제의 현의를 드날리고 우리 선문의 기보와 당간지주를 높이 세운 선지식이었다"며 "적멸을 통해 이룬 무일물의 공적이 깊고 깊으며 생사의 틀을 바꾸어 남겨놓은 적막이 천길 벼랑과 같다"고 애도했다.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은 "이제 사바의 언덕에서 스님의 따뜻한 미소 다시 볼 수 없고 스님의 정연한 법설을 거듭 들을 수 없게 됐으니 저희 사부대중은 어디에서 가르침을 구해야 할지 혼망하다"며 "고우 대선사의 영전에 조주선차 한 잔 올려 전국선원수좌들의 애도의 마음을 담았다"고 헌다했다.

각계 대표들의 조사도 이어졌다.

주윤식 중앙신도회장은 "큰스님의 지혜가 메마른 대지에 꽃비되어 내리듯 이땅에 다시 왕림해 달라"며 "오늘 이 추도의 자리가 큰스님과 다시만나는 장이 되게 해달라"고 발원했으며, 이원욱 국회정각회장은 "세상 모든 것이 인연의 화합이라는 큰스님 말씀에 화답하는 삶을 살겠다"며 "화합과 화쟁의 가치를 붙잡고 갈등의 사회를 건널 것이며 갈등의 파도를 잠재우겠다"고 다짐했다.



영결식서 추모사를 하는 총무원장 원행 스님.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서
9월 2일 영결·다비식 엄수
전국 제방수좌들 한자리에
연화대로 이운한 법구거화
사부대중 염불로 다비장엄
"속환 사바 하소서" 발원도

영결식에 이어 다비장이 거행됐다. 대종사의 법구는 수백기의 만장을 앞세운 채 영결식이 진행된 대웅전 앞마당을 지나 연화대로 이운됐다. 장의위원 스님과 문도 스님들이 위패와 영정을 안고 함께했으며 스님을 배웅하는 사부대중들은 합창한 채 스님의 법구를 따르며 속환사바를 발원했다. 연화장에 도착한 스님의 법구는 대중들의 애도 속에 연화대에 안치돼 적요의 세계로 나아갈 준비를 마쳤다.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영진 스님의 거화 발언이 떨어지자, 스님들이 연화대에 불씨를 넣었다. "스님 불들어갑니다. 어서 나오세요"를 외치는 대중들의 모습에서 큰 스님의 빈자리를 향한 그리움이 묻어났다. 다비가 이어지는 내내 절을 하거나 쉼 없이 눈물을 훔치며 스님을 추모하는 신도들도 적지 않았다. 스님의 법구는 곧 연기와 환한 빛으로 주변을 장엄하며 타들어갔다. 스님과 불자들은 합장한 채 나무아미타불을 염불하며 스님의 마지막 모습을 지켰다.

한평생 수행자의 삶으로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고 대중들에게는 중도법문을 통해 따뜻한 가르침으로 불법을 전했던 고우 대종사는 사부대중의 배웅 속에 미련 없이 지수화풍으로 돌아갔다.

고우 대종사 원적에 정치권도 애도 물결

은암당 고우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는 각계 추도사가 이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8월 30일 추도문을 발표하고 "한국불교의 대표적 선승이자 큰 어른이신 고우 큰 스님의 입적을 애도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평생 수행에 정진하셨던 스님은 한국불교의 개혁을 이끈 봉상사 결사정신과 수행가풍을 되살리기 위해 '제2의 결사'를 이끌어 오늘날 봉암사를 수행도량으로 자리잡게 했다"며 "또 적명 스님과 함께 현재의 전국선원수좌회를 창립해 한국불교의 선풍 진작과 세계화에 애쓰셨다"고 업적을 기렸다.

문 대통령은 "무한경쟁을 하지 말고 나와 너의 분별을 버리는 무한향상을 강조하셨다"며 "스님의 가르침대로 서로가 서로를 위하는 마음으로 모두 더불어 잘사는 삶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대권주자로 나선 정세균 前 국무총리도 SNS를 통해 애도문을 발표하고 "스님은 평생 올곧은 수행정진으로 납자들의 표상이셨고 외형의 공양보다 마음의 등을 밝히는 실천적 불법을 실천해오셨다"며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선지식 고우 대종사의 갑작스런 비보에 슬픔을 같이 한다"고 전했다.

이어 정 前총리는 "스님께서는 임종게 대신 '그 노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갔다 전해라' 라는 향기롭고 깊은 말씀을 남기셨다"며 "스님이 남기신 말씀에 욕심을 버리는 순정한 삶을 가슴에 되새길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前 검찰청장은 "평생 수행에 매진해 오신 고우 대종사께서는 조계종 종립선원인 봉암사 태고선원의 기틀을 다졌고 한국불교의 정신적 요람으로 자리잡는데 공헌하셨다"며 "간화선 중흥에 앞장선 것은 물론, 불교를 알리는 일이라면 대중과의 소통도 마다치 않으셨다"고 애도했다. 이어 "다른사람과 무한경쟁하지말고 스스로 무한향상하라는 스님의 가르침은 사회에 큰 울림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지희 · 노덕현 기자

"고우 대종사, 수행자의 길 몸소 보여준 선승"

9월 1일 봉암사 태고선원 남훈루서 간담회

장의위원 · 수좌 스님들
생전가르침 · 행적 회고
"봉암사를 일궈낸 주역"
경계 넘은 선지식 상찬



전국선원수좌회는 9월 1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남훈루에서 '고우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사진=박재완 기자

은암당 고우 대종사의 영결식을 하루 앞두고 조계종을 대표하는 선승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제방선원에서 제각기 수행에 매진해 온 수좌 스님들이 고우 대종사의 원적을 애도하고 그 가르침을 기리기 위한 자리를 마련한 것. 스님들은 생전 가르침과 남달랐던 행적을 되짚는 시간을 통해 "고우 대종사는 모든 수좌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던 수행자였다"며 "봉암사 태고선원을 현재 100여명의 수좌 스님들이 수행정진하는 도량으로 일궈낸 주역"이라고 입을 모았다.

전국선원수좌회는 9월 1일 조계종 종립선원 봉암사 태고선원 남훈루에서 '고우 대종사 전국선원수좌회장 봉행에 즈음한 기자간담회'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석종사 조실 혜국 스님과 전국수좌회 공동대표 영진 스님(백담사 유나), 전국선원수좌회 공동대표 일오 스님(도성암 선원장), 장의위원회 집행위원장 진범 스님(봉암사 주지)과 선법 스님(수좌회 의장), 장의위원회 총도감 원타 스님(해인총림 유나), 안국선원장 수불 스님, 포항 보경사 선원장 철산 스님과 문도대표 중산 스님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원명선원장 금강 스님(중앙승가대 교수)의 사회로 진행됐다. 참석한 스님들은 저마다 고우 스님에 대한 회고를 통해 수행자로서 남달랐던 행적을 상찬했다. 특히 봉암사를 지금의 수행도량으로 일군 주역이 바로 고우 스님이며, 한평생 수행자로서 살아왔던 그 삶 자체로 모든 수좌들의 존경을 받았던 선지식이었다고 입을 모았다.

장의위원회 총도감 원타 스님은 "1961년 조계종이 새롭게 출발한 당시에는 봉암사가 지금과 같이 비구승 특히 수좌들이 수행하는 도량이 아니었다"며 "고우 스님이 중심이 되어 한국전쟁 이후 단절된 결사를 다시 이어 제2의 결사를 주도했고 이것이 바로 봉암사가 진정한 수행도량으로 거듭나는 기틀이 됐다"고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전국의 수좌 스님들이 표상으로 삼고 존경하던 선지식이었다. 스님들은 그 이유에 대해 "큰 경계를 넘어섰음에도 정진을 놓지 않았다"며 "중도 사상에 입각해 모든 스님들이 부처님 가르침의 근본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항상 강조했다"고 입을 모았다.

혜국 스님은 "이미 경계를 넘어선 수행자로 살았기에 세간에서 기대하는 일화는 많지 않다"며 "그나마 기억나는 일화 역시 모두 수행자 그 자체로서의 모습"이라고 강조했다.

고우 스님은 한평생 도를 추구한 수행자의 표본이기도 했다. 철산 스님은 "마지막 입적을 앞두고 뵀을 때 기력이 완전히 쇠약해지신 모습이었다"며 "열반게를 염두에 두고 가르침을 구했더니 '본래 없더라, 오온이 역시 아무것도 없더라' 하셨다"고 말했다. 또 "금으로 된 봉황이 붉은 하늘을 난다, 개울에 맑은 물은 제대로 흐르더라"는 말도 전했다.

문경 봉암사=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불교국가들, 부산불교계에 감사 인사

티베트 보건협회 등 코로나 지원 감사장

부산불교계 불교 국가에 지원
국경없는민들레 · 홍법사 등에
영상 · 편지들 통해 감사 표시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정토마을 국경없는민들레의 의료구호물품을 들고 있는 네팔 수나빠띠 사람들의 모습.

부산불교계의 코로나 극복 지원에 대한 감사 인사가 연이어 답도하고 있다.

티베트 보건협회, 스리랑카 대사관, 네팔 수나빠띠 자선병원 등은 8월 27일 정토마을(이사장 능행) 국경없는민들레에 영상과 사진을 통해 감사인사를 전달했다.

이번 해외국가들의 감사장 전달은 국경없는민들레의 해외 코로나 극복 지원 활동의 결과다.

국경없는민들레는 6월 24일부터 7월 7일까지 2주에 걸쳐 '코로나19 산소긴급모금' 을 진행했고 1억 246만원을 모금해 네팔 수나빠띠를 비롯해 티베트,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에 의료물품과 자금을 후원했다.

총 1300여 후원자들이 힘을 모아 네팔 3521만 8000원, 티베트 338만원, 스리랑카 3530만원, 인도네시아 841만 5000원, 필리핀 1500만원 등 후원금을 전달했다. 966만 7000원은 하반기에 사용할 예정이다.

티베트 보건협회는 감사영상에서 "인도서 망명 중인 티베트인들과 사원 그리고 학교, 병원 등 방역을 위해 지원받은 기금을 활용했다"며 "국경없는민들레에 깊이 감사를 표한다"고 전했다.

스리랑카 대사관도 "국경없는민들레의 자비나눔과 박애정신에 깊은 존경을 표한다"고 감사장을 통해 마음을 전달했다. 스리랑카는 후원금으로 빈곤층 식량과 지역병원 의료용 산소발생기 및 실린더 구입 등을 진행했다.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지역민들도 이날 영상을 통해 감사 인사를 전했다.

국경없는민들레는 "생명을 사랑하는 불자들의 동참이 자비의 씨앗이 되었고 수많은 이들의 생명을 살리는데 사용됐다"며 "자비나눔은 지속적으로 이어질 것이며 그 정성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경없는민들레 외에도 부산불교계의 코로나 극복 지원에 대한 감사 또한 이어졌다. 몽골 우부르항가이도는 8월 24일 홍법사(주지 심산)에 감사 편지를 전달했다. 홍법사는 지난 5월 마스크 22만장을 몽골에 전달한 바 있으며, 1차로 12만장이 몽골 우부르항가이도 지역에 전달됐다.

우부르항가이도 측은 "전달된 마스크는 우부르항가이도청, 관세청, 병원, 사원 등에서 활용됐다"며 "홍법사를 비롯한 부산 불교계에 감사를 전한다"고 말했다.

홍법사는 "코로나로 인해 현지에 물품을 배송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 지금이라도 도착해 너무나 다행이며 나머지 10만장도 원만히 전달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코로나 장기화로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에 빠져있다.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가 자비나눔을 실천하길 바라고 앞으로도 나눔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고 말했다.

티베트 다람살라 망명정부도 7월 29일 부산 관음사(회주 지현)에 감사편지를 전달했다.

관음사는 7월 코로나 방역지원금 1000만원(64만 7079루피)을 인도 티베트 망명정부에 전달했다.

팔덴 돈덥 다람살라 망명정부 보건부장관은 "인도에 있는 많은 티베트인들을 대신해 관음사의 자비로운 기부에 깊은 감사를 전한다"고 밝혔다.

한편, 국경없는민들레가 지원한 네팔 수나빠띠 지역은 정부 지원을 기대하기 어려운 산간오지로 의료시설은 자선병원 하나 밖에 없다. 병원 입원환자들은 바닥에 누워 진료를 받고 위급환자들이 목숨을 잃어도 지켜볼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에 병원 이사장 발덴 스님은 5월 국경없는민들레에 산소발생기를 긴급 요청했다.

인도정부 관계자, 통도사 참배

방장 성파 스님 "한국-인도 세계평화 기여" 당부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8월 31일 통도사에 방문했다.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등 인도 정부 관계자들이 8월 31일 통도사(주지 현문)에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지난 인도부처님 봉불식으로 시작한 한-인 국제불교문화교류를 이어가고 우정을 돈독히 하기 위함이다.

통도사에 도착한 인도정부 일행은 통도사 경내를 돌아보고 방장 성파 스님을 친견했다. 이어 인도 부처님이 봉안되어 있는 국제템플스테이관 청풍관을 방문해 참배했다.

통도사 방장 성파 스님은 "인도는 우리 불자들에게 고향과 같은 곳이다. 불교의 가르침이 인도에서도 존중받고 성장하기를 바란다"며 "코로나로 인해 온 세계가 고통을 받고 있다. 우리 한국과 인도는 세계의 아픔을 치유하고 평화를 위해 기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은 "한국의 유서 깊은 사찰 통도사를 방문하게 되어 영광이다"며 "인도 부처님 봉안을 계기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뤄지고 인도와 한국 간의 특별한 관계가 형성되길 희망한다"고 말했다.

이번 통도사 방문에는 리바 강굴리 다스 인도 외무부 동아시아 차관과 스리프리야 란가나탄 주한인도대사, 디네쉬 K. 파드나익 인도문화교류위원회 사무총장, 소누 트리베디 주한인도문화원장 등이 함께 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청도불교사암聯 기부 물품 전달

청도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행)는 8월 27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방역에 매진하고 있는 공무원과 방역 관계자를 격려하고자 청도군 예방센터를 방문해 생수 5000병 등 200만원 상당의 기부물품을 청도군(군수 이승율)에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청도불교사암연합회장 지행 스님과 소속 회원 스님들이 참석했다.

지행 스님은 "코로나19 감염병으로 모든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응하고 있는 공무원과 방역관계자들에게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자 물품을 기부하게 됐다"면서 "평온한 일상으로의 회복을 위해 전 불자가 합심해 발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승율 청도군수는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청도불교사암연합회에서 소중한 기부물품을 지원해주셔서 감사하다"면서 "기부물품은 예방접종센터와 각종 방역 활동에 구슬땀을 흘리고 있는 관계자들을 위해 사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신성민 기자

동국대 경주캠퍼스 선도 스님 49재 엄수

8월24일 정각원에서
전 재산 대학에 기부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8월 24일 교내 정각원에서 선도 스님 49재를 엄수했다. 선도 스님은 생전 학교발전을 위해 끊임없이 장학금을 기부해 왔다.

동국대 경주캠퍼스가 8월 24일 동국대 경주캠퍼스 정각원에서 '선도 스님 49재' 를 봉행했다. 선도 스님은 동국대 경주캠퍼스 고액 기부자이자 선도장학회 이사장으로 지난 7월 7일 세수 106세로 입적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선도 스님 입적 후 장례위원회를 구성하고 경주캠퍼스 정각원장 철우 스님과 박종구 대외협력처장이 공동위원장을 맡아 장례와 49재를 봉행했다. 지난 8월 24일 코로나 방역 수칙을 준수하며 문도 스님들과 최소한의 유족이 참석한 가운데 막재를 봉행하며 스님과 회향 약속을 지켰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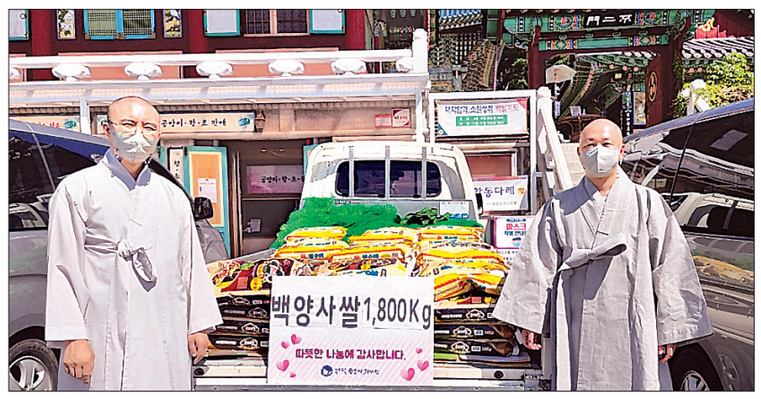
박종구 동국대 경주캠퍼스 대외협력처장은 "선도 스님은 100세라는 고령에도 못 배운 것이 한이 되었다며 전 재산을 장학금과 학교 기금으로 희사하셨다. 스님의 사연은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전했고, 그 뜻에 동참해서 우리 대학에 기금을 내신 분들도 많았다"며 "학교는 스님과의 회향 약속을 지켜 장례와 49재를 봉행했다. 아름다운 회향을 하게 된 스님과의 인연에 감사드리며 선도스님의 큰 뜻이 많은 기부자들에게 전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선도 스님은 일제강점기인 1916년에 태어나 "나라 없는 서러움과 못다 이룬 학업의 아쉬움을 인재 불사로 회향하겠다"는 원을 세우고 지난 2002년 전 재산을 대학에 기부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선도장학회를 설립해 학생들을 후원했다.

동국대 경주캠퍼스는 2015년 스님의 100세를 맞아 동국대 불교학부 명예 학생증을 수여하고 스님의 입적 시 장례와 49재 회향을 학교에서 모시기로 약속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울산 백양사 '자비의 쌀' 전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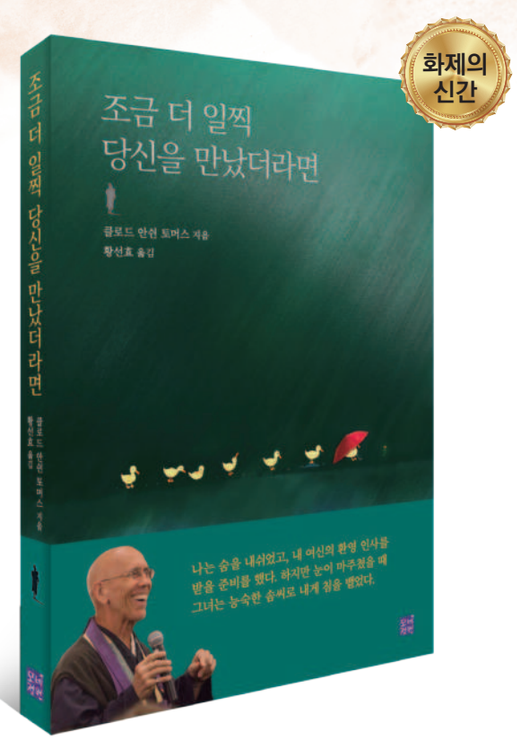
울산 백양사가 8월 26일 통도사자비원에 백미 1800kg (140포)를 전달했다.

8월 26일 통도사자비원에

울산 백양사(주지 산옹)는 8월 26일 통도사자비원에 백미 1800kg(140포)을 전달했다. 이번에 전달한 쌀은 백중 기간 동안 불자들이 기도하며 올린 보시금으로 마련됐으며 쌀은 사회복지법인 통도사자비원 산하시설인 양로원, 요양원, 전문요양시설 등에 입소한 어르신들에게 전달될 예정이다.

백양사 주지 산옹 스님은 "백중기도를 회향하며 불자들의 기도비로 마련한 쌀을 자비원 어르신들의 건강을 위해 보시하기로 했다"며 "불자님들의 작은 정성이 모여 도움이 필요한 곳에 전달돼 큰 선물이 되었으면 한다. 도움을 준 신도들과 직원들에게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을 전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전국 대형서점 및 인터넷 서점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클로드 안쉰 토머스 지음 / 황선효 번역 / 232쪽

전쟁에서 사람을 죽였다고 고백하는 한 전쟁 영웅이
지옥 같은 트라우마 끝에 얻어낸 삶과 고통에 대한 실증적 깨달음의 책

고통을 삶의 또 다른 기회로 만든 사람의 이야기

조금 더 일찍 당신을 만났더라면

우리는 고통을 통해서 치유를 향해 간다.

세상은 우리에게 고통은 적이라고 가르친다.
우리는 불쾌하고 실망스럽고 힘든 것은 거부하라고 끊임없이 주입받는다.
"이 모든 고통이 왜 필요한가? 행복하자! 즐기자!" 하지만 고통은 우리의 적이 아니다.
건너편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다.
반대편의 만족과 기쁨과 행복을 진정으로 알고 느낄 수 있는 것은 고통과 슬픔을 통해서이다.



지은이 클로드 안쉰 토머스

10대 후반의 어린 나이로 베트남 전쟁에 파병되어
항공훈장과 공군수훈십자훈장을 비롯한
수많은 훈장과 상을 받은 전쟁 영웅이다.
전쟁에 대한 심각한 트라우마로 죽음 직전까지 갔던
그는 비영리 기구인 'Zaltho Foundation'을 창립해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각 곳에서 평화와
비폭력에 대한 강연 및 순례 활동을 하는
명상수행자로 거듭났다.

모네의정원 TEL. 02-732-1520 FAX. 02-6442-1521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 정가 ~~14,000원~~ ⇨ **12,600원** (배송비 별도)

통영지역 최초 불교대학 설립돼

대성암, 8월 26일 제1기 불교대학 입학식 봉행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성낙두 경남지사장

경남 통영지역에 첫 불교대학이 탄생했다. 통영 대성암(주지 승원)은 8월 26일 사찰 경내에서 불교대학 1기 입학식을 개최했다.

이날 입학식은 내빈들의 인사말 및 축사로 진행됐으며 발원문 낭독이 이어졌다. 입학식에는 대성암 주지 승원 스님,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종묵 스님, 쌍계사본말사협의회회장 이암 스님, 보현사 묵원 스님, 연화사 도법 스님, 고성 청련암 원각 스님을 비롯해 불교대학 입학생들이 동참했다.

학장 승원 스님은 "무엇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르게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며 "안타깝게도 불법에 대해 바른 이해 없이 신행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바로 잡고 불교교육의 선도 기관으로 나아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쌍계사본말사협의회회장 이암 스님은 "불교는 '바르게 믿고 이해하고 실천해 증득한다'는 신해행증의 종교"라며 "불교대학을 통해 배우고 익힌 바를 실천하고 널리 회향해 성숙한 불자들이 되기를 바란다"고 축원했다.

통영불교사암연합회장 종묵 스님은 "통영에 새로운 불교 수련장이 문을 열었다"며 "이 지역이 부처님의 가르침을 바탕 삼아 불국토의 초석을 이루도록 모두가 마음내자며, 대성암 불교대학이 그 시작이 될 것이라 믿는다"고 축하했다.

불교교양대학으로 18명 입학
향후 신도교육기관 확장계획
매주 목요일 오후7시에 수업

입학생을 대표해 정종선 불자는 발원문을 통해 "신 · 구 · 의 삼업을 녹이고 부처님 가르침으로 무진 번뇌를 녹이고자 이 자리에 함께했다"며 "앞서 간 수행자를 모범으로 삼아 배우고 도반들과 함께 불도의 길로 나아가고 정진할 것을 다짐한다"고 서원했다.

대성암 불교대학은 경남 통영 지역 첫 불교대학으로 불교교양대학으로 운영을 시작해 조계종 신도교육기관으로 등록, 커리큘럼 등을 강화할 예정이다.



경남 통영 대성암이 통영지역 내 처음으로 불교대학을 개설했다. 사진은 입학식 모습.

현재 입학생은 18명으로 매주 목요일 오후 7시부터 9시까지 수업이 진행된다.

〈불교입문〉과 〈부처님 생애〉를 교재로 8주간 교육이 진행되며 중앙승가대 명예교수 정인 스님, 원각 스님(고성 청련암 주지), 원명 스님, 유근자 동국대 겸임교수가 강의한다.

강사인 정인 스님은 前 중앙승가대 교수로 〈부처님의 생애〉 편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30년 동안 중앙승가대에서 후학 양성에 앞장섰으며, 2018년 2월 정년 퇴임했다. 현재 중앙승가대 명예교수이며 1991년 창원 불지사를 창건해 포교에 매진하고 있다.

유근자 교수는 동국대 미술사학과에서 석 ·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강원도 문화재전문위원과 사단법인 사찰문화재 보존연구소 이사로 활동 중이다.

한편, 졸업식은 12월 6일 쌍계사 주지 영담 스님의 증명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궁금증 불러일으키는 황복사 터 유물들

'傳 황복사 터 출토 신자료' 展
신라천년보고서 10월 24일까지
승려 신분증 추정 목간 등 유물
2700여 점 중 32점 선별해 공개

국립경주박물관(관장 최선주)은 8월 27일부터 10월 24일까지 신라천년보고(영남권수장고)에서 '傳 황복사 터 출토 신자료' 특별 공개 전시를 개최한다.

1920년대 후반, 경주시 낭산의 동쪽 기슭에 위치한 황복사 터에서 기단석으로 사용되던 십이지신상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1942년에는 절터 내 삼층석탑에서 사리갖춤이 발견됐다. 이후 몇 차례의 부분적인 조사가 더 진행됐고, 이러한 관심이 이어져 2016년부터 (재)성림문화재연구원이 본격적인 발굴 작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올해 4월까지 5차례에 걸친 정밀 발굴 조사로 2700여 점의 유물을 발견했으며, 그 중 32점을 선별하여 이번 전시에서 특별 공개한다.

새롭게 공개되는 자료는 불교조각, 명문자료, 공예품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불교조각으로는 7점의 금동불입상이 발견됐다. 금동불입상에서는 크게 'U' 자형과 'Y' 자형, 두 가지 유형의 옷 주름을 볼 수 있다. 대부분의 불상이 오른손을 들어 두려움을 없애주고(施無畏印), 왼손을 내려 모든 소원을 들어준다(與願印)는 수인을 하고 있다.


황복사지서 출토된 금동불상 일괄.

관음보살로 추정되는 보살상은 장식이 달린 목걸이와 함께 왼손에 깨끗한 물을 담는 정병(淨甁)을 쥐고 있다. 돌에 새겨진 신장상은 갑옷을 입고 있는 무장의 모습이다. 마치 돌에서 걸어 나올듯한 입체적인 조각과 사실적으로 표현된 옷 주름은 통일신라시대 불교조각의 정수를 보여준다.

돌과 나무에 글자를 새기거나 적은 유물은 절터에 대한 궁금증을 불러일으킨다. 전 황복사 터에서는 '▫봉(奉)▫, ▫교(敎)', '▫신(神)', '궁(窮)', '진(眞)' 이 새겨진 비석 조각이 수습됐다. 또 연못 터에서 발견된 목간은 소나무로 만들어졌는데, 적외선 촬영 결과 '上旱(軍)寺迎詔(誘)沙弥廿一年' 이라는 10글자의 묵서가 판독됐다.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목간 끝부분에 구멍이 있어 승려의 신분을 나타내는 신분증 또는 물품의 꼬리표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전 황복사 터에서 출토된 다양한 장식품과 생활용품들은 사찰 건축물 내 · 외부를 아름답게 장엄하고, 거처하는 스님들이 사용한 생활용품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반원모양 금동장식과 불꽃모양 금동장식, 발이 세 개 달린 청동그릇, 청자병, 녹유벼루 등이 연못 터와 건물 터에서 발견되어 당시의 사찰 규모와 생활모습을 엿볼 수 있다.

전 황복사 터가 자리한 낭산은 〈삼국사기〉에 "신선이 하늘에서 내려와 노니는 복 받은 땅"으로 기록되어 있다. 낭산에는 신라 최초의 여왕인 선덕여왕의 무덤이 있고, 신라의 대표적 호국사찰인 사천왕사 터가 남아있다. 낭산은 신라 왕실과 관련된 성스러운 장소였다. 이번에 공개하는 새로운 자료들은 당시 신라 왕실 사찰의 면모를 보여주는 것으로, 황복사의 역사에 한 걸음 더 다가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054)740-7500

박재완 기자 wanihollo@hanmail.net

광주불교聯, 캄보디아 아동의류 지원

8월 31일 광주 광산구청에 기금 전달

광주 불교계가 캄보디아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전달했다.

광주불교연합회(회장 도성)와 (사)빛고을나눔나무(상임이사 중현)는 8월 31일 광주 광산구청(청장 김삼호)을 방문해 '캄보디아 아동 의류' 300벌(300만원 상당) 구입기금을 전달했다.〈사진〉



전달식에는 광주불교연합회장 도성 스님, (사)빛고을나눔나무 상임이사 중현 스님과 광주불교연합회 수석부회장 도계 스님, 법륜사 월인 스님, 김삼호 광산구청장, 오윤순 광산구청불자회장 등이 참여했다.

이날 전달식은 광산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은 캄보디아 도시의 아이들에게 여름용 면티를 제공하는 사업의 일환이다. 현지 캄보디아에서는 대부분의 아이들이 뜨거운 태양에 맨몸으로 여름을 지내는 경우가 많아 광산구에서 자매도시 지원 차원에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도성 스님은 "코로나19는 한국을 포함해 세계의 모든 국가에 큰 시련을 주고 있다. 특히 저개발국가의 어린이의 경우 그 피해는 더 심각할 것으로 생각된다. 오늘 보내는 작은 선물이 아이들에게 큰 희망으로 다가가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완주 송광사, '연음식 도시락' 나눔

9월 1일 지역 방역관계자, 복지시설에 전달

백화도량 완주 송광사(주지 법진)가 9월 1일 코로나19로 지친 방역관계자와 의료봉사자들에게 '연음식 도시락 나눔'을 펼쳤다.〈사진〉



이번 '연음식 도시락 나눔'은 한국불교문화사업단(단장 원경)이 후원하고 '나 · 비 · 채(나누고 비우고 채우고)' 정신을 실천하는 송광사가 주관했다.

완주 송광사는 경내 백련지에서 자란 연잎과 연근으로 만든 연잎밥과 연근 샐러드 등 오신채가 들어가지 않은 재료로 정성껏 850인분의 연음식 도시락을 제작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연음식 도시락은 완주군청과 지역 행정복지센터, 소양 파출소, 소방서 등 방역기관과 관계자들에게 전달했다.

또한 마음사랑병원(250개), 송광정심원(220개), 금선백련마을(60개), 은혜의 동산(50개), 선덕보육원(50개) 등 지역사회 복지시설에도 연음식 도시락을 전달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제주 관음사, 백중 공양물 '회향'

주민센터 등 지역에 전달

조계종 제23교구본사 관음사(주지 허운)는 8월 27일 신축년 하안거 해제와 칠석, 백중 회향을 맞아 기도기간 신도들이 올린 공양물들을 아라동 주민센터(동장 오상석)와 자비원, 연화원 등 지역 복지기관에 전달했다.〈사진〉



아라동 주민센터에서 진행한 전달식에는 총무국장 응진 스님, 오상석 아라동 주민센터 동장, 오현숙 주민복지팀장 등이 참석해 물품을 전달했다.

응진 스님은 "관음사는 신도들께서 정성으로 올려주신 칠석, 백중 공양물들을 지역 사회에 환원해 부처님의 자비를 실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달한 물품은 기도기간에 신도들이 후원한 수건 10박스, 치약, 칫솔, 비누 등 총 16박스이며, 주민센터와 복지시설을 통해 저소득 계층과 거동이 불편한 취약계층에 배분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2021년도 하 반 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공고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는 승려복지법시행령 제12조 제3항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2021년도 하반기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을 공고합니다.

신청자격
1.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으로 매 안거 결계신고를 필하고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을 납부하고 있는 스님
2.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지역가입자에 한함)로 국민연금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스님

※ 단, 종단 미등록 사찰·법인의 권리인 및 관리인과 그 도제스님은 지원하지 아니함

지 원 금
1인당 월 36,000원(정액)이며, 현재 36,000원 미만 가입하고 계신 스님은 납부하신 금액으로 지원됨

신청서류
1.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신청서(조계종 홈페이지 '공지사항' 양식다운)
2.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발급방법)
   1) 국민연금관리공단 각 지사 발급
   2) 국민연금관리공단 홈페이지 인터넷 발급
   3) 국민연금관리공단 콜센터(1355) 전화 신청 후 팩스 발급 요청
3. 신청자 명의 통장사본
4. 주민등록등본

신청기간 및 방법
1. 신청기간 : **2021년 10월 1일(금) ~ 10월 31일(일)**까지 승적상 재적 교구본사로 접수
2. 신청방법 : 우편 또는 팩스 접수
3. 지원절차 : 재적 교구본사 서류 접수 → 승려복지회 서류 이관 → 서류심사 및 지원 결정(11월) → 지원금 입금(12월)

보험료 지원중지 대상자
1. 매년 3월 '전년도 국민연금보험료 납부확인서' 미제출된 스님(신규 및 기지원자 모두 해당)
2.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 미납된 스님
3. 2020년도 분한신고 및 전 결계 미등재된 스님
4. 지역가입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된 스님
5. 국민연금보험료 납부종료된 스님
6. 군 복무 중인 스님
7. 기타

※ 위 항목에 해당되는 스님은 지원이 불가하오니 꼭 승려복지회를 통해 안내받으시기 바랍니다.

문 의 처
1. 문의처 : **02-2011-1980~1, 1726~7**
2. 기 타 : 세부사항 및 관련 양식은 조계종 홈페이지(www.buddhism.or.kr) 참조

불기2565(2021)년 9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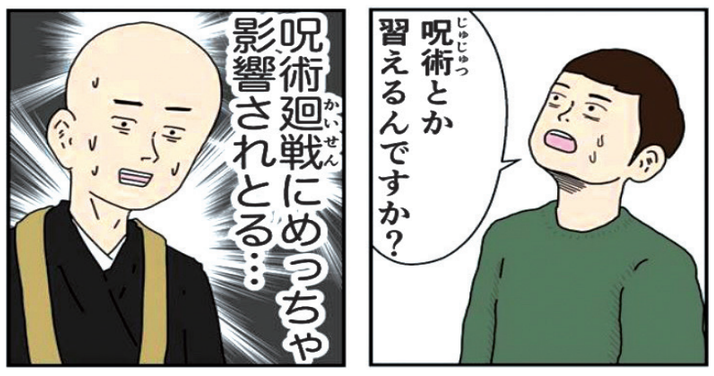
대한불교조계종 승려복지회장 **금 곡**

스님이 그리는 만화, 일본서 인기

워커플러스 8월 25일 만화 인기 소식 전해

정토진종 요시 유키 스님 '콘도마루' 필명으로 연재 불교에 일상의 경험 담아

박영빈 객원기자



스님이 연재하는 만화의 한 장면. 사진출처=워커플러스

스님이 그리는 만화가 일본에서 인기다. 8월 25일 일본 '워커 플러스'는 자신의 체험을 바탕으로 불교의 가르침을 알기 쉽게 전하는 스님의 만화가 독자들의 반향을 얻고 있다고 전했다.

'콘도마루'라는 필명으로 활동 중인 콘도 요시유키 스님은 정토진종의 스님으로 지난해부터 만화를 연재해 오고 있다. 스님은 "본래는 종립학교에서 중고등학생들에게 불교를 가르치는 교법사로 근무해왔다. 그러나 새로운 도전에 나서고 싶어 퇴직 후 만화를 그리기 시작했다"고 전했다.

만화로 불교의 메시지를 전할 생각을 한 배경으로 스님은 "본래 만화를 좋아하기도 했고, 수업 중에 그림을 그려가며 설명을 하곤 했다. 그때 학생들이 흥미를 보이는 것을 보고 더욱 그림을 그려야겠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콘도 스님의 만화는 일반적인 불교만화와는 조금 다른 내용으로 진행된다. 스님의 만화는 교리나 불경의 내용을 풀어서 전하는 것만이 아닌 스님 개인의 경험에서 오는 일상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그려진다.

콘도 스님은 "젊은 사람들이나 일반 대중들은 불교의 교리를 전혀 모르는 경우가 많다. 그런 사람들에게 단지 교리나 불경의 내용을 쉽게 푸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듣기를 잘했다'라는 생각이 드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고 말했다.

스님의 만화에서 가장 많은 반응을 얻고 있는 작품은 '양아치와 주지스님'이라는 시리즈. 일반적인 전개라면 스님이 교훈을 주는 내용이겠지만 스님은 색다른 시도를 가했다. 불교를 너무나 좋아하는 젊은 불량배가 반대로 스님을 훈계하는 전개로 진행된다. 해당 작품에 대해 콘도 스님은 "여기서 등장하는 주지스님은 머리로는 알고 있지만 실천하지 못하고 있는 인물, 양아치는 지식은 적지만 실천하는 인물을 상징한다"고 설명했다. 스님은 이 시리즈에 대해 "실제로 교법사로 활동하던 때의 에피소드가 많이 담겨있다"며 웃어 보였다.

또 최근에는 백중기간의 체험을 주제로 삶의 무상함에 관한 만화를 게재했다. 스님은 "백중기도를 하다보면 의외로 많은 가정이 젊은 가족을 떠나보낸 경험이 있음을 알게 된다"며 힘들지만 또 그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함께 공유하며, 잃어버리는 것에 대한 소중함을 만화로 전했다.

한편 댓글이나 독자의견 등으로 받은 질문이나 내용을 답하는 형식의 만화도 연재 중이다. 최근 연재한 에피소드에선 불교학교에 대해 소개하는 스님에게 어린이가 "불교학교에선 스님이 주술이나 마술을 배우나요?"라고 하는 질문을 받는 내용이 등장했다. 스님은 "최근 TV에서 방영하는 인기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스님 캐릭터가 학생으로 등장해 주술을 쓰다고 한다. 이 만화를 게재했을 때 다양한 세대의 감상들이 도착했다"며 다양한 세대들의 응원을 받아 기쁘다고 밝혔다. 현재 스님은 연재한 만화들을 모아 내년에 단행본으로 출간하기 위해 노력 중이다.

中 사찰, 배달 플랫폼 투자 논란

사찰 측은 '스타트업 순수 지원' 주장



상하이 위푸스 전경. 사진출처=글로벌 타임스

중국 상하이에 소재한 유명고찰 위푸스(玉佛寺)가 보시금을 이용하여 투자를 하고 있다는 의혹이 재기됐다. 8월 27일 중국 '글로벌 타임스'는 위푸스가 유명 배달 플랫폼 운영에 투자했다며 중국 누리꾼들의 반응을 보도했다.

상하이에서 활동하는 관광 전문 블로거 '허허'는 8월 21일 중국SNS인 웨이보에 "상해의 유명 사찰이 코로나 시기에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보시자들을 대상으로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다"는 내용의 글을 올리며 의혹을 제기했다.

게시물에서는 사찰의 이름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여러 언론 인터뷰를 통해 해당 사찰이 위푸스임이 드러났다.

한 기업가는 "상하이의 위푸스는 기업적인 측면에서도 정말 믿을만한 투자자로, 위푸스는 이미 10년 전에 배달 서비스 플랫폼 기업인 '어러머(Eleme)'에 투자한 바 있다"고 밝혔다.

허허의 게시물로 중국 누리꾼들 사이에선 사찰의 기업투자에 대한 논쟁이 일고 있다. 일부 누리꾼들은 사찰의 투자는 사찰경영의 일환이라며 지지했지만 다른 누리꾼들은 부패로 이어질 수 있는 투자에 나서는 것이 적절치 않다고 의견을 개진했다. 이들은 중국의 많은 사찰들이 상업화된 것처럼 위푸스의 기업투자도 선한 동기로 시작하지만 부패로 점철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불거지자 위푸스 측은 "투자는 2009년 상하이시와 함께 재단을 설립해 지원한 창업지원 프로젝트"라며 "이 재단은 200개가 넘는 스타트업을 지원하고 있다. 위푸스 프로젝트는 투자가 아닌 스타트업 재정지원"이라고 반박했다.

또 논란이 된 어러머 투자에 대해서도 "어러머에 대해 재정 지원 또한 프로젝트 일환"이라며 "주식이나 투자배당을 받지 않는 순수 재정지원"이라고 말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보리수 묘목, 호주로 전해지다

호주 정부 외래종 검역 중 1년후 벤디고 대탑에 식재



스리랑카에서 이운되고 있는 보리수 묘목. 사진출처=ABC 뉴스

2300년전 스리랑카로 전해졌던 부처님 보리수가 다시 호주로 전해졌다. 8월 26일 호주 'ABC 뉴스'는 스리랑카에서 전달된 신성한 보리수 묘목이 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고 전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리수나무는 초기불교시대부터 예경의 대상으로 여겨져 온 식물이다. 학술적으론 뽕나무과 무화과속에 속하는 핍팔라(pippala)나무로, 이중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보드가야의 마하보디 사원의 나무를 보리수라고 특별히 이른다.

하지만 보드가야 보리수는 여러 차례의 전란으로 소실돼 부처님 당시의 나무가 아니다. 보드가야를 비롯해 불교 성지 곳곳에 식재된 보리수들은 BC 245년 아쇼카 왕이 부처님의 보리수에서 묘목을 얻어 스리랑카로 전달한 보리수에서 다시 묘목을 얻은 것이다.

현재 스리랑카 아누다라푸라(anudharapura)의 스리 마하보디 사원(Sri Mahabodhi temple)에 심겨진 보리수가 바로 그 나무로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으신 그 보리수와 가장 가까운 나무이다.

이번에 호주로 전해진 보리수 묘목도 바로 이 아누다라푸라의 보리수에서 묘목을 얻은 것으로, 약 1년간의 검역을 거친 후 벤디고(Bendigo)에 소재한 '세계자비의 대탑(Great Stupa of Universal Compassion)'에 식재될 예정이다.

세계자비의 대탑 프로젝트의 총책임자인 이안 그린은 "불교가 탄생한 바로 그 자리인 보리수는 불교공동체에 매우 중요한 가치를 지닌다. 보리수를 모시기 위해 많은 노력과 비용이 들었지만, 보리수의 가치는 단순한 돈 그 이상"이라고 설명했다.

세계 자비의 대탑은 국제 티베트 불교단체인 '대승불교유지재단(FPMT)'이 주도해 건립하고 있다. 티베트식 대탑을 중심으로 세계의 여러 종교 간의 평화와 자비를 상징하는 정원과 사원들이 함께 건립된다.

보리수는 이중 스리랑카 불교를 상징하는 사원인 보디왐마 위하라(Bodhi Vammma Vihara)에 식재될 예정이며, 스리랑카 이주민 불교공동체가 이운과 식재, 관리를 담당한다.

이안 그린은 "2,500년 전,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바로 그 나무는 파괴됐지만, 그 직계후손이 2,300년간 스리랑카에 살아남아 지금도 건재하다는 것은 불교도들에게 그 무엇보다 감동적인 이야기"라며 보리수의 중요성을 역설했다.

현재 스리랑카에서 이운된 보리수 묘목은 호주의 식물검역소에서 검사를 받고 있다. 대탑 측은 "보리수는 지난 5월에 무사히 도착했다. 그러나 검역문제로 흙이 제거되어 뿌리가 드러난 묘목으로 전달됐다"고 전했다.

검역당국의 최고 책임자인 비비안 스미스 박사는 "처음 보리수를 보았을 땐 마치 앙상한 나무 막대처럼 보였다. 그러나 지금은 다시 생명력을 회복했고 조금씩 자라나고 있다"고 전했다. 비비안 박사는 "묘목은 생물보안상 매주 해충과 질병에 대한 검사를 받고 있다. 본래라면 좀 더 빨리 불교계에 전달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강화된 검역으로 내년 5월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탑 측은 "묘목에 대해 오직 걱정되는 것은 무화과속에 속하는 보리수가 호주의 겨울을 날 수 있는 지"라며 내년의 식재 법요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印불교단체, 불교문화위 창설 나서

'붓다바남 프로젝트', 8월 30일 정부에 요청



락스마이아는 인도 관광부 장관인 키샨 레디(가운데)에게 국립 불교문화유산위원회 창설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 사진출처=더 힌두

8월 30일 인도 유력 매체 '더 힌두'는 인도 불교단체인 '붓다바남 프로젝트(buddhavanam project)'가 인도정부를 상대로 '국가 불교문화 위원회'를 창설할 것을 요구하는 공식 서한을 발송했다고 전했다.

붓다바남 프로젝트는 남중부 인도의 텔랑가나주에 소재한 불교문화유산인 '나가르주나 사가르(Nagarjuna Sagar)'의 개발과 보전을 위해 설립된 단체다.

붓다바남 프로젝트의 특별책임자인 말레팔리 락스마이아는 인도 관광부 장관인 키샨 레디에게 국립 불교문화유산위원회 창설을 요청하는 공식 서한을 보내고 기자회견을 가졌다.

락스마이아는 "인도의 수많은 주(州)에 수백 개의 불교 유적과 기념물이 분포해있다. 이는 인도의 불교문화를 명백히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인도의 불교문화유산을 보존하고 관련된 연구와 출판, 보급 등을 할 수 있도록, 정부가 국립 불교문화유산위원회 창설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붓다바남 프로젝트 측의 집계에 따르면 인도 전역에는 724개의 불교 유적지가 있으나, 이중 제대로 발굴, 보존되고 있는 곳은 392개소로 밝혀졌다.

락스마이아는 "위원회 위원장과 이사들은 반드시 저명한 스님이나 불교기관장과 같은 불교도가 맡아야 하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활동을 위해 대학기관의 연구자나 고고학자등의 전문가들이 선출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붓다바남 프로젝트는 "인도 국내외 불자들의 견문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그동안 등한시 되어온 불교 유적지, 기념비, 문학, 문화유산을 문서화하고 명백히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농업 다음으로 인도 경제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김민재 객원기자

2021년 문화체육관광부 공모사업

생명존중·자살예방 '몸·마음·쉼' 사업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생명살림 법회'

불교상담개발원은 문화체육관광부 민관협력 자살예방사업인
명상으로 함께하는 '2021 생명살림 법회'(조계사)를
BBS TV와 라디오를 통해 방송합니다.

◈ 내 용 : 화두명상을 활용한 생명살림법회
◈ 법 사 : 남전스님(조계사 선림원장)
◈ 방송일시 : – TV : 9월 7일(화) 19:30 / 9월 8일(수) 12:30 / 9월 11일(토) 15:30
– 라디오 : 9월 12일(일) 10:00

※ 본 법회는 사회적거리두기 4단계로 인하여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주 최‖ 문화체육관광부
‖주 관‖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대한불교조계종 불교상담개발원

제9회 묘엄불교문화상 후보공모

고(故) 세주 묘엄 명사스님의 유지를 받들기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에서는 불교문화 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 표창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상 후보를 공모합니다.

공모기간 2021년 9월 10일(금) ~ 10월 20일(수)

시상내역 2명(또는 단체), 각 상장 및 1천만원 상금

추천자격 및 선정기준
1. 불교교육, 포교, 수행, 불교학술, 불교예술 등의 분야에서 열악한 여건 속에서 의미 있고, 뛰어난 활동을 다년간 지속해온 결과, 불교발전에 기여한 공로가 큰 개인 또는 단체로서, 그 활동으로 인해 최근 5년간 다른 기관(재단)으로부터 수상한적이 없는 후보를 우선적으로 선발한다.
2. 단체는 설립된 지 5년 이상이고, 회원 30명 이상인 곳이어야 하며, 근거자료와 함께 그 동안의 활동업적이 첨부돼야 한다.

접수 및 문의
• 접수방법 : 직접접수 및 우편접수
• 접수양식 :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에서 다운로드 (http: //cafe.daum.net/myoeom.org)
• 접 수 처 : 46292 부산시 금정구 금정로 42(장전동) 문화공간 봄(BOMM) 2층 윤종갑 교수
• 문 의 : 사무국장 윤종갑 010-2314-2722 greencw@hanmail.net
※자세한 사항은 묘엄불교문화재단 카페 참조

수상자 발표
• 개별통지 후 재단 카페에 공지
• 시 상 식 : 2021년 12월 10일(금) 오전 10시 수원 봉녕사 대법당 세주 묘엄 스님 제10주기 추모다례재일

재단법인 묘엄불교문화재단 사무국

다시보는 불모지

❹ 불교 지명&사찰 두부

“매향리는 매화 향기 마을 아니다”

코로나 때문에 이전 만큼 여행을 많이 다니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가족 단위로 국내 여행을 다니는 분은 많은 것 같습니다.

전국을 다니다 보면 ‘이곳은 불교랑 관련 있나’ 싶은 지명들이 많죠? 그래서 오늘은 불교 지명 이야기를 해볼까 해요.

우선 매향리입니다. 매향리는 북한에도 있고, 남한에도 몇 곳이 있습니다. 제일 유명한 곳이 경기도 화성시 우정읍 매향리입니다. 현재 이곳 지명을 한자로 보면 매화나무 매(梅)에 향기 향(香)을 씁니다. 이름을 보면 예쁘죠. 매화 향기 나는 마을.

하지만 진짜 매화나무가 많이 있어서 붙여진 지명일까요? 아닙니다. 원래는 매화나무 ‘매’가 아니라 ‘묻다, 매장하다’ 할 때 ‘매(埋)’를 쓴 매향리입니다. 다시 말해서 향을 묻는 ‘매향’을 한 곳이라는 뜻입니다.

매향은 침향을 만들기 위해서 이뤄진 행위였습니다. 효능 좋은 침향을 얻기 위해 갯벌에 나무를 묻었던 것이죠. 정확하게는 미래에 오실 미륵불에게 공양할 침향을 마련하기 위한 일종의 신앙행위였습니다.

이를 기념하기 위한 매향비도 세워졌는데 전국적으로 16곳에 존재합니다. 제일 오래된 것이 전남 영암군 군서면에 있는 매향비인데 신라 원성왕 6년 786년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통해 매향은 신라 말기부터 이뤄진 신앙이라고 볼 수 있죠.

이후 남아 있는 것은 모두 여말선초, 고려 말부터 조선 초에 세워졌습니다. 이를 살펴보면 나라가 망하고 새로운 나라가 세워지는 혼란기에 민초들이 구원의 존재를 바라며 매향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죠.

또한 매향비가 있는 곳들이 대부분 해안가를 따라 있는데요. 이곳들은 왜구의 침입이 빈번했던 곳입니다. 혼란기, 왜구들의 침입이 빈번해졌고, 미륵부처의 하생을 기원하며 매향을 했을 것이라고 추측도 가능해집니다.

왜 어떤 이유로 미륵을 바라며 향을 묻었던 민중들의 절박하고 거룩한 신앙이



‘구림리 매향비’로 불리는 영암군 정원명 비석.



매화 향기 나는 마을로 명칭이 변경됐는지 모르겠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바로잡혔으면 좋겠습니다.

멀리가지 않더라도 서울 근교에서도 불교 지명은 쉽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 역 명칭에서 불교 지명은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청량리역은 딱 봐도 불교와 연관이 많은 지명입니다. 청량은 문수보살이 상주하는 청량산에서 유래한 이름으로, 청량리는 이곳에 있는 청량사에서 유래한 지명입니다.

망월사역은 망월사에서 비롯됐죠. 망월사는 한양 사람들이 정월의 만월을 보는 사찰로 붙여졌다고 하죠. 신라 선덕여왕 8년인 639년 해호 스님이 왕실 융성을 발원하며 창건했습니다.

회룡역은 의정부 회룡사에 기원을 둡니다. 회룡사는 681년 의상 대사가 창건한 법성사가 시초입니다. 조선시대 무학대사가 정도전의 시기를 피해 숨은 곳이기도 합니다. 1403년 태조 이성계가 이곳을 찾아 중창한 뒤 이름을 회룡사로 고쳤다고 합니다.

불광역도 바로 불교지명임을 알 수 있습니다. 지명도 불광동인데 모두 불광사라는 사찰 명칭에서 유래됐습니다.

보문역과 보문동도 모두 보문사라는 사찰에서 유래됐는데요. 보문사는 미타사, 청량사와 함께 사승방으로 불렸습니다. 현재는 비구니 종단인 보문종의 총본산이기도 합니다.

천왕역과 천왕동도 천왕사가 있던 곳입니다. 애초에는 우리가 아는 ‘천왕(天王)’이었는데 일제강점기에 ‘임금 왕(王)’을 ‘왕성할 왕(旺)’으로 바꿨습니다.

암사역과 암사동도 ‘바위 위의 절(巖寺)’에서 나온 명칭입니다. 이 사찰은 백제시대의 절인 백중사에서 기원한다고 전해지며, 9개의 사찰이 있어 구암사(九岩寺)라고 했습니다.

암사동에는 부처고개가 있는데 여기의 석불을 일제강점기 때 일본인이 가져갔다고 전해집니다. 현재 그 행방은 묘연합니다.

이렇게 불교 지명으로도 우리나라에 면면히 내려오는 불교문화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제는 어디를 다니면서 지명의 유래도 살펴보셨으면 합니다.

조선 왕실도 사랑한 ‘사찰 두부’

최근 사찰에서 두부를 만들어 팔기 시작했습니다. 봉은사는 전통문화체험시설인 서래원에서 ‘봉은두부’라는 명칭의 두부를 팔고 있습니다. 봉은사가 두부를 제작해 판매하는 것은 역사적으로 봉은사가 조포사였기 때문입니다.

조포사. ‘지을 조(造)’에 ‘두부를 의미하는 포(泡)’, 그리고 ‘절 사(寺)’를 사용해서 조포사라고 하는데요. 말 그대로 ‘두부를 만드는 사찰’이라는 뜻입니다.

조포사는 정확하게 말하면 왕릉에서 이뤄지는 국가 제향에서 사용되는 두부를 맡아서 제작하는 전문적인 사찰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포사와 사찰 두부에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두부가 처음으로 만들어진 게 언제인지를 다룬 정확한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이른 기록은 10세기 북송시대 때 첫 기록이 있다고 합니다. 한반도에는 13~14세기에 전래됐다고 전문가들은 추정하고 있습니다.

두부가 한국 문헌에 처음으로 등장한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고려 후기 문인 목은 이색(1328~1396)의 시에서입니다. 그는 자신의 문집인 〈목은시고〉에서 두부 관련 시를 5편 가량 남겼습니다. 그중 가장 이른 기록은 1365년 이인복(1308~1374, 고려시대 문신으로 충정왕



조선 왕실 제향 진설상 예상도. 사찰 두부는 제향의 중요 음식이었다.

의 배향공신)과 함께 두부음식을 만들어서 먹었다는 기록인데 당시의 정황을 시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산승의 거처와 같았다.’

그만큼 차분하고 담박한 풍미가 있었다는 의미로 풀이됩니다.

조선시대에 들어오면서 사찰두부는 왕실의 음식이 됩니다. 조선시대에는 국가 제향이나 소수 고위관료들만 두부를 먹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었다고 합니다. 당시 왕실에서는 두부를 만드는 데 사용되는 간수를 민간에서 함부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당시 두부는 굉장히 귀중한 음식이었던 겁니다.

이제 조포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조포사는 원래 조선 후기 때 붙여진 명칭



입니다. 조선 전기 때에는 능침사라고 불렸습니다. 능침사가 처음 등장하는 것은 중국 후한시대 때입니다. 한반도에는 삼국시대에 본격적으로 설치됐습니다. 고려시대에는 왕실의 진전사원으로써 왕릉의 추복을 담당했습니다. 선왕의 명복을 기원하는 기능을 했던 사찰이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전 시기에 걸쳐서 왕릉을 수호하는 능침사들이 선정됐습니다. 명칭은 제실, 제궁, 능사, 능침사, 조포사 등으로 다양하게 불렸지만, 왕릉을 수호하고 국가 제향을 담당했던 기능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럼 조선시대에 조포사는 몇 곳이 있었을까요. 정확하게 시기별로 몇 곳이 있었다고는 통계 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조선 후기에 들어서 조포사 기능을 담당했던 사찰들의 현황을 정리한 기록은 남아있습니다.

바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된 〈묘전궁릉원묘조포사조(廟殿宮陵園墓造泡寺調)〉라는 기록에 수록돼 있습니다. 이는 1930년 이왕직 관리자들을 대상으로 조선총독부가 조사를 한 것입니다.

이에 따르면 한반도 전역에 총 38곳에 조포사가 있었다고 확인됩니다. 조포사에는 서울 강남 봉은사부터 진관사, 수국사, 용주사, 천은사 등 우리가 알고 있는 고찰들이 다수 포함돼 있습니다.

이런 능침사, 조포사 이외에도 조포속사도 있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설치되는데 조포속사 사찰들은 두부를 만드는 조포사의 재정적 지원을 담당했다고 합니다. 해남 땅끝 사찰로 잘 알려진 미황사의 경우에는 조포속사였습니다.

하지만, 이를 반대로 생각해보면 다른 사찰의 지원을 받을 정도로 조포사들의 상황이 열악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기록에 따르면 일부 조포사들은 과도한 승역을 견디다 못해서 사찰 재정이 몰락하고 피폐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조선왕실의 제향을 담당했던 조포사들은 1908년 대한제국 황실의 국가 사전 제사권이 몰수되면서 제사를 더 이상 지낼 필요가 없게 되고 이후 제향을 담당했던 조포사의 기능도 자연스럽게 사라집니다.

왕실의 제향을 담당했던 두부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지만, 사찰 두부는 남았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진관사 스님들은 섣달 그믐부터 정월 보름까지 두부 만들기 작업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만들어진 두부를 가지고 채식 만두를 만들어서 조왕신에게 재를 올리거나 제사를 지내기도 했습니다. 남은 두부들은 신도들과 함께 나눠 먹었다고 합니다.

이상억 서울대 명예교수가 관련 기록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상억 명예교수의 증조모가 진관사의 대시주자였는데 섣달 그믐이면 진관사에서 두부전골을 요리해서 보내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온가족이 같이 먹었다고 증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찰의 두부는 왕실의 음식에서 대중과 함께하는 음식으로 변모했던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 유튜브 채널인 ‘스튜디오 공’에서는 ‘불자라면 모르면 아쉬운 지식- 불 · 모 · 지’ 콘텐츠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불 · 모 · 지’는 불교계 언론 운영 유튜브 중 유일하게 기자가 단독으로 진행하며 다양한 불교 지식들을 알려주는 콘텐츠입니다. 현재까지 방영된 콘텐츠 중 대중들의 호응이 좋았던 회차들을 정리해 소개합니다.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촬영하면 해당 영상들을 볼 수 있습니다.

정리=신성민 기자

무형문화재 제9호(사)부산영산재
영남불교예술대학 신입생모집

한국 범음범패 전통을 자랑하는 1800년도 부산어산회의 맥을 이어 종합불교예술로 승화된 부산시무형문화재 제9호 (사)부산영산재보존회에서 의식교육 28기생을 모집하오니 관심있는 사부대중들의 많은 동참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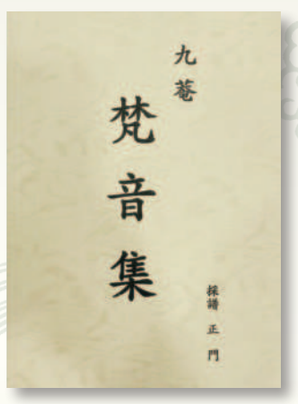
■ 모집학과 및 정원

모집학과	강의내용	요일	시간	모집인원
의식 기초반	이론 및 실기 (조석예불 및 불공)	목	2시~3시30분	00명 (2년)
의식 전문반	• 이론및실기, 사물다루는 법 각종 사찰행사전문반 • 전통예능 (범음범패 : 삼신이운, 진언성, 복청게, 원강도량, 운심게, 오공양소리, 진령게, 사다라니, 욕건이, 실개수공발보리, 칭양성호, 관욕게, 합장게, 영산작법소리 등 30여곡)	수	2시	
작법무반	작법무(바라, 나비) 불교무용단 환영	수	3시30분~	
국악기반	태평소, 대금		5시~	

■ 개강일시 : 2021년 9월 8일(수) 오후 2시
■ 교육장소 : 부산광역시 사상구 백양대로950번 나길 80-42 (사)부산영산재보존회 영남불교문화예술대학
■ 접수 연락처(교학처) : 051-327-5095, 010-2314-1279 010-3156-2211
※ 성적우수한자 무형문화재 전수장학생 우선 추천 (장학생 선발시 장학금 매달 25만원 지급)

영남불교예술대학

구암스님 범음집



영남법음범패 부산무형문화재 제9호
영산재 보유자이셨던 구암스님의 염불소리를
배우기 쉽게 습득 할 수 있도록
음률 높낮이대로 채보하여
도움이 되었으면 하면서
악보화 하였습니다…

경남 밀양시 초동면 덕산 2길 32-81 영원사
문의전화 010-3156-2211

天地大學經

눈밝은 자는 보고, 귀 열린 자는 듣고 인연자는 찾을 것이어라! 혼란과 병란 그리고 비리와 겁액으로 벼랑 끝에 몰린 혼돈 세상을 구현하는 21세기 신세계 메시지 「미륵님의 말씀,진리」를 신인류, 새시대의 구도자들에게 「천지대학경」을 밝히는 바이다. 정진하시옵사 대각 성도 하시옵길 비옵나이다.

- 金山 드림



성의금(671쪽) : 50,000원

● 농협 : 209-02-679386 김남식 ● 전화 : 010-2762-8235 道政院

정찬주 역사대하소설 **아쇼까대왕** 33



▶ 34회 예고

아쇼까 일행은 베디샤나가르로 순행을 떠난다. 그런데 아쇼까는 그곳을 조망할 수 있는 곳으로 먼저 가자고 한다. 산치 동산에 오른 아쇼까는 그곳의 절에서 담마팔 승려와 어머니를 위해 기도하러 온 베디샤데비를 만난다.

아쇼까, '베디샤나가르' 첫 순행지로…

아쇼까는 빈두사라왕에게 보고한 대로 순행을 계획했다. 순행이란 수도를 떠나 지방을 돌면서 지방주민들을 만나는 일종의 민심탐방 통치였다. 순행할 때는 사전답사의 순서가 있었다. 비서실장격인 관리와 호위대장이 먼저 현장을 확인한 뒤 지방을 결정했다. 사전에 답사한 여러 지방의 현황을 관리가 보고하면 아쇼까는 어느 한 지방을 지목해서 순행에 나설 작정이었다. 순행할 지방이 사전에 발설되는 누설을 방지하기 위해 경비대장은 호위대장에게 입단속을 철저하게 시켰다.

호위하는 군사는 최소화했다. 전투코끼리부대는 성에 남겨 두고 기마부대도 일부만 거느리고 떠날 계획이었다. 선봉대장이 길을 안내하는 향도라면 호위대장은 아쇼까가 탄 코끼리 앞뒤에서 기마부대를 지휘할 터였다. 아쇼까가 탄 코끼리 등에는 커다란 일산이 펴져 있기 때문에 어디서든 부왕의 권위를 드러낼 것이었다.

마침내 건기가 시작되기 전이었다. 비서실장격인 관리와 호위대장이 답사한 지방들을 아쇼까에게 보고했다. 아쇼까는 웃자인에서 가까운 도시에서 먼 곳의 도시 현황을 들었다. 먼 곳이라면 수나빠란따와 말와, 꾸루라가라 등이었고 가까운 도시라면 베디샤, 베디샤나가르, 산치였다. 아쇼까가 호위대장에게 말했다.

"대장은 어느 곳부터 가는 것이 좋겠는가?"

"말와는 순행하시기에 좋습니다. 벌써 선선해지고 있습니다."

"그대는 어디가 좋은가?"

아쇼까가 비서실장격인 관리에게도 물었다.

"첫 번째 순행은 먼 지방보다 가까운 산치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대의 의견을 따르겠소. 이번 순행은 하룻밤 정도 머물고 오는 산치로 가겠소."

"산치 부근에 작은 마을 베디샤나가르가 있습니다. 사끼야족이 살고 있습니다."

그제야 아쇼까는 베디샤데바의 농원을 떠올렸다. 베디샤데바가 궁중연회 중에 언제라도 자신의 농원으로 초대하고 싶다고 정중하게 말했던 것이다. 아쇼까는 초대를 먼저 받았으니 베디샤데바의 농원을 들르는 것은 민폐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순행길에 나설 호위부대는 최소화했지요?"

"부왕님 지시대로 이미 작지만 강한 호위부대를 선발해 훈련을 시켜놓았습니다."

"호위대장과 잘 의논해서 군사를 운용하시오."

선봉대장은 빠딸리뿌뜨라에서 온 아쇼까의 복심이었고, 호위대장은 웃자인 출신으로 아반띠국의 지리에 훤한 인물이었다. 아쇼까에게는 두 사람 모두 필요한 장수들이었다. 그래도 선임은 두말 할 것도 없이 선봉대장이었다. 웃자인에 있는 어느 부대장도 선봉대장의 명을 거역할 사람은 없었다. 선봉대장은 아쇼까의 그림자 같은 분신이었다. 선봉대장이 말했다.

"경비대장은 웃자인에 남아 성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하오. 경비대장까지 모두 나서서 성을 비울 수는 없소."

"그런데 부왕님, 건의가 하나 있습니다."

"무엇이오?"

"소장이 부왕님께서 순행하실 지방을 정찰하고 돌아오겠습니다."

"호위대장이 먼저 다녀왔지만 안 될 것도 없소."

"순행도 군사적인 전략이 필요하기에 드린 말씀입니다."

아쇼까는 선봉대장이 평소의 용맹함에다 이제 치밀함까지 갖추었다고 생각했다. 순행할 때 평지나 강이 있을 터인즉, 평지의 행군과 강의 도하 작전을 예상하는 것은 군사적인 전략이나 다름없었다. 만의 하나, 적의 기습을 대비해 두어야 하는 것도 전술적인 방어책이었다.

선봉대장의 제안에 따라 아쇼까의 순행은 며칠 동안 지연됐다. 그 사이에 베디샤데바가 경비대장을 통해 왕궁으로 들어왔다. 호위대장이 베디샤나가르를 정찰하고 갔다는 사실을 베디샤데바에게 알려준 사람은 베디샤나가르 농원 총책임자인 집사 타리쉬였다. 호위대장은 타리쉬의 외사촌 동생이어서 자연스럽게 만나 아쇼까의 순행을 이야기했고, 타리쉬가 베디샤까지 달려와 베디샤데바에게 보고했던 것이다.

다행히 아쇼까는 베디샤데바의 면담을 허락했다. 아쇼까는 그날 궁중연회가 만족스러웠으므로 베디샤데바를 반갑게 맞이했다.

"데바 수장 덕분에 웃자인 전통음식을 맛보았소."

"부왕님이시여, 사실은 제 딸이 만든 음식이었습니다."

"그래요? 또 다시 맛볼 수 있기를 바라오."

"기회가 또 온다면 제 딸 데비로서는 더 없는 영광일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나를 찾아온 이유는 무엇이오?"

"부왕님께서 베디샤나가르에 오신다는 소식을 듣고 왔습니다."

"소문이 벌써 났소?"

"예, 소문을 들었습니다."

"사실이오."

베디샤데바는 감격한 나머지 두 손을 모아 합장하며 말했다.

"궁중연회가 끝나갈 무렵 조급한 마음으로 다가가 부왕님을 초대했지만 이처럼 빨리 오실 줄은 몰랐습니다. 사끼야족이 사는 저희 베디샤나가르 마을로서는 가장 기쁜 날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아쇼까는 정색을 하며 말했다.

"순행은 예고 없이 가서 민심을 듣는 것이 목적이오. 혹시라도 데바 수장께서 나를 위해 환영준비라도 한다면 나는 베디샤나가르도, 산치도 가지 않을 것이오. 그러니 아무 일이 없기를 바라오."

"부왕님이시여, 명대로 하겠습니다."

베디샤데바는 아쇼까의 날카로운 눈매에 등골이 오싹했다. 궁중연회에서 보았던 친절한 모습과 달리 아쇼까의 말투는 냉혹하기조차 했다. 베디샤데바는 순간적으로 아쇼까에 대한 인상이 바뀌었다. 아쇼까의 눈매는 독수리눈처럼 사나웠고, 말투는 얼음같이 차가운 데가 있었다. 베디샤데바는 왕궁을 나오면서 "어쩌면 저 모습이 부왕의 본래 모습일지 몰라." 하고 중얼거렸다. 서둘러 저택으로 돌아온 베디샤데바는 딸 데비를 불렀다.

"마차를 내줄 테니 너는 지금 베디샤나가르로 가거라. 네 어머니를 잘 돌보고 있거라. 가서 있으면 너도 알게 될 것이다."

"어머니께서 많이 편찮으신가요? 아버지께서는 언제 오시나요?"

"어머니는 조금씩 회복 중이다. 나는 내일 상인회의를 마치고 갈 것이다."

베디샤데바는 딸 데비가 마차를 타고 동문으로 나가는 것까지 지켜보았다. 베디샤데바는 안절부절못했다. 베디샤나가르 일대가 자신의 농원이기 때문에 아쇼까가 분명 들를 텐데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아쇼까가 냉정한 얼굴로 베디샤나가르 순행을 비밀에 부쳐달라고 엄명했기 때문이었다. 베디샤데바는 궁중회의 때 공연히 초대를 했나 싶어 후회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쇼까가 베디샤나가르를 순행한다고 하니 지금이라도 상인회의를 취소한 뒤, 말을 타고 가서 하인들을 시켜 농원 저택과 정원을 단장할까 하는 생각도 들었다. 그러나 베디샤데바는 고개를 흔들었다.

'상인회의를 취소하는 건 말도 안 되지. 상도의에 벗어나는 일이지.'

상인수장들은 이미 웃자인에 도착하여 묵고 있었다. 이번에 모이는 상인수장들은 아반띠국뿐만 아니라 꼬삼비, 바라나시, 빠딸리뿌뜨라, 짬빠에서 온 사람들이었다.



갑자기 마차를 탄 베디샤데비는 어머니 데바 부인이 요양 중인 농원에 도착했다. 하인들이 달려와 베디샤데비에게 인사했다. 양떼와 소떼들이 풀을 뜯는 농원은 언제 오든 베디샤데비를 포근하게 감싸주었다. 데비 자신이 태어난 곳이기 때문에 그런 감정이 드는지도 몰랐다. 사람들이 바글바글한 웃자인이나 베디샤와는 달랐다. 베디샤데비는 농원에 발을 딛는 순간 마음이 자신도 모르게 평화로워졌다. 베디샤데비가 가방을 놓고 두 손을 뻗으며 소리쳤다.

"아, 신선한 공기. 내가 좋아하는 뻡빨라나무들!"

지평선까지 펼쳐진 농원은 말을 타고 달려야 할 만큼 드넓었다. 구릉에는 듬성듬성 뻡빨라나무들이 서 있었다. 뻡빨라나무는 양치기 하인들이 낮잠을 자는 곳이기도 했다. 타리쉬가 다가와 베디샤데비의 가방을 들었다.

"데비님, 데바 수장님 마차를 타고 오셨군요."

"아버지께서 지금 바로 떠나 어머니를 돌보라고 해서 왔어요."

타리쉬는 눈치가 빨랐다. 데비는 아직 아쇼까의 순행을 모르고 있구나, 하고 판단했다. 호위대장이 외사촌 형인 자신을 만났을 때 누구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단단히 부탁했던 것이다. 아쇼까의 순행을 아는 사람은 베디샤데바와 자신뿐이었다. 타리쉬는 자신의 주인인 베디샤데바에게만은 알리지 않을 수 없었다. 타리쉬는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는 호위대장의 말까지 베디샤데바에게 전했던 것이다. 그러니 데비가 베디샤나가르에 내려온 이유를 모르는 것은 당연했다.

베디샤데비는 농원 정문을 들어서면서 깜짝 놀랐다. 하인들이 정원의 나무와 풀을 다듬고, 화사하게 꽃을 피우고 있는 대형 화분들을 저택으로 들어가는 길 양편으로 옮기고들 있었다. 데비가 타리쉬에게 물었다.

"타리쉬, 무슨 일이 있어요?"

"일 년에 한 번씩 하는 일입니다."

"귀한 손님을 맞으려고 대청소를 하는 것 같아요."

"물론입죠. 데비님이 오셨잖습니까?"

"호호호. 칙칙했던 집이 밝아졌어요. 어머니께서도 기분이 좋으시겠어요."

저택 안팎도 하인들이 달라붙어 벽돌에 낀 먼지를 물걸레로 닦아내고 있었다. 하인들이 베디샤데비를 보자, 물걸레질을 멈추고 고개를 숙였다. 데비는 바로 어머니가 누워 있는 방으로 가서 인사했다.

"어머니 저 왔어요. 이번에는 어머니와 오랫동안 함께 지낼래요."

"오, 내 딸 데비가 왔구나."

데바 부인이 침대에서 일어나 앉은 채로 희미하게 웃었다.

"건강은 어떠셔요?"

"많이 좋아졌단다. 아침에는 정원을 산책도 하지."

"이제 일어나 산치에 있는 절에도 가실 것 같아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니? 저 창문을 열어다오."

베디샤데비가 커튼을 젖히고 창문을 열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와 잠시 눈이 부셨다. 데바 부인이 보려고 한 것은 구릉 끝에 있는 산치의 볼록한 동산이었다. 동산에는 작은 건물이 하나 보일락 말락 했다. 베디샤데바가 가족의 행운을 빌기 위해 지은 절이었다.

"스님들이 기도해주는 덕분이란다. 내가 이만큼 회복한 것은."

"저도 가서 기도할게요. 빨리 일어나셔야 해요."

"네가 기도해주겠다니 고맙구나."

"오늘은 쉬고 내일부터 당장 기도할 거예요."

베디샤데비는 어머니의 손을 잡고 약속했다. 어머니를 돌보라고 한 것은 아버지 데바의 당부이기도 했다. 베디샤데비는 자신이 어머니를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기도밖에 없다고 생각했다.

"지금은 스님이 몇 분이나 계셔요?"

"그대로일 거다."

"열 분?"

"응."

한 달에 한 번씩 큰 공양을 올리기 때문에 농원의 하인들도 다 알고 있었다. 타리쉬는 때가 되면 반드시 음식을 가득 실은 수레를 산치 동산의 절에 보냈던 것이다. 〈계속〉

"당신도 날씬해질 수 있다"

KBS 과학카페



이경옥 교수의 체질개선 해독 다이어트

박현숙 원장 출연(2010.2.6)



일상생활하며, 공복감없이 2주에 5-8kg 감량

여자가 살빼기 더 힘든 이유

여성이 살빼기 더 힘든 것은 임신과 출산이라는 여성 본래의 역할로 남성보다 2배 이상의 체지방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대사기능 장애 등으로 노폐물이 쌓여 임신전의 체중으로 복귀하지 않는 여성이 상당수이다. 또한 생리기간 동안 체내에 축적된 수분이 부종으로 바뀌어 체중이 증가하여 합병증과 암발생 등 고 위험을 수반하게 된다.

체내 노폐물이 빠지며 건강체질로 바뀌는 효소 절식법

뚱뚱하다는 것은 단지 체내에 보기 싫은 지방만이 쌓인 것이 아니다. 오염된 환경에서 성장한 우리의 몸 속에는 노폐물이 장 속에 이끼처럼 숙변으로 쌓이고 간에 지방이 엉키고 혈관에 쌓여 혈액이 탁해지고 막히는 현상이 발생한다. 살빼는 약을 먹거나 단을 하여도 살은 빠진다. 그러나 무엇이 빠지느냐가 문제다. 체중은 줄이되 노폐물을 제거하고 줄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손발이 저리고 숨이 답답하고 피는 더욱 탁해져 혈액순환 장애의 증상이 있다.

살아 숨쉬는 천연 비타민과 미네랄, 수억의 효소들을 인체에 공급하면 모든 장기들이 휴식을 취하면서 수십년간 쌓인독성 노폐물을 청소하고 지방을 분해하는 내과적 수술로써 체중 감량이 된다는 26년 임상실험!

초록원웰빙 02)523-0708 김영숙 010-7384-1708

인터넷 검색창에서 초록원웰빙 을 치세요.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 죽염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 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환인동 요가마을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 9번 구운 민속죽염 ◈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 2번 구운 민속죽염 ◈

◆ 음식조리용 · 양치용 · 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회원우대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김호귀 교수의 한국선 톺아보기 ⑰ 선리의 탐구와 전개



▶ 한줄 요약
고려시대 선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선리의 천착은 중국 선종오가의 선리가 고려에서도 수용 · 전개됐음을 알수 있다.

中선종오가, 고려 선법에 수용·전개

중국선종에서 출현한 선종오가의 선리가 고려시대 선법에 수용됨으로써 그 변용과 함께 새롭게 전개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에 대한 구체적인 모습은 고려시대 선 문헌을 중심으로 다양하게 드러나 있다.

선종오가로서 가장 먼저 수용된 위앙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원상법(圓相法)과 관련된 법어가 정리되어 저술로 출현하였다. 곧 지겸(志謙, 1145~1229)이 1219년에 집성한 〈종문원상집(宗門圓相集)〉이 그것이다. 원상과 관련된 기연어구에 대한 법어를 선어록에서 발췌한 것인데, 남양 혜충(南陽慧忠, ?~775)과 관련된 것으로부터 목암 선경(睦庵善卿, 12세기 전후)에 이르기까지 46명 선사들의 법어 170칙으로 이루어져 있다. 거기에는 직접 원상의 그림이 수록된 것을 비롯하여 실제로 원상은 보이지 않을지라도 법어의 내용이 원상과 관련된 것을 수록하고 있다. 특별히 종파나 지역에 상관없이 전반에 걸쳐서 채록하였는데, 특히 신라의 요오 순지(了悟順之, 807~883) 화상이 제시한 원상법이 중요하게 취급되고 있는 점은 주목된다. 중국의 선종사에서는 위앙종풍이 비교적 크게 전개되지 못했던 점을 감안한다면 지겸의 〈종문원상집〉은 고려에서 위앙종풍의 선리가 재발견되어 전개됨으로써 중국 위앙종풍의 선리가 고려시대에는 지속적으로 수용되고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운문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진정국사(眞靜國師) 천책(天頙, 1206~?)이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선문강요집(禪門綱要集)〉의 내용을 통해서 알 수가 있다. 〈선문강요집〉은 대부분 임제종지에 대하여 취급하고 있지만, 그 후반부에서 청산과 구름에 대한 '산운편(山雲篇)' 및 운문 문언(雲門文偃, 864~949)의 '운문삼구(雲門三句)'에 대하여 그 선리를 논의하고 있다. 먼저 '산운편'에서는 백운자(白雲子)가 청산수(靑山叟)에게 질문하고 청산수가 백운자의 질문에 답변하는 형식으로 되어 있다. 백운자가 질문한 운문삼구에 대하여 청산수는, 운문삼구야말로 첫째는 체구(體句)이고, 둘째는 용구(用句)이며, 셋째는 체용구(體用句)라고 답한다. 또한 운문의 제자인 원명연밀(圓明緣密, 德山緣密)은 삼구 가운데 목기수량(目機銖兩)과 불섭춘연(不涉春緣)을 묶어서 수파축랑(隨波逐浪)과 절단중류(絕斷衆流)로 삼은 것이지 일찍이 그것을 변역(變易)시킨 것은 아니며, 또한 절단중류를 가지고 그것을 함개건곤(函盖乾坤) 앞에다 내놓고 천중(天中)과 일촉(一鏃) 곧 처음과 나중의 두 구는 임시로 붙인 것이 아니라고 답변한다. 나아가서 원명 연밀의 제자인 보안도(普眼道)는 그 삼구를 게송으로 말하여 처음은 함개건곤이고 중간은 절단중류이며 나중은 수파축랑의 순서로 나열했다고 말한다.

다음으로 '운문삼구'에 대하여, 운문에게는 비록 이 운문삼구라는 말이 있지만 일찍이 삼구라는 명칭을 내세운 적이 없었는데, 그 적자인 원명 연밀이 처음으로 운문삼구라는 명칭을 내세워 첫째는 절단중류이고, 둘째는 수파축랑이며, 셋째는 함개건곤이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다시 덕산의 법사인 보안도 선사가 삼구라는 용어로 인하여 각각에 따라서 게송을 붙이고, 또한 별치일구(別置一句)를 내세웠다고 말한다. 나아가서 일촉파삼관(一鏃破三關)에도 세 가지 뜻이 있다고 다음과 같이 말한다.

첫째는 반조의 지혜로써 일촉(一鏃)을 삼는 경우이다. 만약 진실에 근거하여 반조할 때라면 삼(三)이니 일(一)이니 하는 견해를 짓지 않기 때문에 설할 때는 삼이라는 명자(名字)가 있지만, 반조할 때는 삼이니 일이니 하는 견해를 짓지 않는다. 둘째는 삼구중일구(三句中一句)를 살펴보면 곧 매 구마다 정해진 차제가 없어서 하나를 들면 전체가 수렴되는 경우이다. 그것은 모든 대대(待對)를 단절하였기 때문이다. 셋째는 별치일구를 살펴보면 곧 삼관(三關)의 시설조차도 자연히 소멸된다.

이와 같은 운문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이후로 그다지 주목되지 못하였다. 다만 조선후기에 선리논쟁의 과정에서 백파긍선(白坡亙璇, 1767~1852)의 〈선문수경(禪文手鏡)〉에서 다시 언급되고 있다.

조동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동산 양개(洞山良价, 807~869)로부터 출현한 조동오위(曹洞五位)의 선리가 주목된다. 조동오위는 조동종의 종지 가운데 핵심적인 내용으로 선종의 수증관에 대하여 납자가 수행과 교화하는 행위에 대하여 상하의 단계적인 측면이 아니라 수행과 교화의 입장이 상호 작용하는 차원에서 다섯 가지 측면으로 나누고 거기에 철학적인 이치를 가미하여 전개한 선리이다. 이후로 선종에서 점차 널리 보급됨으로써 조동종뿐만 아니라 임제종에서도 원용하여 크게 전개되었다. 그 결과 본래의 정통적인 조동오위로부터 변형된 오위가 출현하여 그들에 대한 이해와 해석



법안종 개산조 법안 문익 선사. 사진제공=정운 스님

위앙종풍 선리 고려 지속적 수용

운문종 백파 〈선문수경〉서 언급

조동오위, 조동종종지 핵심 내용

임제종 선리 '임제삼구' 중심전개

과 응용의 측면 등 여러 가지 점에서 논란이 불거졌다. 오위 가운데 제일위 정중편(正中偏)은 순수한 개인의 수행 측면으로부터 이타의 교화 행위로 향하는 것을 상징한다. 제이위 편중정(偏中正)은 정중편과 반대로 교화 행위로부터 자리의 수행 측면으로 향하는 것을 상징한다. 제삼위 정중래(正中來)는 순수한 자리의 수행으로 일관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제사위 편중지(偏中至)는 제삼위와 반대로 온전히 이타의 교화행에 전념하는 모습을 상징한다. 제오위 겸중도(兼中倒)는 자리의 수행과 이타의 교화를 아울러 실천하는 측면으로 수행과 교화의 융합적인 측면을 상징한다. 이것이 소위 정통의 조동오위이다. 정통의 조동오위에서는 이들 오위의 구조에 대하여 제일과 제이를 대구(對句)로 삼고, 제삼과 제사를 대구로 삼으며, 제일과 제이는 다시 제삼과 제사와 대구를 이루는 것으로 해석하고, 마지막의 제오의 겸중도는 이들 전체를 포함하여 자리의 수행과 이타의 교화를 자유자재하게 운용한다는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까닭에 오위의 중심은 제오 겸중도에 맞추어져 있다.

그러나 일부의 조동종 및 대부분의 임제종에서는 조동오위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고 변형을 가하여 나름대로 의미를 부여하였다. 가장 일반적인 경우로는 제사위 편중지의 용어를 겸중지(兼中至)로 바꾸고, 전체적인 구조를 제일과 제이가 상대를 이루고, 제사와 제오가 상대를 이루며, 다시 제일과 제이는 제사와 제오와 대구를 이루고, 제삼의 정중래가 그 중심에 위치한 까닭에 정중래가 오위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써 정통의 조동오위를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논쟁도 끊이지 않았다. 이들 논쟁이 고려에도 전승되었다. 이에 대하여 가지산문의 보각 일연(普覺一然, 1206~1289)은 1260년에 자신이 서문을 붙이고, 몇몇 조동선자의 견해 및 일연 자신의 주해를 가미하여 〈중편조동오위(重編曹洞五位)〉를 저술함으로써 그 논란에 대하여 정통의 조동오위를 옹호하였다. 거기에서 일연은 제삼위 정중래중심의 주장을 비판하고 제오위 겸중도중심의 주장을 정통으로 내세움으로써 조동종의 선리에 대한 이해를 재확인하였다. 나아가서 일연의 입장은 조동종지를 중심의 내용으로 하고 있는 오위사상을 확립함으로써 이후로 일본 선종의 조동오위 연구에도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중편조동오위〉에서 보여준 일연의 견해는 조동종지에 대한 올바른 이해뿐만 아니라 고려선법에서 조동종 선리의 위상에 대하여 짐작해볼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해주고 있다.

임제종의 선리에 대해서는 위에서 언급했던 〈선문강요집〉에서 임제삼구를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것으로부터 본격적으로 출현한다. 청풍장로와 호월상인과 벽암노숙의 세 사람을 상징하는 '삼성장(三聖章)'에서는 삼구와 삼현에 대한 선리를 논의하고, 호월선객과 청풍법사의 두 사람을 상징하는 '이현화(二賢話)'에서는 앞의 '삼성장'의 연장으로서 삼구(三句)와 삼현(三玄)과 삼요(三要)에 대한 의미와 그 관계에 대하여 선리를 논의하며, 다음의 '제이편(第二篇)'은 '이현화'의 부차적인 설명에 해당하고, 다음으로 자신을 우부(愚夫)라고 자칭하는 '일우설(一愚說)'에서는 임제삼구를 비롯하여 삼구와 사조용(四照用)의 연관 등에 대하여 일우 자신의 견해를 피력하고 있다. 이로써 삼성과 이현과 일우로 이어지는 이들 관계는 셋과 둘과 하나로 통하는 관계이다. 이를테면 '삼성장'에서는 청풍장로의 견해로는 구(句)와 현(玄과) 요(要)가 동일한 차원이 아니라는 말이다. 그러나 이하의 '이현화'에서 청풍법사의 견해로는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같고 다름이 없기도 하다고 말하고, '일우설'에서 일우의 견해로는 구와 현과 요가 명연(冥然)하여 차별이 없다고 말한다. 이와 같은 논점의 차이는 '삼성장'의 설명이 '이현화' 및 '일우설'의 견해가 다르다는 것인데, 결국 그 차이점이란 '삼성장'의 경우에는 삼자에 대하여 교화를 위한 구조적인 관계로 파악한 것이고, '이현화' 및 '일우설'의 경우에는 삼자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방편으로 제시된 기관(機關)의 관계로 파악한 까닭에 연유한 것일 뿐이다. 이에 '이현화'에서 청풍법사는 구와 현과 요가 같기도 하고 다르기도 하며 같고 다름이 없기도 하다고 말한다. 그러므로 '삼성장'과 '이현화' 및 '일우설'의 견해는 임제삼구에 대한 이해의 접근방식에서 반드시 감안하지 않으면 안 되는 점을 노출시켜주고 있다.

법안종의 선리는 중국선종에서부터 특별한 하나로 전승되기보다는 다양하게 융합적인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래서 법안종은 선종을 정체성으로 내세우면서도 화엄(華嚴)의 교학 측면을 다대하게 수용하였는가 하면, 유식(唯識)과 정토(淨土)와 천태(天台)까지도 크게 수용하였으며, 당시의 시대조류에 부응하여 정치와 결부하기도 하였다. 그 결과 법안종은 일시적으로 크게 발전하였지만 그 정체성이 애매모호하게 흘러감으로써 지지부진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다양한 분야의 수용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범위에 걸쳐 발전을 구가함으로써 고려 초기에는 일시적으로나마 법안종풍이 풍미하기도 하였다. 그 가운데 특히 〈경덕전등록(景德傳燈錄)〉을 출현시킨 것은 고려에서도 크게 주목되어 〈전등록(傳燈錄)〉에 대한 이해를 불러일으켰다. 그 결과 백운 경한(白雲景閑, 1298-1374)의 〈백운화상초록불조직지심체요절(白雲和尙抄錄佛祖直指心體要節)〉은 〈경덕전등록〉을 절요한 성격으로 고려 선종에서 〈전등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켜주었다는 점에서 의의를 부여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한국의 선자들에 대한 보입(補入)이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는 점은 전등의 인식에 대한 한계성을 노출시켜주고 있다. 이후 조선 초기에 각훈의 〈해동고승전(海東高僧傳)〉을 비롯하여 숭묵(崇默)의 〈통록촬요(通錄撮要)〉 등이 출현하게 된 점은 그 고무적인 결과였다.

이처럼 고려시대 선법에서 찾아볼 수 있는 다양한 선리의 천착은 중국의 선종오가 전체에 걸친 선리의 이해가 고려에서도 수용되고 나름대로 전개됨으로써 적어도 선리에 있어서는 어느 특정한 종파에 대한 선리를 초월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할 수가 있다. 〈동국대 HK교수〉

역삼 Wedding

불자님의 소중한 인연
아름답게 이루어 드립니다

법조계·의사·약사·재력가·사업가·공무원·교수·회사원 등


김계숙 원장

27년 전통 · 늦은 초혼 전문
책임 있는 컨설팅 해드립니다.

◈1:1 집중관리 ◈성사위주
◈신뢰·정확한 정보 ◈성실상담

대표 02-555-5528 H·P 010-5207-9045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151 (역삼동 642-19) 역삼하이츠빌딩 15층 11호 (2호선 역삼역 5번 출구 첫 번째 건물)

靈영通통 비구·비구니 스님을 모십니다

▶ 모집대상 : ① 특별시·광역시 각 도별 종무원장
② 미륵보살(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역할 각 1명
※ 참고사항 : 모집②번에 속하는 역할은 소정의 보증금이 있습니다.

▶ 모집자격 : ① 미륵부처님을 주불로 모셨거나 모실 분.
② 개인 사찰이나 공찰이지만 장기적으로 운영가능 하신 분.
(미륵보살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 종무원장에게 드리는 혜택 : 현대의술로도 안 되는 간질, 정신질환, 여러가지 고질병 가정의 우환, 질고, 병고, 액란 완치법(상담결과에 따라 암치료도 가능)을 연합, 사·암으로도 가능합니다.

▶ 모집지역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기도, 강원도, 강화도, 충청남·북도, 전라남·북도, 경상남·북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제주, 거제도, 울릉도 등
19개소 종무원장님을 초빙합니다.


돌할머니 소원 비는 돌

자세한 내용은 아래로 연락 바랍니다.
문의 : 010-7321-0404

대한불교문수종 종정 지광 합장
총무원장 동진

대인사 경남 거창군 거창읍 노혜2길 162

강소연 교수의 고려불화, 마이크로 세계 ⑰ 비로자나삼천불도 ②



▶ 한줄 요약
일본 고베 박물관에 기탁 · 소장 중인 〈비로자나삼천불도〉는 법신불 비로자나불을 중심으로 8000구의 화불이 도상에 펼쳐진다. 티끌같은 화불들은 부처가 된 우리의 불성을 상징한다. 이는 대승불교의 목표인 중생 구제와 맞닿아 있다.

대승불교 핵심 시각적 구현…"한국선 국보급"

'광명편조(光明遍照)!' 이 말을 불자라면 무수하게 들어보았을 것이다. 대표적 대승경전인 〈화엄경〉 〈법화경〉 〈아미타경〉 등에 공통으로 계속 나오는 주요 용어. 이는 광명, 즉 '깨달음의 빛이 세상을 두루 비추고 있다' 는 뜻이다. 이것이 불교의 핵심 진리라는 것을 설파하고 있다. 그런데 과연 그러한가? 나의 안팎으로 이미 깨달음이 충만해 있는 것이 느껴지는가? 불성이 여여(如如)하게 충만한 것이 보이는가? 그것과 하나가 되어 보지 못하면, 알 수 없는 말이겠다.



그림①



그림②

그림①. '비로자나 시방화불' 〈비로자나삼천불도〉의 부분, 비단에 채색, 196×133cm, 고려후기 14세기 추정, 일본 고베 다나카家 소장. 고베시립박물과 기탁 보관.

그림②. 그림①의 부분, 티끌 수 만큼 많은 불성.

고베市 문화재 〈비로자나삼천불도〉
비로자나불 중심해 8000 화불 배치
티끌같은 화불, 우리의 불성 상징해
'자리이타' 대승불교 목표 화폭 담아

티끌 속의 한량없는 불성

우리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듣고 읽은 경전 문구들. "광명편조 시방세계(光明遍照 十方世界)" "일미진중함시방 일체진중역여시(一微塵中含十方 一切塵中亦如是)" "삼세제불의반야바라밀다고득아뇩다라삼먁삼보리(三世諸佛依般若波羅蜜多 故得阿耨多羅三藐三菩提)" "법신보편시방중 삼세여래일체동(法身普遍十方中 三世如來一體同)" 등. 모두 같은 맥락의 내용이다. 대승경전의 장황한 내용들은, 이 핵심 요지를 주구장창 조금씩 다른 표현으로 반복의 반복을 거듭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불성(佛性)은 삼라만상에 두루 편재한다"라는 대승불교의 핵심 진리를, 본 불화 〈비로자나삼천불도〉는 가감 없이 그림으로 나타내고 있다. 약 2m 남짓 커다란 화폭(현재 크기 세로 1m96cm, 가로1m33cm)의 한 가운데에는 비로자나불이 앉아있고, 나머지 공간에는 티끌 같은 화불(化佛)들은 어림잡아 8000구(현존 화폭은 가로 95구 · 세로 84열)에 달한다. 화면 윗부분 45cm 정도는 훼손되어 후대에 보수해서 덧붙인 모양새가 역력하다. 화엄경에 언급된 "비로자나 시방화불(毘盧遮那 十方化佛)"의 진리를 말 그대로 시각적으로 구현한 것이다.(그림①, ②)

'비로자나불' 은 '광명편조불' 이다. 산스크리트어 '비로자나(Vairocana)' 의 뜻을 직역하면 '광명편조' 가 된다. 주지하다시피, 비로자나불은 법신불이다. 근본불이다. 법신의 현존 방식을 그대로 표현하는 말이 '광명편조' 이다. 즉, '깨달음의 빛이 사실상 세상없는 곳 없이 두루 비추고 있다' 는 것이다. 깨달음의 빛, 반야지혜의 빛인 이 광명을 '대적광(大寂光)' 이라고도 한다. '대적광전(大寂光殿)' 이란 법당 이름을 사찰 곳곳에서 만났으리라. 대적광, '크나큰 적멸의 빛' 이 바로 법신이고 법신은 시방세계 삼천대천대천세계에 두루 편재한다는 의미이다. 우리는 이미 대적광의 '적멸보궁(寂滅寶宮)' 속에 있다는 말이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법계(法界)' 라고도 한다.

불교미술, 우리 '본 모습' 보여줘

우선 이러한 진리를 담은 불화가 주는 가르침을 먼저 짚고 가도록 하자. 모든 만물과 이 만물을 포용하고 있는 드넓은 허공은 안팎으로 이미 깨달아 있다는 것이다. 그러니 카르마(업)의 굴레에 갇혀 있지 말고, 나와 너 그리고 만물의 본성을 보라는 것이다. 자의식(또는 我相)의 감옥에서 벗어나면 모두가 하나인 줄 알게 되고, 모두가 하나이기에 서로에 대한 자비심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논리이다. 더 간단히 말하면, '우리는 하나이기에 조화롭게 살자' 이다.

대승불교에서 말하는 인간의 본질은 '무명(無明)' 이 아니라 '불성(佛性)' 이라는 것이다. 단지 윤회의 굴레에 갇혀 보지 못할 뿐. 그러니 '어서 수행해서 보라' 는 비전을 제시한다. 결국, 모든 불교미술은 우리의 '본 모습' 을 그림으로 나타내어 바로 우리 눈앞에 보여 주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진정한 본 모습을 알아보지 못한다.

日문화재 등록, 우리 유물 수두룩

비로자나불이 현존하는 방식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본 불화는 본래 일본 타나카 가문(田中家)에 내려온 소장품으로 수납 상자에는 묵서로 '萬佛畵 田中小左衛門所有寶' 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즉, 〈만불화(萬佛畵)〉로 불리며, 일본 전래 이래 타나카 가문의 가보로 대대로 전해 내려왔음을 알 수 있다. 1996년 고베시립박물관에 기탁되었고, 〈일만삼천불도(一萬三千佛圖)〉라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현재까지 보관 중이다. 그리고 1999년에는 고베시 유형문화재로 지정된 바 있다. 이렇게 일본의 유형문화재 또는 중요문화재로 지정돼 일본 문화재청의 관리 및 보호를 받고 있는 우리 유물은 수두룩하다.

대표적으로는 안견의 〈몽유도원도〉가 있다. 이는 일본 덴리대학(天理大學) 부속 도서관에 소장돼 있고 일본 중요문화재로 일찌감치 지정받았다. 또 우리가 익히 아는 초대형 고려불화, 가가미진자(鏡神社) 〈수월관음도〉 역시 일본 중요문화재로 지정되어 있다. 이외에도 작품이 소장된 일본 현지의 해당 시(市) 또는 현(縣)의 유형문화재로 등록된 작품들이 여기저기 수두룩하다. 본 불화는 일본 카마쿠라 시대 작품으로 분류되었다가, 2002년 가와노(川野) 학예관에 의해 고려불화 신출자료로 다시 소개되었다. 일본에 소장된 수천 점에 달하는 우리 유물은 이렇게 혹은 일본 것으로, 혹은 중국 것으로 분류되는 운명을 맞는다. 그래서 아직 미발굴 상태의 작품들이 부지기수이다. 고려불화라고 일본 문화재청 발간 목록집에 기록되어 있는 것만 믿고, 산 넘고 물 건너 찾아가면, 허탈하게도 중국 명나라 불화였던 경우가 허다했다. 또 반대로 중국 명나라 작품인데 한국 것으로 의심되는 것도 많았다.

본 불화는 우리나라에서 약탈 된 임진왜란 시점부터, 일본에 있으면서 에도시대에서부터 꾸준히 보수 받은 흔적이 확인된다.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불화의 보존 상태가 그리 좋지는 않았다. 화면 윗부분 약 45cm 폭은 크게 훼손되었기에 보수 처리하여 덧붙였다. 가로 18줄의 화불들을 본 폭과 비슷하게 그려서 붙였으나, 색감과 모양이 눈에 띄게 차이가 난다. 주존불의 천개와 보살의 일부 등에 조잡하게 보채(補彩)한 흔적이 발견되고, 여러 번 접어 이동되었는지 접혀진 선이 선명하다. 시대를 걸쳐 보존하려 애쓴 흔적들이 역력히 보이긴 했지만, 필자가 조사하는 도중에도 박락(바탕 비단 천과 그 위에 바른 물감이 분리되어 떨어지는 현상)이 심하게 진행되고 있었다. 그래서 일본 고베시립박물관의 학예사에게 "이 작품이 만약 한국에 있었더라면 여지없이 국보입니다. 일본 문화재청의 보존처리가 가능할까요"라고 간곡히 부탁했던 기억이 난다.

삼천대천세계의 가득한 불성

위에서 말한 인간의 본질은 '무명' 이 아니라 '불성' 이라는 진리는, 대승불교의 핵심인 여래장(如來藏) 사상과 직결된다. 여래장 사상이란 '모든 존재는 여래의 씨앗을 함장하고 있다' 라는 뜻이다. 그 어떤 존재이건, 부처가 될 수 있는 불성을 지녔다. "사람이 곧 부처다"라는 인불(人佛)사상의 근간이 되는 원리이다. 사실, 불교 공부를 하던 초기 시절, 대표적 대승경전들이 참 불친절하다는 생각을 한 적이 있다. "중생의 입장에서 설명한 것이 아니라, 무조건 법신의 입장에서 곧바로 설해놓았으니, 중생은 도통 알아들을 수 없지 않은가"라고. 그런데 깨달은 세계가 이러하다는 것을 중생에게 말해주는 것이 경전의 역할이므로, 사실 별도리가 없겠다. 법신의 모습이 장황하게 설해지고, 물론 그러한 법계로 가는 수행 방법도 설해져 있다.

단, 대승경전은 꿈이 크다. '부처' 가 되라는 큰 목표를 제시한다. 대승불교의 '대승(大乘)' 이라는 뜻 자체가 '큰 탈 것(mahayana)' 이라는 뜻으로 자신만의 해탈이 목표가 아니라 중생 구제를 목표로 한다는 이타적 또는 자비의 마음을 강조하는 데에서 비롯된 것이다.

대승불교에서 '제경(諸經)의 왕' 으로 꼽는 〈법화경〉의 핵심 내용은 "부처의 세상 출현의 이유가 모든 인간들이 부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일승(一乘)의 큰 도(大道)' 를 보이기 위함이고, 큰 도를 실천하면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다" 는 것이다. 본 불화는 부처가 된 모습의 실상을 우리 눈앞에 펼쳐 보여주고 있다.

〈중앙승가대 불교문화재학과 교수〉

청동불상 조성업체
대원불교미술원
대원불교미술원은 수십년 동안 전국 사찰에
불상을 조성해왔습니다.

그 성원에 조금이나마 보답하기 위하여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청동불, 개금, 탁자, 단청, 천불전, 특수불 등 일체를 혼을 담아 조성(제작)하여
저렴하고 합리적인 가격에 조성하고 있습니다.
또한, 저희 대원불교미술원에서는 법당 철거 및 정리 일체를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수거해 온 물건 및 퇴불은 파불없이 좋은 인연으로
어려운 스님들께 무료로 조성해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원장 임영달 올림.

경기도 포천시 내촌면 진목리 915-17
전화 031)532-3722, 533-3722 | H·P 010-7171-2636

정성을 다하는 대원불교미술원이 되겠습니다



박원자의 母情佛心 ⑰ 밀라레빠의 어머니



▶ 한줄 요약

티베트 불교의 위대한 수행자인 밀라레빠는 어릴 적부터 많은 고생을 했다. 아버지가 물려 준 재산을 친척들이 가로챘고, 이에 분노한 어머니는 아들에게 복수를 종용했다. 도술을 익힌 밀라레빠는 복수에 성공하지만, 모친은 과보를 받는다. 모든 게 헛됨을 안 밀라레빠는 고행을 통해 대자유인이 된다.

"원수 갚아달란 나를 용서하거라"



그림 · 박구원

티베트불교 대표 선지식 밀라레빠
친척에게 父유산 빼앗겨 빈털터리
분노한 어머니, 아들에 복수 종용
도술로 복수 성공… 母 과보 받아
밀라레빠, 모든게 헛됨 알고 고행

역사가들은 티베트 불교의 가장 위대한 수행자로 밀라레빠(1052~1135)를 꼽는 데 주저하지 않는다. 수행자들에게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구도의 원천이 되어주고 있는 위대한 수행자 밀라레빠. 그는 속세의 덧없는 것들에 대한 집착이 아닌 무욕이 최고의 깨달음임을 일찍이 깨달았던 수행자다. 역사상 가장 위대한 수행자였던 고타마붓다(부처님)를 포함한 역대 수행자들의 가르침을 인간이 행할 수 있는 극한의 방법으로 실천했고 그 결과를 구체적으로 입증한 수행자로 불린다. 적멸에 들면서 밀라레빠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

"인생은 짧고 죽음의 시간은 불확실하니 수행에 전념하라. 목숨을 대가로 지불하더라도 악행을 피하고 애써 공덕을 쌓으라. 간단히 말하면 요지는 이렇다. 스스로 부끄럽지 않도록 행동하고, 이 원칙을 굳게 지켜라. 그러면 경전의 내용과 일치하지 않더라도 가장 높은 부처들의 지시에 어긋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악행을 피하고 공덕을 쌓으라는 평범한 이 말이 밀라레빠가 수행자가 되는 전초전이 되지 않았을까 싶다. 그리고 거기에는 그의 어머니가 있다. 어머니로 인해 악행을 저질렀고 악행을 깊이 참회하며 수행했고 그로 인해 깨달음을 얻었던 밀라레빠, 이 위대한 수행자의 어머니는 그가 초인의 수행자가 되는데 어떠한 역할을 한 것일까?

깨달음은 고통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진리를 밀라레빠의 일생이 증명하고 있다. 밀라레빠의 뼈저린 고가 시작된 것은 아홉 살 때 맞은 아버지의 죽음으로부터다. 그의 아버지는 상업으로 많은 돈을 모은 사업가였는데 중병에 걸려 일찍 명을 달리하고 말았다.

죽기 전에 아버지는 가장 가까운 친척인 사촌형과 누나(밀라레빠에게는 당숙과 당고모) 등을 불러놓고 유언을 남기고 유언장을 작성하게 했다. 밀라레빠가 성인이 될 때까지 재산을 관리하다가 성인이 되면 되돌려주라는 내용이었다. 어머니가 있어도 가까운 친척에게 재산을 관리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당시 풍속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예나 지금이나 많은 재물 앞에서 평정심을 유지하기가 어려운가보다. 집안의 어른인 당숙과 당고모는 밀라레빠의 아버지가 돌아가자마자 집과 땅 등 재산은 물론 집안의 보석 등 재물이 될 만한 것들을 모두 빼앗아갔다. 지방 왕족 계열의 훌륭한 가문 출신으로 명석하고 지혜로웠던 어머니도 속수무책으로 당한 걸 보면 그들의 악행이 상상을 초월했던 것 같다. 아버지에게 '들어서 기쁜' 이라는 뜻의 '퇴빠가' 라는 이름을 받을 만큼 사랑을 듬뿍 받으며 성장했던 밀라레빠는 하루아침에 들에 나가 일하고 양모를 손질하며 실을 짜는 신세로 전락했다. 아름다운 장신구로 장식했던 어머니의 머릿결은 거칠어졌고 중노동으로 인해 손발이 쩍쩍 갈라졌다. 남편이 있을 때는 현모양처의 본보기였고 재기발랄하고 자비로운 여인이었으나 시간이 흐를수록 처량한 신세로 바뀌어갔던 것이다. 가끔 어머니가 '재산을 남에게 맡기고 자기 집 지키는 개가 된다더니 우리가 꼭 그렇구나' 라며 혼잣말을 하곤 했다.

그러나 어머니는 아들이 성장하기를 기다리며 열심히 일한 끝에 땅을 조금 마련했고 여유가 생기자 당숙과 당고모 등 이웃들을 초대해 음식을 대접하며 남편의 유언장을 환기시켰다. 밀라레빠가 15살이 되었을 때였다. 그러나 그들은 아버지가 남긴 재산은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 자기네 것을 빌려 쓴 것이라며, 이렇게라도 살아있는 것은 자기들 덕이라고 딱 잡아뗐다. 폭력을 휘두르기까지 했다. 나중에 이 때의 일을 두고 밀라레빠는 이렇게 회고했다.

"맘대로 해라. 설사 가져왔다 하더라도 돌려주지 않을 거야. 해볼 테면 무슨 짓이든 해봐. 덤비지 못하겠으면 저주라도 해! 그들은 이렇게 지독한 말을 내뱉고 나갔다. 그 후 나는 집을 떠나 라마승 교사의 가르침을 받기 시작했다."

이쯤 되면 아무리 성인군자라도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을 것이다. 어머니의 마음에 복수의 씨앗이 움트기 시작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엌에서 보리를 볶던 어머니는 아들의 노랫소리가 들려오는 것을 느꼈다. 밖에 나가보니 마을 축제에 다녀가던 아들이 술에 취한 채 노래를 부르면서 집 앞을 지나가고 있었다. 어머니는 더 이상 가족이 불행할 수 없는 상황에서 노래를 부르는 아들을 바라보며 통곡했다.

밀라레빠가 정신을 차리고 어머니가 원하는 것을 물었다. "오직 내가 바라는 것은 쇠사슬 갑옷을 입고 말 위에 높이 앉아 양쪽 등자에 저 원수들의 목을 매달고 가는 네 모습이다. 그러나 이것은 행하기 어렵고 위험이 따르니 바랄 수는 없다. 그러나 네가 흑마술을 배워 우리를 이렇게 비참하게 만든 네 당숙과 당고모를 죽이고, 아홉 세대 뒤까지 그 자손의 뿌리를 잘라버리길 원한다."

아들은 어머니의 청을 받아들였고 어머니는 땅을 절반이나 팔아서 흑마술을 배울 수 있는 비용을 마련해주었다. 집을 떠나는 아들에게 어머니는 네가 약속을 지키지 못하면 목숨을 끊어버릴 것이라고 예고했다. 어머니의 절규에 어린 아들의 마음이 거센 바람 앞의 갈대처럼 흔들렸다. 피바람이 예고되고 있었다. 밀라레빠의 회고다.

"멀어져가면서 어머니와 나는 눈길이 닿는 한 서로를 뒤돌아보았다. 돌아서 달려가 어머니를 한번 안고 싶었지만 거의 초인적인 노력으로 그걸 억눌렀다. 그런데 그날 눈물을 흘리며 돌아서는 어머니를 본 것이 마지막일 거라는 예감이 들었다. 그 예감은 적중했다."

밀라레빠는 수소문 끝에 흑마술사를 찾아 14일 동안 그의 지도를 받고 흑마술을 익힌 뒤 어머니의 청을 이루어드렸다. 당숙의 맏아들 결혼식 날에 신랑과 신부를 비롯해서 35명이 죽었다. 암말 가운데 한 마리가 엄청난 힘으로 집 한 가운데의 기둥을 들이받으면서 집 전체가 굉음과 함께 무너져 내린 것이었다.

그러나 살아남은 당숙과 당고모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다. 밀라레빠가 있는 곳을 찾아내어 죽이려는 계획을 세웠다. 어머니가 낌새를 눈치 채고 아들에게 편지를 보냈다.

"네 흑마술 능력으로 인해 내 소원을 이루었다. 그런데 이번 일로 사람들이 화가 나서 너를 먼저 죽이고 나와 네 동생을 해치려고 하니 이번에는 네가 무서운 우박폭풍을 좀 일으켜다오."

7일 만에 우박폭풍 흑마술을 익힌 밀라레빠가 동료 한 사람과 고향을 찾았다. 우박폭풍 흑마술을 실행하는 데 필요한 장비들을 골짜기 위해 설치하고 주문을 외우기 시작하자 우박이 언덕배기의 깊은 골짜기들을 휩쓸었다. 농사를 망친 마을 사람들은 비탄에 젖어 울부짖었고, 동굴에 들어가 몸을 피하던 밀라레빠의 귀에 이런 소리가 들려왔다.

"퇴빠가란 놈은 어떤 놈들보다도 더 지독한 재앙을 만들어내는군. 우리 손에 걸리기만 하면 박살을 내버릴 거야."

위험을 느낀 밀라레빠는 어머니를 만나보지 못한 채 흑마술 스승에게로 돌아갔다. 시간이 흐르면서 밀라레빠는 마법으로 많은 사람을 죽이고 우박폭풍으로 일으킨 죄를 깊이 참회했다. 올바른 가르침을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여 밤이면 잠이 오지 않았다. 그리고 그의 참 스승이 된 마르빠를 찾아가게 되면서 본격적인 수행을 시작한다. 그의 스승 마르빠는 최고의 덕망을 지닌 번역가이자 밀교의 초능력을 획득한 사람으로 삼계(三界)에서 아무도 당할 자가 없는 수행자로 이름이 나있었다. 스승은 제자의 업을 정화시키기 위해 혹독한 훈련을 시켰다. 그로부터 8년 뒤 밀라레빠는 고향을 찾게 된다. 어머니는 이미 8년 전 자신이 집을 떠나올 때 이미 세상을 떠났고 누이동생은 집을 떠나 어디선가 구걸을 하며 살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밀라레빠는 절망했다. 자신의 옛집은 폐허가 되어있었고 마당가 잡초더미에서 어머니 유골을 발견했다. 말할 수 없는 아픔이 가슴으로 흘러내리면서, 앞으로 자신을 유혹하거나 속박할 것은 아무 것도 없다는 생각을 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고행도 피하지 않겠다는 비장한 맹세를 다지고 다졌다.

"훌륭한 수행자의 길을 가고 있는 내 아들아. 원수를 갚아달라고 했던 이 못난 어미를 용서해다오. 모든 것이 내 마음에서 나와 사라지는 현상일 뿐인데, 원수 갚는 일이 어디 있어 너로 하여금 그 많은 사람을 죽이게 했단 말이냐. 죽고 나서야 나는 알았다. 오랜 동안 나를 괴롭혔던 고통이 원수가 있다는 엄청난 착각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무명에 휩싸여 삶을 마감했던 이 어미의 일생을 보면서 부디 수행에 전념하거라. 착각에서 벗어나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는 삶이 영원한 자유의 길이고 진정으로 행복한 삶임을 모든 생명에게 전하기 바란다."

아마도 밀라레빠의 어머니는 자신의 유골 앞에 서 있는 자식에게 이렇게 말했을 것 같다. 죽어서도 자식의 행복을 비는 것이 어머니이니까.

밀라레빠는 스승 곁으로 돌아와 혹독한 수행으로 자신을 단련했다. 마음이 나태해질 때면 어머니의 유골 앞에서 맹세했던 서원을 떠올리곤 했다. 12년의 초인적인 수행 끝에 그는 깨달음을 얻었고 자유자재로 분신을 나툴 수 있는 힘을 얻어 밀교 수행을 완성했다. 그 후 그는 걸출한 제자들을 배출했으며 유정 무정의 생명들을 교화해 영원한 자유의 길로 인도했다. 생전에 그는 이렇게 법문했다.

"모든 세속적인 욕망은 최종적으로 아쉬움만 가져온다. 얻은 것은 사라지고, 쌓은 것은 무너지며, 태어난 것은 죽는다. 이런 이치를 아는 사람은 얻은 것과 쌓는 것, 만나는 것을 일찌감치 버리고 올바른 스승의 지시에 따라 진리를 깨닫고자 한다. 이것 하나만이 최선의 행법이다."

티베트의 위대한 성자로 불리는 밀라레빠. 그는 어머니로 인해 눈으로 보는 모든 것은 헛된 것임을 뼈저리게 느끼고 수행에 몰입해 영원한 자유를 얻었다. 그의 어머니는 자식을 큰 수행자로 만들기 위해 화현했던 역행보살이 아니었을까?

〈작가〉

백두대간에서 재배한 돌배 세우listen 도라지 스틱 液

자연에서 찾은건강

300BOX 한정특판
특별보급가

₩75,000 → ₩57,000



[제품용량] 10ml x 30포(300ml) / 액상차
[원재료명 및 함량]
도라지추출물(고형분8%이상, 도라지뿌리 11.11%)56.9%, 배추출물(고형분4%이상 / 돌배나무열매11.11%)12%, 배농축액(고형분60%이상)8%

인터넷에서 도라지 추출물 성분인 NAVER 플라티코딘D효능 ▼ 을 검색하세요.

백두대간 재배 약도라지, 돌배 제품은 이런 점이 다릅니다.
- 무농약, 유기농 재배, HACCP 인증
- 백두대간 800m에서 이식 재배한 8년근 약도라지 사용
- 다양한 영양성분과 유기산이 풍부한 유기농 돌배 사용.
- 평창 동계올림픽 면세점에서도 판매한 믿을 수 있는 제품.
- 도라지에 함유된 "플라티코딘 D"는 면역력 강화에 도움.

자연에서 찾은 건강 진액골드
노루궁뎅이버섯 津液

₩69,000 → ₩55,000



[제품용량] 80ml × 30개입 / 1일 1~2회 /1회 (80ml)
[원재료명 및 함량]
노루궁뎅이버섯추출액88.9%(노루궁뎅이버섯 고형분 2%, 국산), 배농축액10%(국산), 오미자청(국산), 생강농축액(국산)

인터넷에서 NAVER 노루궁뎅이버섯효능 ▼ 을 검색하세요.

노루궁뎅이버섯은 우리의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합니다.
- 실버식품으로도 불리우는 노루궁뎅이버섯은 인지개선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헤리세논, 에리나신 함유.
- 위산분비 조절, 염증개선 및 위장운동을 강화시켜주는 작용을 하는 "올레아놀릭산" 함유.
- 건강한 세포를 손상시키는 활성산소 제거 역할.
- 베타글루칸을 다량 함유하고 있어 인체의 면역력 강화에 도움.

문의 : 02)732-1520 마하몰 www.mahamall.co.kr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법화경 유포를 부촉하다



지안 스님의 〈법화경〉 강설

㉝ 촉루품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법좌에서 일어나 큰 신통력을 나타내어 오른손으로 한량없는 보살마하살들의 머리를 쓰다듬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다.

"내가 한량없는 백천만억 아승지겁에 이 얻기 어려운 아뇩다라삼먁삼보리법을 닦고 익혔느니라. 그것을 이제 그대들에게 부촉하노니, 그대들은 마땅히 일심으로 이 법을 받아 지녀 유포하여 널리 퍼지게 하라. 그리고 이 법을 설하여 모든 중생들로 하여금 잘 듣고 알게 해 주어야 하느니라."

이와 같이 세 번을 거듭 보살마하살들의 머리 쓰다듬으시고 말씀하셨다.

"왜냐하면 여래는 큰 자비를 지니어 욕심부리는 일이 없으며 또한 두려운 것이 없어서, 능히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와 여래의 지혜와 자연의 지혜를 주기 때문이니라.

여래는 곧 일체중생의 큰 시주이니 그대들도 마땅히 여래의 법을 따라 배워서 인색한 마음을 내지 말아야 하느니라. 오는 세상에 선남자, 선여인이 여래의 지혜를 믿는 이가 있으면 마땅히 이 〈법화경〉을 설해 듣고 알게 해야 할 것이니 그들로 하여금 부처님의 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니라. 만약 어떤 중생이 믿지 않으면 마땅히 여래의 또 다른 깊고 묘한 법 가운데서 보여주고 가르쳐주고 이롭게 해주고 기쁘게 해 주어야 하느니라. 그대들이 만약 이렇게 한다면 모든 부처님들의 은혜에 보답하는 것이 되느니라." 그때 여러 보살마하살들이 부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듣고 큰 기쁨이 온몸에 넘쳐 더욱 공경스럽게 허리를 굽히고 머리를 숙여 합장을 하고 부처님을 향하여 함께 아뢰었다.

"세존의 분부대로 받들어 행하오리다. 그러하오니 세존이시여, 염려하지 마시옵소서." 모든 보살마하살들이 이렇게 세 번이나 함께 소리를 내어 아뢰었다.

그때 석가모니부처님이 시방에서 오신 여러 분신(分身)부처님들을 각기 본국으로 돌아가게 하려 하여 이렇게 이르시었다. "여러 부처님들께서는 각기 안주하시던 곳으로 돌아가시고, 다보부처님은 아직 그대로 계셔 주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실 적에, 시방에서 오신 보배나무 밑에 앉아 계시던 한량없는 분신(分身)부처님들과 다보여래와 상행(上行)보살 등 끝없는 아승지 보살들과 사리불을 비롯한 성문과 사부대중 그리고 모든 세간의 천신 · 인간 · 아수라 등이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모두 다 크게 기뻐하였다.

〈법화경〉은 말세용 경전의 역할을 하는 경이다. 마치 〈지장십륜경〉처럼 말세의 사정을 감안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온다. 또 〈법화경〉은 〈호국삼부경〉에 들어가듯이 〈호국경〉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는 법을 들을 중생들의 사정을 생각하는 정도가 그만큼 깊다는 뜻이다. 다시 말해 〈법화경〉의 대비심이 지극함을 나타내는 것이다.

'촉루품'에 설해져 있는 위의 내용은 〈법화경〉의 유포를 보살들에게 부탁하는 이야기다. 이 대목에서는 〈법화경〉을 아뇩다라삼막삼보리법이라 하였다. 무상정각이라 번역되는 이 말은 불법의 핵심 진리 그 자체를 일컫는 말이다. 이를 널리 유통시켜 모든 중생들이 듣고 잘 알게 해 주어야 한다고 당부를 한다. '여래의 지혜를 믿는다면 〈법화경〉을 설해 듣고 알게 하라'는 유훈이 세 번이나 거듭 설해진 것이다. 이 유훈을 받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것이라 하였다. 또 〈법화경〉이 중생들에게 부처의 지혜와 여래의 지혜 그리고 자연의 지혜를 준다고 하였다. 모두 부처님의 지혜를 달리 부르는 말로 일체지, 일체종지 무사지(無師智) 등 지혜의 성격을 달리 나타내는 말들이다.

다보여래는 〈법화경〉을 증명하는 부처님으로 열반하신 후 전신사리가 되어 〈법화경〉을 설할 때마다 땅에서 솟아 나와 칠보탑이 되어 〈법화경〉이 진실한 것임을 증명해 준다고 한다. 본래는 동방 보정세계 부처님으로 법화회상에 꼭 등장하는 부처님이다. 시방에서 온 분신부처님은 본국으로 돌아가시고 다보여래만 남아 계시라 부탁하는 말씀은 법화법문이 안끝났으니 더 증명해 주시라는 뜻이다.

〈반야불교연구원장〉

점찰 통해 자신 악업 참회 유도



임상희의 계율이야기

㉝ 보살계와 점찰참법(占察懺法)

동아시아불교에 대한 수많은 편견은 아마도 순수한 형태의 불교에 대한 추구에서 비롯된 것일지도 모른다. 미국의 불교학자인 베르나르 포르(Bernard Faure)는 '미신적 요소가 없는 순수한 불교'에 대한 믿음이 편향된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말한다. 아울러 불교는 시대, 장소, 전파된 문화권에 따라 영향을 받으며 끊임없이 변화해 왔다는 점을 강조한다. 다시 말해 동아시아불교는 오랜 세월 동안 동아시아의 문화를 흡수하면서 변화한 형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점찰선악업보경(占察善惡業報經)〉은 동아시아의 문화를 흡수한 경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전은 천축삼장(天竺三藏) 보리등(菩提燈)의 한역으로 되어 있지만, 그에게는 전기도 없을 뿐만 아니라 다른 경전을 한역하지도 않았다. 이로 인해 이 경전은 여러 경전목록에서 위경(僞經)으로 분류되었지만, 당나라 때에 진경(眞經)으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경전의 내용으로 미루어보면, 6세기 말에 중국에서 찬술된 경전인 것으로 여겨진다. 이 경전에서는 견정신(堅淨身) 보살의 청문(請問)에 대해, 세존이 지장(地藏) 보살에게 말세의 중생을 위한 방편을 설하도록 한다. 이 경전은 두 권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그 내용이 다소 이질적이다. 상권에서는 숙세(宿世)의 선악업인(善惡業因)과 현세의 길흉의 과보(果報)를 점치는 법을 설하며, 하권에서는 대승불교의 실천으로서의 일실경계(一實境界), 여래장(如來藏)의 이론과 유식관(唯識觀) 및 진여관(眞如觀)을 설한다.

특히 상권에 소개된 목륜상법(木輪相法)은 당시 중국의 민간에서 성행하던 점찰법(占察法)이 반영된 것으로 여겨진다. 우선 점찰하는 도구인 목륜(木輪)을 만드는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목륜은 나무를 새끼손가락 크기 정도로 깎고서 중심부를 4면체로 다듬어놓은 후에 양 끝을 비스듬히 깎아서 만든다. 그런 다음에 목륜으로 점찰하는 3가지 방법이 소개되어 있다. 첫 번째 방법은 10개의 목륜으로 숙세의 선악업의 차별을 점치는 것이다. 두 번째 방법은 3개의 목륜으로 숙세의 선악업의 오래되고 가까움, 강하고 약함, 크고 작음을 점치는 것이다. 세 번째 방법은 6개의 목륜으로 삼세에서 받는 과보의 차별을 점치는 것이다.

그런데 목륜으로 선악과 과보를 점찰하는 방법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목적이다. 첫 번째 방법으로 10선과 10악을 점찰할 수 있으며, 두 번째 방법으로 신구의(身口意)의 3업을 점찰할 수 있으며, 세 번째 방법으로 삼세에서 받는 189가지 과보를 알 수 있다. 앞의 2가지 방법으로 점찰한다면 10선과 3업에서 전부 선업이 나올 확률은 낮으며, 10악 가운데 하나가 나오거나 3업 가운데 악업이 나올 확률이 높다.

이런 까닭에 자신의 선악과 과보를 점찰한 사람들은 자신의 악업을 없애기 위해 반드시 참회해야 한다. 하루에 6번 모든 부처님과 성현, 그리고 지장보살에게 예배한 후에 죄의 경중(輕重)에 따라 7일에서 1000일 동안 자신의 죄를 뉘우쳐야 한다. 진실한 참회를 통해 선상(善相)을 얻은 사람들만이 보살계를 받을 수 있으며, 비록 훌륭한 계사(戒師)가 없더라도 모든 불보살을 증명 법사로 삼아 스스로 10중계(重戒)와 삼취정계(三聚淨戒)를 차례로 얻을 수 있다고 한다.

이 경전에서는 〈범망경(梵網經)〉의 10중계를 그대로 수용하고 있으며, 유가계의 삼취정계를 섭율의계(攝律儀戒) · 섭선법계(攝善法戒) · 섭화중생계(攝化衆生戒)로 조금 변형하고 있다. 눈에 띄는 것은 자서수계(自誓受戒)에 의한 출가를 인정하는 것인데, 그 전제조건은 지극한 마음으로 선한 윤상(輪相)을 얻는 것이다. 따라서 상권의 점찰법은 점찰참법(占察懺法), 즉 점찰의 결과를 받아들여 자신의 악업을 참회하도록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동국대 불교대학 강사〉



대풍 스님의 진심법문

⑨ 이 생서 꼭 해야 할 천명(天命)

지견으로 바른길 인도하는 부처님

부처님께서 이 땅에 출현하신 이유

불자 여러분! 불교를 신앙하는 데 있어서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불교신앙의 참 목적을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임시로 화합된 오온가화합(五蘊假和合) 덩어리를 '나'라고 집착하고, 더구나 이 몸뚱이와 인연된 존재들에게 애착을 일으키며 그에 의한 갈애(渴愛)로 복락을 추구하는 신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현세의 복락 기원도 불교의 목적이 될 수 있겠지만 참된 목적, 즉 궁극적 목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출현하신 이유가 세상 사람들의 복락을 위해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이유를 〈묘법연화경〉 '방편품 제2'에서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부처님 세존께서는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열어서 맑고 깨끗함을 얻게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보이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들에게 부처님의 지견을 깨우쳐 주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시며, 중생에게 부처님 지견의 길에 들어가도록 하시고자 하시는 까닭으로 세상에 나오시어 나타나신다."고 분명히 이 세상에 출현하신 목적을 밝히셨습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께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중생의 가치관을[衆生知見]을 버리고 부처님의 지혜를 열어서 부처님의 지견으로 세상을 올바르게 알고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지혜가 왜 필요한가?

부처님의 지견이 왜 필요하냐면 중생이 세상을 보는 것과 부처님이 세상을 보는 지견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명에 가려진 중생의 눈으로써는 자기와 이 세상이 영원한 것처럼 보이지만 부처님이 바라보는 이 세상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불자 여러분! 부처님의 지견으로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들이 그토록 탐착하는 이 육체는 나의 참모습이 아닙니다. 현상세계에 나타난 나와 일체 세계는 모두가 찰나에 생성소멸하는 연기적 존재입니다.

일체가 무아이고 무상이기 때문에 집착하고 애착할 대상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무명에 가려진 우리들은 안타깝게도 찰나에 생성소멸하는 허깨비 같은 현상들을 실재한다고 믿고 집착하고 애착하면서 생사윤회의 원인들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모든 환영과 망상을 깨뜨리고 벗어나야 합니다. 그래야만 매 순간 환영과 망상에 속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부처님같이 깨달음을 얻어야 합니다.

고타마 싯다르타의 스승

불자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도 부처님과 같이 무상정등각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출가 당시 깨달음을 위해 첫 번째 스승인 밧가와를 만나 고행을 통한 무아와 생각을 관찰하는 법을 배우고 생각이 일어나는 근원처를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스승인 알라라 칼라마를 만나서 선정을 닦는 수행을 통해 절대의 경지를 체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스승인 웃타카 라마풋타를 만나 자신이 이룬 경지마저 놓음으로써 얻어지는 일체무애한 해탈의 법을 터득하여 선정의 최고의 경지를 완성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세 분의 스승을 통해 얻은 이 모든 수행의 결과들은 참다운 깨달음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스승 곁을 떠나 홀로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부처님께서는 그 어떤 것에도 의지함이 없는 경지에서 무상정등정각을 깨달아서 인천(人天)의 스승인 부처님이 되셨습니다.

〈밀양 사천왕사 주지〉

일일시호일

13년 한국 생활에
남은 건 암덩이와 빚더미

봉제공장서 근무한구룽시타씨 부부…사기당해 건물서 쫓겨나
직장암 수술 앞둬…검사비만 500만원 병원비는 알 수 없어 암담



농협 301-0189-0372-01 국민 023537-04-004063 예금주:일일시호일

후원신청전화 070.4707.1080
♥정기 후원 한 달에 만원

이주노동자 지원 사업 국내 취약 계층 지원 사업
다문화가정 지원 사업 해외 지원 사업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4㎝ : 4만원/회 ◆가로 9㎝ : 8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생활 안내

1355호 | 17 | 전면광고

세간의 악들이 치성한 후에
악한 행이 없어지고 다시는 생기지 않게 하며
여러 악한 행이 다하여 진실되게 하며 가령
이렇게만 된다면 누가 세간을 즐기지 않으리까.



부처님 말씀 읽기 - 《법구경》에서

무형문화재 학인모집

무형문화재 천수바라·작법무 연수원

1. 천수바라, 오공양 작법무
2. 다게작법, 운심게 작법무
3. 염불, 사물, 사주 명리, 회심곡

• 특별반 / 개인 3개월 과정 모집 •
• 사찰등록 및 승려증 발급 •

사 찰 행 사 전 문

(사)대한문화전통불교조계종
총무 010-5511-7000

불공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49제, 점안, 살풀이, 바라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십시오
010-2168-2800
011-850-0176

수강생 모집

- 기문둔갑, 실전해단풀이 특강
- 속성 5개월 과정 • 한문 몰라도 됨
- 원하시는 시간에 무료 청강 가능
- 스님 환영합니다

수강료(5개월) 기문둔갑 150만원

경남 창원시 성산구 중앙동 용지로95
스님 010-7589-5950

양도공고

(등록된 종무법인임)

개인사암, 단독법인 가능함

종무업무를 국가기관에 등록받은 불교법인, 불교연합회, 불교종단 양도함

010-5412-8040 법광

취득 동참 안내

◆ 포교사, 전문포교사 ◆ 법사, 전문법사
◆ 법계분야 - 대종(선)사, 대사, 종사, 율사, 종무사, 종신사, 종학사, 교학사
◆ 포교승법위, 법사승법위, 종법승성위증 부여
◆ 제출된 서류로 평가심사 취득가능

교육부 상학인가 만대 불교학대학원
한국불교수행자연합회
서울시 노원우체국 사서함 25호

010-5412-8040

천도재, 49재 회향 혼자서 여법하게 봉행합니다.

❊ 바라, 피리, 극락무 ❊
올려드립니다.
보시금 35만원

010-2204-8375

天門祕法전수

백운곡 저서 100여권

◆ 장애스님 무료 ◆
◆ 대학역학교수 3명 엄선 ◆

Daum 역학대통령 ▼ 최다목록 무료검색

Tel. 02)907-5858

★검 색★

GN 손도사

최고 운명정보, 무료검색
문의 : 010-5105-5000

49재.천도재.점안의식대행

(바라,작법무,화청,살풀이,불교무용)

의식은 불교의 꽃,
40년 수행공덕으로
귀 사찰의 행사를
성취해 드리겠습니다.

문의 010-6785-1130
010-5270-8260

• • •

부전스님
모십니다.

• • •

010-2078-9595

• • •

공양주 보살님
관리(운전)처사님
모십니다.
경기 성남/ 65세 이상
숙식필수(월4일 휴무)
초보자 환영/ 중국교포 환영

• • •

010-4253-9110

• • •

공양주 모심
숙식제공
포천 천주사

• • •

010-3220-2915

易(역) 수강생 모집

- 왕초보반 : 명리 · 육효 · 영가 찾는 법

YouTube 백암TV 구독 누른 후 시청

백암역리원 010-9150-2284
오시는 곳 : 2, 4호선 사당역 8, 9번출구 먹거리골목200M

향(香) 특판 안내

• 능인계향 • 능인라벤더 • 능인로즈마리

능인계향
판매가 : 20,000원



능인계향은 히말라야와 베트남, 라오스 국경지대에서 구해온 향나무와 꽃 등다섯 가지 재료를 배합하여 만든 향으로 심신 안정과 기혈 순환에 도움이 많이 됩니다.

능인라벤터
판매가 : 15,000원



라벤더는 그 향기가 좋아 유럽의 로마 시대부터 향수와 향료의 원료로 사용되던 꽃입니다. 라벤더의 향기에는 긴장을 완화시키고 숙면을 유도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모든지

성취시키는 기도법을 전수 (승려에 한함)

서울 동대문구 왕산로 274-1 3층 백선사 대주 합장
☎ 02)963-1148 / 010-3741-0867

관상(손금)

성철사주비법 전수

- 얼굴만 보면 모든 것을 알 수 있다
- 송사재판, 암, 질병, 유산낙태, 교통사고, 이혼수, 부도, 사업실패, 묘터물찬곳, 조상영가, 승진운
- 스님, 무속인, 일반인, 철학인, 공무원, 불교 무용 배울분
- 출장 개인지도, 관상학, 손금, 성명학, 사주, 명리, 구성학, 타로, 조상영가 뽑는법

상담문의 010-4014-8822

현대불교신문
구독 나눔 캠페인

현대불교신문에는 부처님의 따뜻한 자비의 말씀이 있습니다.
도반과 함께 구독하여 나눔의 기쁨을 누려보세요.

02-2004-8212

향로용 유리알 향운정주(수정모사)



- ▣ 상품명 : 향운정주 (수정모사)
- ▣ 재 질 : 크리스탈 유리알
- ▣ 용 도 : 법당향로, 개인향로, 법당 조화용 화병, 크리스탈 꽃병 등등 다양한 곳에 반영구적으로 사용가능
- ▣ 규 격 : 1kg : 13 x 15 x 3.5cm (종이박스) / 5kg : 14 x 15.5 x 18.5cm (종이박스)
- ▣ 특별공급가격 : **1kg : 10,000원** (배송비 별도)
  5kg 1BOX (1kg X 5ea) : 50,000원/세트 (배송비 포함)
- ▣ 구입처 : 전화 : 02-732-1520 , 팩스 : 02-737-0696
- ▣ 계 좌 :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주)현대불교신문사
- ▣ 판매원 : 마하몰 (www.mahamall.co.kr) / 제조원 : ㈜바이넥스 / 원산지 : 대한민국

상품특성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맑고 투명한 작은 구슬로 향로에 사용하던 쌀 등 곡식이나 모래, 흙 등을 대체한 제품입니다.
- 모양과 빛이 아름다워 보는 이로 하여금 정결하고 정성스러운 마음을 갖게 합니다.
- 향운정주(수정모사)는 향이 잘 꽂아지고 부러지지 않으며, 물로 씻어 정갈하게 대를 물려 영구적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일정 온도에서 원적외선이 방출되어 인체에도 유익합니다.
- 조화용 화병이나 크리스탈 꽃병에 사용하시면 투명한 빛이 아름답게 보입니다.

※ 향로에 들어가는 향로용 유리알 수량 (스텐 향로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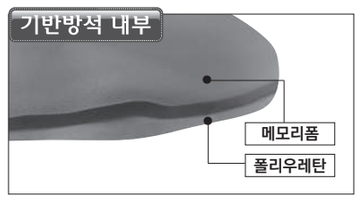
종류		크기			수량
향로(스텐)	特大	지름: 20cm	높이: 18.5cm	내부: 13cm	5kg
향로(스텐)	大	지름: 17.5cm	높이: 18.5cm	내부: 11.5cm	3kg
향로(스텐)	中	지름: 13.5cm	높이: 16cm	내부: 10cm	1.5kg
향로(스텐)	小	지름: 12cm	높이: 12.5cm	내부: 8.5cm	1kg

세계최초

수련 전용방석 기반

수련문화 활성화를 위한 기반은 품격이 다릅니다.





VIP형 ~~49,000원~~
➡ 44,000원

가로	45cm
세로	32cm
높이(뒷면)	8cm

• 제품의 특징 •

인체공학적 설계로 신체의 좌·우 균형을 바르게 유지하며, 척추와 허리가 무리없이 바르고 자연스럽게 펴집니다. 보관과 이동이 용이하며, 어느 곳에서도 쉽게 수련 할 수 있습니다.
평상시에 사용하여도 척추와 허리를 보호하고 바른 자세의 습관을 갖는 효과를 줍니다. 고급 외피를 사용하여 물이 묻어도 스며들지 않습니다. VIP형은 하단부분은 최고급 폴리우레탄으로 균형을 잡았으며, 상단은 신소재 최고급 메모리폼을 내익하여 자연스럽게 자세를 더욱더 안정시켜 줍니다.

주문은 마하몰 TEL 02)732-1520 |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좋은인연 대출안내

- ☑ 대출이 더 필요하십니까?
- ☑ 불사자금이 부족하십니까?
- ☑ 사찰구입자금이 필요하십니까?

1980년 설립하여 전국의 많은 사찰과 인연을 맺고 있는 사찰전문 은행인 **형산새마을금고**와 의논해주시면 좋은 인연이 되어 드리겠습니다.

사찰을 매매하실때 문의해 주세요~

부동산권리분석 · 매매관련세금 · 감정평가



형산새마을금고 본점 전경

- 대출기간 최장30년
- 설정비,감정료 면제
- 제주도까지 전국가능
- 타은행대출 전환가능
- 법인,단체사찰 가능
- 종단사찰 가능

365 친절상담

이사장 이강욱 ☎ 010-9842-4200
상 무 김상민 ☎ 010-7314-2522

형산새마을금고
본 점 054)282-9600
제1지점 054)282-9601
제2지점 054)282-9602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달마선의 참마음(眞心)으로 금강경을 풀이하다!

깨달음은

공개된 부처를 비밀스레 찾은 신앙이 아니라
밝혀지지 않은 자성불을 구현하여
제3의 생명으로 거듭남에 있음으로
남을 따르거나 흉내를 내어서는 안 된다



달마 선법으로 본 금강경
개정판!

~~19,000~~ → 16,150원

이창우 역주 | 46배판 | 양장 | 573쪽

현대불교신문사
구입문의 : 02)732-1520

입금계좌 :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알기쉬운 구단구궁법

특허 상표등록번호 40-0863341 저작권등록번호 C-2011-003967
서비스표등록번호 41-0213393

저작권자, 상표권자 법화 종헌(속명 정흥교)는 경주불국사, 대구동화사, 부산범어사 승가대학에서 수학하고 고려고찰 고산사, 석불사 등 주지직을 수행하고, 전통불교조계종정을 역임. 지금은「구단구궁법주」로서 자비의 방편학문인「구단구궁법」을 세상에 널리 펼쳐 많은 중생을 요익케 하고 있다.

누가? 몇일?	◆누구나 5일이면 실력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왕초보 저학력 아무상관 없습니다. ◆써먹지도 못하는 죽은 학문이 아니라 살아있는 이 시대의 필수과목입니다.
내용	◆**손으로 짚어 5분안에 자금회전, 일의성패, 직업, 성격, 적성, 궁합, 택일, 이사방위** 등을 주저없이 판단하고 기판(답안지 5분) 작성시에는 과거, 미래 십년도 한눈에 일년 열두달도 한눈에 알 수 있습니다. (날짜별, 시간별도 마찬가지이다.) ◆한문에 관계없이 초보자도 가능함 ◆**귀신뽑아 조상천도 연계** ◆교수 이수 후 즉시 영업 활동 가능함 ◆**사찰, 포교당, 철학관 상담소 운영**에 획기적인 방법
수강료	◆스 님 – 오십만원(책값 별도) ◆일반인 – 일백만원(책값 별도) ◆우체국 : 601401-01-001843(예금주 : 자비실천불교연합회)

부산 ❷,❸호선 덕천역 2번 출구 20m

구단구궁법 교실
cafe.daum.net/9dan9gung
부산광역시 북구 백양대로 1198
(구포동 147-3) 3층 전층
전화 010-7415-0803

접 수 매주 월(月)~수(水)요일 *수요일까지 입금된 기준으로 광고 게재
팩스 02)737-0698 또는 이메일 jabi2018@naver.com 접수
게 재 접수 후 다음 주 수요일 문 의 02)2004-8214
가 격 ◆가로 5㎝: 5만원/회 ◆가로 10㎝: 10만원/회
계 좌 ◆농협 : 053-01-269088 ◆국민 : 222-25-0005-381
◆예금주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정보

1355호 | 18 | 전면광고

소리에 놀라지 않는 사자와 같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바람과 같이, 흙탕물에 더럽혀지지 않는 연꽃과 같이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부처님 말씀 읽기 - 《잡아함경》에서

광 진 불 사

◎위치 : 서울
◎부지 : 300평
◎건평 : 60평,외
◎시내중심, 산및, 주차가
◎매가 : 협의

◎위치 : 경기
◎부지 : 150평
◎건평 : 120평
◎신도시중심
◎매가 : 9억5천

*40년세월,신용과,믿음으로일합니다. 출장상담받습니다. ***사찰관련 컨설팅 상담(창건주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전국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부전, 공양주, 처사 소개합니다.**
*신행상담, 사찰순례, 채권상담, 종교법인, 상담받습니다

광진불사 010-4586-4525

사찰(급)안내

● 위치 : 전주시내 정 중앙(한옥마을 5분거리) 전주시 전경 한 눈에, 이성계 기도터 ● 대지 : 400평(국유지 1만평 사용) ● 법당(요사채 최신형 입식), 극락전(목조기와 신축) ● 가액 : 2억원(대출금 3억5천 별도, 승계안고) ● 조건 : 양도시 모든 석불 포함(석불 조성 1억5천) ● 납골당 설치됨, 약수터, 대나무숲 올창, 편백나무 5천그루 ● 1억 계약시 등기부 넘겨드림, 잔금 1억은 분할납부 가능함 ● 절, 등산로, 사찰 출입 신설 포장도로 5억공사 12월 말까지 공사 준공 예정

010-9647-0723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영천시 고경면 논실리82
● 대지 230 평
● 법당 20평, 산신각, 공양간, 찻방, 아담한 산밑자락
● 가액: 3억(대출5천만원) 절충가능

010-9389-7457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용문산 자연휴양림 초입 소재(양평역 5분거리)
● 대지 : 300평 현대식 건물
● 건물 : 대웅전 30평 1동 / 카페, 공양간 30평 / 요사채 23평 2층 건물 1동 종무소, 객방 13평 1동
● 가액 : 10억(답사 후 인연되는 분 절충)
● 법회 즉시 가능합니다.

010-4813-2381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원시 마산
● 대지 7백평, 임야 3천8백평
● 대웅전 55평, 공양실 30평 종무소 10평, 요사 30평 창고 60평, 컨테이너 2동
● 천연 지하 석수 1일 200톤 이상
● 가액 : 11억

010-4547-0023

기도 도량 안내

● 위치 : 강원도 춘천시 삼악산
● 건물 : 법당, 관음전, 삼성각, 미륵대불, 요사채, 공양간
● 가액 : 4억(협의가능)
● 특징 : 유명 등산로 입구, 참배객 많음, 도보 5분 버스정류장
● 영험있는 기도도량입니다.

010-3428-2774

전원주택&토굴 안내

● 위치 : 충북 보은군 내북면 성암가고로 36-32
● 총1,024평 (계획관리지구)
● 대지 285평, 건평 30평, 20평 강의실 10평
● 지하수150m 약수물, CCTV, 화목,기름보일러 (전기판넬), 탁트인 들판, 뒤에는 산, 청정지역 명당터임
● 기운 좋은 토굴, 접근성좋은 도로, 주차시설 넓음
● 가액 : 답사 후 결정

010-5458-2258

사 찰 안 내

● 위치 : 대전 중구 보문산 5거리 (당산나무옆 2층)
● 제반시설 : 삼불전, 약사전, 요사채(2) 42평
● 시설권리금 : 1천5백만(바로 법회 가능)
● 임대보증금 : 3백에 월 30만원, 절 이전으로 시설권리금을 저렴하게 책정하였음.
● 서기가 있어 영험한 기도도량입니다.

기도가 아름다운 절 보문산 지장사
주지 무진 010-3049-5816

사찰(급)안내

● 위치 : 부산 동래구
● 부지 : 1천평(또는 4백평)
● 가액 : 상담(방문)후 결정
● 부산 최고 명당자리
● 전시컨벤션 ● 복지시설

010-2822-1080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산청군
● 대지: 600평, 주차 30대 가능
● 주건물: 대웅전(53평), 요사채, 선방, 화장실, ● 부속건물: 삼성각, 용왕각, 선방, 요사채, 삼층사리탑, 일주문, 창고, 화장실, 기타
● 가액: 답사 상담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께 크게 내려 양도)

010-8957-8089

사 찰 안 내

● 위치 : 감곡kt에서7분거리
● 대지 계획관리 550평 요양원 및 별장으로 공사했습니다
● 사찰, 요양원, 최고급 펜션으로 사용해도 됩니다.

010-5883-2255

성 배 기 획

● 사찰·부동산 전문
● 급하신분
● 빠른부적
● 산신 도통 하실분

010-4490-3544
010-4912-354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해남군 소재
● 대지 : 350평
● 구조 : 철근 콘크리트조
● 건물 : 약 80평 (법당, 요사채)
● 가액 : 4억 8천만원 (절충가능)

010-7710-8334

암자·굿당 (급) 안내

● 위치 : 삼도봉 맞은편 경상도 쪽 형제봉 중턱 ● 대지 : 종교용지 250평 실사용 약 500평 ● 건물 : 한옥기와집 2채 약 60여평 새집 ● 정남향 폭포 계곡 사철물 콸콸 ● 도로 아스팔트 8m 대형버스 다님 ● 가격 보신후 결정 시세이하 저렴함 ● 주인 직접 부동산 일체 사절합니다.

010-5882-2452(총무님)
010-5807-2452(스님)

좋은 암자터 안내

● 위치 : 경기도 양평군 용문면 용문전철 역에서5분거리
● 토지670평, 국유림 야산아래 남서향 양지 밝은곳, 전망이 내려다보여 경치가좋음, 야산에 둘러싸여 조용함
● 가액 3억3천만원(평당49만원)
● 주인직접

010-3531-5562

양산사찰(급)안내

● 종교용지, 대지218평
● 건평 : 1층요사42평, 2층슬라브 42평중, 대웅전26평, 산신각
● 심야전기, 지하석수1일150톤 이상, 양산시상수도, 하수도 종말처리, 집기일체포함, 현재성업중
● 건강상 싯가이하로 양도함
● 가격 : 절충

010-6425-8274

포 교 당 안 내

● 위치 : 서울 연신내 지하철 옆
● 약 10평, 반지층, 임법당
● 방2개, 거실1
● 법당(시설 일체) 인수 가능한 분, 절충가능
● 보 500만, 월 50만
● 개인사정으로 양도함

010-5399-1225

사 찰 안 내

● 울산
● 대지 149평
● 대웅전 1동 20평
● 요사채 17평, 요사채 10평
● 도시가스
● 가액 : 6억 5천만원

010-3811-5466
010-3576-2015

암 자 안 내

● 위치 : 서울 종암동
● 대지 약 90평
● 공시시가 절반가 수준
● 초급매
● 가액 : 4억 5천

010-3184-5362

사 찰 안 내

● 위치 : 대구시 동구 반야월로 190 (안심타운 맞은편) 4층
● 건평 70평(법당, 방 3개, 공양간 1개, 화장실 2개) 시설완비
● 보증금 1천만원 월세 30만원
● 시설비 2천만원

010-9015-4040
010-2077-7820

토 굴 안 내

● 위치 : 경기도 양평 강남권 45분
● 스님토굴, 전원주택형 수익성 양호
● 대지 210평, 건평 40평
● 긴 복도형, 지열, 난방비 최소, 3백년 느티나무, 불자
● 가격협의

010-6285-370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영천 시내 멋진 법당
● 2층 72평, 완벽한 시설, 방3칸, 주방, 화장실, 넓은 옥상, 앰프시설 완비, 방음 완벽, 민원도 없음
● 보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10-9377-2279

별장토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 대지면적 약 전체 2800평
● 정리된(벌목) 임야 약 2천평 (지목 대지 포함)계곡접하고 있음, 국유지 300만평 접함
● 건 물 : 없음
● 가 액 : 6천만원

010-4124-7788

사찰안내

● 위치 : 경북 성주군 수륜면 계정4길 23
● 부지102평, 구조 2층 법당 15평, 생활관 1층 33평, 화장실2평
● 가액 : 1억

010-4156-3779

◑ 입 종 안 내 ◐

입종 및 사찰 등록(제출서류)

① 주민등록등본 1통, 호적등본 1통
② 승적원부(본종 소정양식 : 총무부 비치)
③ 승적증빙서류(타 종단 승려는 승려증 사본)
④ 사찰 전경, 내 • 외부 사진 각 1부
⑤ 반 명함 사진 5매(대가사를 수한 사진)

참고사항

① 각종 구비서류는 최근 3개월 내 발행된 것으로 제출
② 제출된 서류는 반환치 않음

총본산 : 충남 부여군 세도면 세도북로 149번길 34 마강사
전화 041)832-4153 팩스 041)833-4154

우리불교조계종 총무원 Tel 010-6478-1569

사 찰 안 내

● 대지 1,700평, 법당 60평
● 관음전 60평, 약사전 100평 기도원 40평, 공양실 100평
● 납골당, 지장전, 원두막, 종무소
● 폭포가 있는 절(김천지역)
● 가액 : 23억(대출 5억)

010-4547-0023

포 교 원 안 내

● 부산 수영구 광남로 (50평 이상)
● 3층 건물/2층(큰방 2, 화장실 2, 넓은 거실)/약사부처님 3자반/일광월광/호신불 약사 관음 108불/영단/지장 108불 영단 잘 되어 있음.
● 보증금 1천만원/월세 70만원 (시설비 3천만원)
● 스님 건강상으로 양도함

010-3700-3628

◈ 사암등록 및 입종안내 ◈

▣ 제출서류
·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각1통
· 승적원부 및 증빙서류(총무부 비치)
· 사·암 전경, 내·외부사진
· 반명함사진 6매(장삼, 대가사수함)

▣ 상세한 내용 총무부 문의
· 제출한 서류일체 반환불가
· 세무서 고유번호 발급서류
· 사암등록증 및 승려증 발급
· 제반서류 총무부 비치

T. 033-532-1773 / F. 033-532-1774 불교대승 조계종 총무원

무료 灸쑥뜸 수행정진하는 사부대중님께 쑥뜸공양 올립합니다.
장소 : 강원동해 향운암 상담 : 010-2873-3446



생활 속의 불법수행
대행 스님과의 신행문답

주인공이란 '참나'라 해도 좋고 '한 물건'이라 해도 좋고, '본래 면목'이라 해도 좋습니다. 일체를 다 싸잡아서 붙인 이름입니다.

현대불교신문(여시아문 刊) | 신국판 | 무선 | 흑백 | 480쪽 | 15,500원



삶은 고가 아니다
대행 스님 법어

세상 모든 생명에게 바치는 저자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를 담아냈다. 흔히 어렵다고 여겨지는 불교를 친숙하게 받아들이도록 인도한다.

(재)한마음선원 출판부 | 148×210mm | 287쪽 | 10,000원

구입문의 — 02)732-1520 • 3만원 미만 택배비 별도 • 농협 053-01-269062 |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불자의 궁지 | 신행의 기쁨
현대불교
전국 지사 안내

구독신청 기사제보 광고게재

항상 여러분들에게 가까이 다가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사명	지사장	연락처	
부산지사	이도경	T 051-405-9402	H 010-5640-8883
경남지사	성낙두	T 051-512-1761	H 010-3860-7008
대구지사	손문철	T 053-768-8008	H 010-2813-8008
광주전남지사	양행선	T 062-512-5003	H 010-2629-1508
전북지사	조동제	T 063-910-8977	H 010-8642-7733
영주지국	박영애	T 054-634-3429	H 010-9373-3778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에 앞장서 온 현대불교

놀라운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석 염주 · 합장주 · 지키미

희담석이란? 희담석(稀潭石 / Batu Hitam)은 대규모의 화산 폭발로 인해 지구 깊숙이 묻혀 있던 무기물들이 용암과 함께 분출된 후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단단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현지 주민들은 이 돌을 옛부터 치료용으로 사용 해왔는데, 그 중에서도 성분 분석과 원적외선 파동 검사를 통해 인체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여 실용화 한 것이 바로 【희담석】입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부를 만큼 생명체에게 유익하며, 방출되는 원적외선의 질과 양은 타 제품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납니다. 따라서 세포의 활성화를 통한 최고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희담석 합장주(12mm) 판매가 : 12,000원 ➡ 10,000원
- 남자와 여성분들의 손목에 맞추어져 있음.
- 재질 : ABS, 희담석 50%
▪ 팔목이 늘 뻐근한 분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앉아 있는 운동이 부족한 불자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희담석 지키미 판매가 : 20,000원
희담석 지키미는 놀라운 생명 에너지를 가진 희담 원석을 휴대하기 간편하도록 제작한 제품입니다.
평상시 주머니에 넣어 다니거나, 틈나는 대로 특정한 통증 부위에 사용하시면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희담석108염주(8mm) 판매가 : 39,600원 ➡ 35,000원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수행증진을!!
구성 : 희담석 108염주
크기 : 직경 8mm "희담석 8mm염주는 차걸이용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농협 053-01-269062 예금주 : (주)현대불교신문사

불교문화상품 전문몰 마하몰 (http://www.mahamall.co.kr)

구매전화 1688-9099 / (02)732-1520

♦ 본 지면의 불자정보 광고는 광고주의 요청에 따라 게재한 것이므로, 광고지면 제공 이외에 광고주와의 거래 및 기타 사항에 대해서 일체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법헌 스님의
만다라&수행

재개장보살



제개장원의 주존(主尊)이며. 일체 중생의 온갖 번뇌의 장애를 제거하기 위하여 제개장삼매에 있다고 한다.

형상- 몸은 살색이고, 우수에는 무외인, 좌수에는 보당(寶幢)을 가지고, 적 연화좌대에 가부좌를 하고 있다.

〈동방불교대학 실담학 교수〉



보리수아래의
부처님 품안에서
⑯ 뇌병변장애인 성인제 씨

컴퓨터로 더 넓은 세상 만나다

성인제 씨는 시집 〈행복한 기다림〉을 낸 시인이다. 2020년 코로나가 시작될 무렵에 출간한 생애 첫 시집 제목처럼 행복한 기다림의 삶을 살고 있다. 자신이 코로나에 걸리면 자신보다 주위에 도미노처럼 불편을 끼치게 된다고 외출을 자제하는 배려심 깊은 인제 씨이기도 하다.

인제 씨는 경기도 김포에서 태어났다. 부모님을 비롯한 집안 어른들이 인천 용화사에 다니셨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불자가 되었다. 특히 할머니는 인제 씨가 뇌성마비 장애를 툭툭 털어 버리고 살 수 있게 해달라고 날마다 기도를 하셨다. 어린 인제 씨도 할머니를 따라 기도하는 것이 일상이었다. 할머니는 인제 씨에게 항상 염주를 쥐어주시며 "하나둘 세어가며 기도하면 부처님께서 소원하는 것을 들어주실 것"이라고 당부하시기도 했다.

할머니가 돌아가신 후, 인제 씨는 집안에만 머물면서 형이 공부하고 남은 책도 보고 동생들이 공부하는 것도 어깨너머로 보고 배웠다. 그러던 중 2000년 친척들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준 용돈을 모아 컴퓨터를 샀다. 부모님께서 컴퓨터에 설치해준 인터넷 덕분에 좀 더 넓은 세상을 접하게 되었다. 보리수아래 모임을 만나 조금 더 체계적인 신행 활동을 하게 된 것이 바로 이 무렵이다.

35살의 늦은 나이에 검정고시 공부도 시작했다. 조카들이 하는 학습지 선생님의 도움으로 검정고시 공부에 최선을 다해, 공부를 시작한 지 1년 만에 초중고 검정고시에 합격했고 이어 2011년에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입학하여 5년 만에 졸업을 했다.

대학을 졸업한 후 더욱 활발해 진 보리수아래 활동은 인제 씨에게 큰 의미가 되었다. 2014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공연 '보리수 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에서 여러 예술인과 함께 자작시 낭송을 하면서 시인으로서 활동하는 계기를 만들었다. 스님들과 많은 관객 앞에서 떨리는 가슴으로 시를 낭송했던 기억은 아직도 생생하다고 한다. 2018년에는 대한불교조계종 신행수기 공모에서 생명나눔실천본부 이사장상을 받기도 했다.

보리수아래와 함께해온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인제 씨 자체가 보리수아래의 역사임을 새삼 깨달았다. 특히 불자로서 신행생활은 물론 사회활동에도 성장한 모습이 곧 보리수아래의 모습인 듯 싶어 기쁘고 감사하다.

2018년 12월 초 인제 씨 인생에 큰 전환점이 또 생겼다. 임대아파트에 입주하게 되어 50년을 살았던 부모님의 곁을 떠나 독립을 하게 된 것이다. 부모님은 홀로 독립을 하겠다는 인제 씨를 걱정하셨지만, 미리 저축해 둔 돈으로 보증금을 마련하는 등 차곡차곡 준비하는 인제 씨를 믿고 독립을 허락하셨다고 한다.

작년 초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보리수아래의 법회나 모임을 할 수 없게 되어 장애가 있는 회원들의 활동이 전면 중단되다시피 했다. 회원들의 활동을 어찌 도와야 할지 고민을 거듭하다 계획 중이던 보리수아래 감성시집 발간을 앞당겨 추진하기로 하였다. 오백여 편의 시를 갖고 있던 인제 씨를 첫 번째 시인으로 선정하고 행복한 기다림을 발간하였다. 인제 씨는 가까운 지인들, 대학 동문들을 비롯해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등 SNS 친구들, 인터넷 카페 회원들과 기쁨을 나눴지만, 외부활동이 어렵던 상황에서 책을 전달할 수 없어 아쉬움이 컸다. 다행히 보리수아래 핀 연꽃들의 노래 공연에서 했던 작은 싸인회는 위안과 기쁨이었고 의미 가 깊었다고 했다.

그리고 2020년 5월, 오랫동안 바라왔던 취업을 하였다. 중증장애에 비대면 면접을 보느라고 애는 먹었지만 한국저작권보호원에 합격한 것이다. 직장의 주요 업무는 인터넷 웹하드나 P2P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불법 저작물들을 찾아서 신고하는 일이었다. 현재는 한 병원에 근무하고 있다.

첫 월급을 타던 날, 부모님께 월급봉투 채로 갖다 드렸다. "우리 아들, 정말 장하다. 이 소중한 돈을 어떻게 써." 부모님의 눈가가 젖어든 모습을 보면서 어릴 적 버팀목이 되어주신 할머니 생각도 나 가슴이 뭉클해졌다고 한다.

인제 씨는 말한다. "나는 불자지만 불교에 대해 그리 많이 알지는 못합니다. 그냥 할머니와 어머니가 보시던 반야심경 천수경 등 경전을 접하고, 보리수아래 활동을 하면서 만나 뵌 스님들의 법문을 듣고 인터넷을 통해 스님들과 불자들과 소통하면서 부처님과 불교에 조금 더 가까이 가는 중입니다. 앞으로 불교 경전에 대해 더 많은 공부를 하고 싶습니다. 불교의 깨달음과 수행이 내 삶 속에서 실천될 수 있도록 노력하려고 합니다."

〈최명숙 보리수아래 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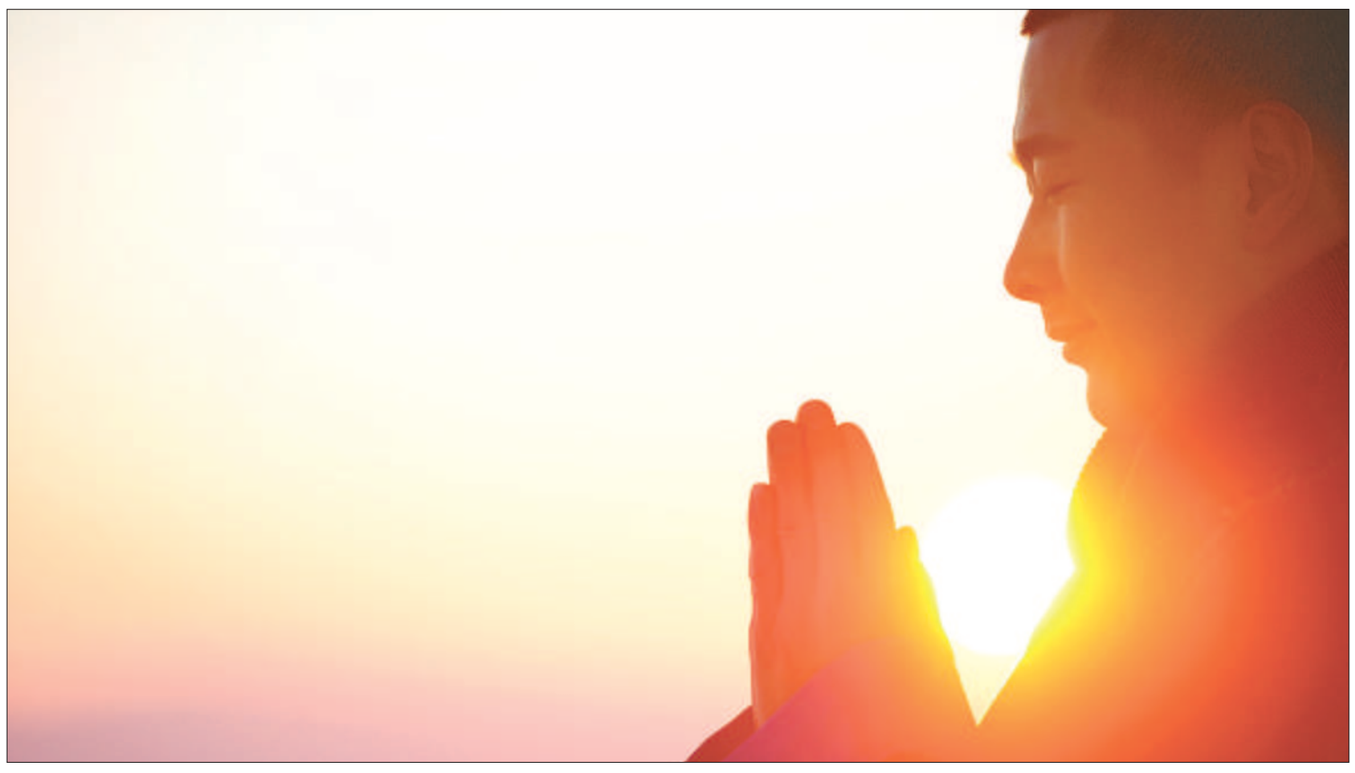
장애는 최중증이지만 시인과 직장인으로 자신의 밝은 미래를 만들어가는 성인제 씨.



마음책 다시 읽기 부처님의 감정수업 굿바이, 분노

▶ 한줄 요약
성냄 속에 용서가 있고, 중생 속에 부처가 있다.

중생 사랑이 부처의 마음



중생을 사랑하는 마음

귀의(歸依)라는 표현은 불자에게 있어 시작과 끝을 꿰뚫는 행위입니다. 아기가 자라는 동안에 부모에게 의지하듯, 불자들은 처음엔 삼보에 의지해서 수행해야 합니다. 불자로서 삶을 시작할 때 '귀의'는 의자에 중심을 두어 '의지하다'는 의미가 강합니다. 반면 불자로서 삶을 완성하는 순간의 '귀의'는 귀(歸) 자에 중심을 두어 '열반의 고향으로 되돌아가는 것'이라는 의미로 쓰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귀의의 여정 중간에 불자는 보리심이라는 마음에 의지해서 다시 새롭게 보살로서 도약합니다. 부처님에게 보호받던 중생이 부처님의 일을 돕는 보살의 자화상으로 변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보살은 무엇에 귀의할까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은 여전하지만, 보살은 중생에게도 귀의하게 됩니다. 중생이라는 존재가 없으면 보살은 할 일이 없어지고, 그렇게 보살의 일을 못 하면 더는 고귀한 목적을 추구할 수 없습니다.

모든 중생과 승자에 의해 불법을 성취하는 것은 같은데
승자이신 부처님은 존경하면서 중생은 왜 존중하지 않는가.
물론 목적은 같지 않지만
중생도 같은 결과인 성불로 인도하므로
공덕의 터전이라는 점에서
그들도 부처님과 동등하다네. [6:113-6:114]

세상의 모든 열매는 대지를 어머니로 삼습니다. 씨앗을 심을 대지 자체가 없으면 열매가 열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보살에게 중생은 대지의 역할을 하기에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열반의 길을 완성하신 부처님께서는 이 중생의 대지를 활용하는 성불 농사법을 안내해주셨으므로 존경받아 마땅합니다. 그렇다면 대지와 올바른 농사법 중 무엇이 더 중요할까요? 사실 둘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보살이 존중함에 있어 부처님과 중생을 차별한다면 이것은 분명히 문제입니다. 농사법을 알려주신 부처님과 대지와 같은 중생이 둘 다 똑같이 중요하다면 소중히 여기는 정도도 평등해야 합니다. 그러니 보살은 부처님을 존중하는 만큼 중생을 아끼고 사랑해야 합니다.

무한한 사랑을 갖고 있는 한
중생을 공경하는 데서 얻는 공덕은
중생의 위대함 때문이고
우리가 부처님을 믿는 데서 얻는 공덕은
부처님의 위대함 때문이라네. [6:115]

〈묘법연화경〉에는 다양한 유형의 보살이 등장하는데, 그중 상불경보살이라는 인물은 매우 특이합니다. 경전 속에는 이 보살의 일상이나 수행에 관한 내용이 전혀 언급되지 않습니다. 오직 단 하나의 수행법만이 소개되는데, 그것은 모든 중생을 예외 없이 공경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중생은 이미 열반의 성품을 지닌 부처님임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중생을 바라볼 때 그들을 부처님이 아닌 중생으로 바라봅니다. 열반의 하늘을 가리고 있는 번뇌의 구름에 속아서 하늘이라는 존재를 잊었기 때문입니다. 1년 내내 먹구름이 낀 세상에서 하늘의 존재를 믿는 사람은 매우 드물 것입니다. 이처럼 중생이 지닌 불성을 못 볼 때 상불경보살처럼 중생을 부처님과 똑같이 공경하는 수행을 실천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보살은 중생을 통해 세상을 바라볼 줄 알아야 합니다. 중생은 개별적 존재이기도 하지만, 온 세상과 연결된 연기적 존재이며 세상의 일부입니다. 그러므로 중생 개개인을 대하는 행위는 세상 전체에 영향을 미치니, 보살은 그들을 보호하는 세상을 봐서라도 중생을 존중해야 합니다.

시선에 따라 달라지는 세상

그들은 둘 다 성불로 인도하므로
중생이 부처님과 같다고 하지만
실제로 부처님과 동등한 것은 아니니
부처님은 무한한 공덕의 바다이기 때문이라네.
그러나 무한한 공덕의 일부라도 어떤 중생에게 나타나면
삼계를 다 바쳐 공양해도 충분하지 않을 것이네. [6:116-6:117]

중생과 부처님은 다를까요? 부처님께서는 불안으로 바라보는 세상을 설명하실 때 이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중생이 보살되는 불교 사상
중생의 보살 부처가 연결돼
해악 대한 관대한 마음필요

"일체 모든 중생은 이미 완전한 부처님이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께서 바라보는 세상입니다. 열반의 세계는 불완전한 것 없이 이미 완벽하고 아름다우며, 존경받아 마땅한 존재들로 가득합니다. 하지만 중생의 눈에 이 세상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은 부족한 것이 많고, 부조리가 넘쳐납니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진실인 걸까요? 부처님께서는 무한한 허공과도 같은 공덕을 이미 완성하신 분입니다.

수박 씨앗은 아직 맛을 내지는 못하지만 수박의 잠재적인 면을 모두 갖고 있고, 일부는 그 맛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중생도 이미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 중 일부를 현실에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만약 중생이 삶 속에서 자비로운 마음을 일으킨다면 보살은 그의 눈빛에서 관세음보살의 자비심을 엿볼 수 있어야 합니다. 바다와 같은 공덕을 이미 지닌 중생을 어떻게 사랑하지 않고 배길 수 있을까요?

이 사랑스러운 중생은 미래에 부처님의 거룩함을 완전히 성취할 것이 예측됩니다. 이런 존재를 알아보는 눈 없이 어떻게 공덕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복전에 공양하는 것을 투자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삼보의 복전은 이미 완성된 투자처지만 중생이라는 복전은 앞으로 상승할 여력이 넘치는 초기 투자처입니다. 보살은 공덕 부자이신 부처님께서 보장하시는 중생이라는 복전에 공경을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삼보에 귀의하는 마음은 불자의 생명입니다. 이 마음을 잃어버린다면 이제는 불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보살의 생명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중생에 대한 사랑입니다. 광대한 중생에게 최상의 행복을 선물하고 싶은 보리심은 바로 보살의 생명입니다. 이 마음이 없는 존재는 보살이라는 이름을 지닐 자격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중생이 이미 부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만약 눈먼 사람의 주장과 눈뜬 사람의 주장이 서로 다르다면 당연히 눈뜬 사람의 의견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자신의 눈이 멀어서 진실이 인식되지 않더라도 말입니다. 열반의 하늘을 꿰뚫어 보는 것은 이처럼 보이지 않더라도 그 진실을 믿고 보기 위해 노력하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보살의 생명은 중생의 복전에 대한 귀의입니다.

어려울 때 듣는 공덕

부처님께서는 이미 위대한 공덕을 완성하셨습니다. 중생은 종종 그 가능성을 보이기도 하지만, 아직 위대함과는 거리가 멀어 보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처님과 중생 중 누구에게 공양하는 것이 더 공덕이 클까요? 당연히 부처님께 공양하는 것이 더 큽니다. 하지만 중생에게 공양하는 것도 만만치 않게 큰 공덕이 생기는데, 그것은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첫째는 부처님께 공양 올리기는 쉽지만, 중생에게 그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어렵습니다. 부처님을 보면 누구나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납니다. 하지만 중생을 공경하기 위해서는 지혜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저절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 자체가 큰 공덕이 됩니다.

둘째는 부처님께서는 이미 충분한 공양과 존경을 받으시는 공덕 부자입니다. 하지만 중생은 공양과 존경에 배고픈 존재입니다. 부자에게 만원을 보시하면 별다른 인상을 주지 못하지만 가난한 이에게 만원을 보시하면 도움이 됩니다. 그러므로 공양받는 이의 입장에서 중생에게 향하는 그 공덕은 큰 감사함을 일으킵니다.

셋째는 부처님께서는 이미 부처로서 완성되셨기에, 우리의 공경과 공양이 특별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합니다. 하지만 중생은 여전히 갈 길이 멀었으므로 공양과 공경은 그의 일대사인연을 해결하는데 큰 디딤돌이 되어 그의 열반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한다는 것입니다.

중생은 부처님의 공덕 중에서 가장 좋은 면을 갖고 있으므로
우리가 중생을 공경하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것이네. [6:118]

부처님과 중생은 열반을 완성했는지의 여부인 상구보리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입니다. 하지만 다른 이의 열반을 돕는 하화중생의 측면에서는 차별이 없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보살에게 열반의 농사법을 알려주셨고 중생은 열반의 농사를 지을 토양이 됩니다. 이 둘의 역할은 다르지만, 보살이 열반으로 나아가는 것에 도움이 된다는 점에서는 완전히 평등합니다.

부처님께서 사랑받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중생은 이익 있는 것을 사랑하는 성향이 있습니다. 만약 부처님께서 중생을 구제하지 않고 조용히 삶을 마치셨다면 과연 중생이 부처님을 사랑했을까요? 부처님은 두 가지 이유에서 부처라고 불립니다. 첫째는 열반의 꽃을 완전히 피우셨기 때문이고, 둘째는 그 방법을 중생에게 가르치셨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을 사랑하는 이유는 부처님의 가르침이 삶에 이익이 되기 때문입니다.

중생이 부처님의 공덕에서 가장 좋은 면을 지녔다는 것은 이 부분을 말합니다. 비록 중생은 열반을 완성한 공덕을 지니지는 못했지만, 그 존재만으로도 보살의 삶에 큰 이익을 줍니다. 기억나시나요? 중생, 그중에서도 나에게 해악을 끼치는 원수들은 미래에 겪을 고통을 감수하고 우리에게 용서를 실천할 기회를 마련해 줍니다.

중생이라는 복전은 이처럼 보살에게 큰 이익을 주지만, 그들은 여전히 도움에 목마른 상황입니다. 어려울 때 받은 도움은 큰 감동을 줍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이미 부자이신 부처님보다는 가난한 중생을 도와주는 건 어떨까요?

저자 : 원빈 스님 〈이층버스 펴냄〉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행 스님의 법문 중에서 발췌하여 답변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 편집자〉 ●보낼곳 : 우 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월드오피스텔 606호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 (031)470-3116


대행 스님

제 1355 호 현대불교
2021년 9월 8일(음 8월 2일) 수요일 / 불기 2565년

그저 이론으로만 끌내지 말고 실천궁행하라

지난 호에 이어서

큰스님 아까 끄트머리로 말씀하신 것은 아까, 뭐라 그랬죠?

질문자2(남) 산소를 잘못 건드렸을 때 자손에게 화가 미친다는 얘기가 있는데요.

큰스님 응, 그거는요, 여기서는 그런 것을 개의치 않습니다. 소승이다, 대승이다 하는 교리를 다 놓고 돌아가는 이 진리를 탐구하는 데 무슨 그것이 잘못되고 잘되고가 있습니까? 일체 만법에, 뭐, 마음은 체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영(靈), 의식은 수만 개가 들어와도 들어온 사이가 없고 내놔도 내놓은 사이가 없고, 또 내가 가다가 '아, 여기가 좋겠구나!' 하는 생각이 있으면 거기 그냥 묻으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지리학이라든가 천문학이라든가 또는 의학이라든가 천체물리학이라든가 이런 것이 포함돼서 돌아가는 공부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하는 공부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걸리지 마시라는 얘깁니다.

여러분이 체험을 해 봐서 알겠지마는 아, 그런 데서 부적을 붙이고 온통 야단을 하면서 그렇게 걸리다가는 못 하나 박아도 탈이 나. 그런데 나중에는 그거고 뭐고 다 버리니까 탈도 안 나고 외려 더 잘되더라는 얘깁니다. 지금 사람이 먹고살고 이렇게 살기도 귀찮아 죽겠는데, 어떻게 와서 어떻게 사는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지금 이렇게 살고 있는데 아니, 그런 걱정 저런 걱정 하다가 세월 보내면 얼마나 억울합니까? 다 놓으세요. 아무 걱정, 걸리지 마세요. 그러면 돼요.

질문자3(남) 지금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져 가고 악이 범람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비례해서 인구는 자꾸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사람 몸 받기가 그렇게 어렵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사람 몸 받기는 어려운 것과 인간이 늘어 가는 것 이것은 어떤 관계인지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기독교에서는 이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불교에서는 이 세상은 어떻게 전개되었는가? 뭐, 보통 제가 책자나 이렇게 보면 마음이 세계를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태초에 그러면 무엇이 어떻게 움직여서 이것이 전개되었는가? 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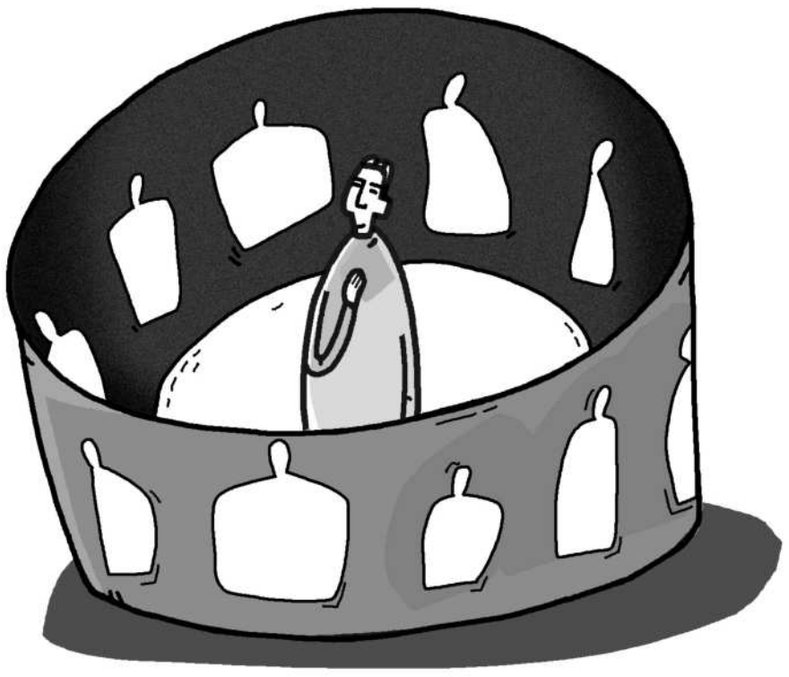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에서는 일체 중생에 다 불성이 있고, 인간의 본성은 다 청정무구하다고 합니다. 그런 청정무구한 마음에 처음에 어떻게 이것이 움직여서 이 삼라만상이 전개되었는지 우선 요 두 가지를 알고 싶습니다.

큰스님 대의 몸뚱이도 지수화풍(地水火風)으로 뭉쳐져 있습니다. 또 몸뚱이 속에 들어 있는 생명들도 지수화풍으로 뭉쳐진 것입니다. 그런데 바깥에, 외부에 있는 지수화풍을 먹고 삽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원 고향은 어딘가? 자기 몸뚱이가 그냥 고향입니다. 왜냐? 여러분은 지수화풍 속에서 나왔으니까 말입니다. 이것도 (물컵을 가리키시며) 지수화풍이 계합이 됐기 때문에 하나 나왔습니다. 모든 것이 지수화풍이 아닌 물질이 없습니다. 그러면 지수화풍끼리 전부 헤어져서 살다가 야, 이렇게 따로따로 이러다 보니깐, 우리가 우리를 탄생시키지 못한다 이겁니다. 그래서 자기네들끼리 모아서 자기네들끼리 한 물건을 내놨을 때 그때에, 즉 말하자면 미생물의 존재라고나 할까요? 그렇게 해서부터 생겨나기 시작이 된 거라고 하죠.

그러면은 우리가 수억겁 광년을 거쳐오면서 나쁜 일도 하고 좋은 일도 하고 또 어리석은 일도 하고 어리석지 않은 일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한생각의 진화력을 갖게 됐고, 바로 그것이 우리를 인간까지 이끌고 나온 게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그 경험을 쌓은 우리 인간은 고등 동물이라고 하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한생각으로서, 내가 그전에 그랬죠? 토끼가 다리가 다 똑같았는데 내리막을 뛰다 보니깐 앞다리가 똑같으니깐 뛰어지질 않아. 잡아먹히기 똑 참하거든. 그래서 고 다음서부터 '나는 앞다리가 조금 짧게 나와야겠다. 짧게 했음 좋겠다.' 하니까 그다음에 나올 때 짧게 돼 가지고 나왔더래요.

고개를 깨우뚱하시는데…, 이해가 안 가신다면 또 하나, 태교를 예로 듭니다. 어느 부부가 쌍꺼풀도 하고 얼굴도 아주 미인으로 만들고, 미남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린애를 낳아 놨는데 아주 보기 싫었습니다, 자기 본 얼굴이기 때문에. 그래 남들이 볼 때에 저 부부는 저렇게 잘생기고 미인인데 어째서 애는 이렇게 메줏덩이같이 낳았느냐 이렇게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양심들은 있죠. 그랬는데 그 후에 두 번째 애를 가졌을 때 누가 이렇게 일러 줬습니다. 당신은 당신 얼굴 그림 그려 가지고 나온 것을 생각지 말고 당신 할아버지가 참 잘생겼으니 할아버지 그 얼굴대로 그대로, 몸집 그대로 모든 것을 태교하면서 생각해라. 그렇게 그림을 그려라. 그래서 딴은 그렇게 그림을 그리니깐 아주 잘생긴 그 할아버지를 닮아서 나왔더랍니다.

이것은 즉 마음입니다. 마음은, 손도 없고 발도 없고 내 몸뚱이도 없건만 그렇게 잘 그려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것이 바로 태교입니다. 그래서 태 안에 있는 어린애, 그 자라는 어린애의 마음, 그것은 바로 그 어린애의 마음이나 우리 산 사람들 마음이나 모든 게 같이 늙어서 둘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교가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도, 여러분 젊은 분들도 노인네들도 우리가 지금만 살고 요다음에 그냥 잎이 떨어졌다고 그 이듬해 봄에 잎이 안 피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잘 그려 가지고 나오시길 바랍니다.

나라의 모든 것들도 이 마음에 달려 있죠. 그런데 투표를 해도 많은 쪽으로,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뽑힙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의 마음들이 악으로 많이 기울어지면 그 악의 무리들로 인해서 천지가 산란해지고 지금 세상이 모두 산란하게 됩니다. 그러니 마음에 달렸다고 하지 않겠습니까? 전체 말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쓰고 돌아간다면 무(無)의 세계의 내 마음이 바로 잘 알 거고, 무의 세계의 내 마음이 유(有)의 행으로 나오니 그것이 잘 될 텐데….

때마다, 천 년만큼씩도 되고 오백 년만큼씩도 되고 십만 년만큼씩마다 그런 문제가 생긴다고 봅니다. 우리가 참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발전이 많이 됐다고 하지만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그릇이 채 못 되기 때문에, 넘쳐 흐르기 때문에 부작용이 일어나는 거죠. 발전은 성급하게 되면서 그릇은 작으니 그게 넘쳐 흐르게끔 돼 있는 것에서 이러한 발단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릇부터 크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그릇이 요만하다면 요만한 거밖에 담기지 못하는데, 요만한 그릇에다가 그냥 빨리 성장하라고 막 그 에너지를 들이부으니까 이게 넘쳐흐르는 거죠.

요다음에 또 질문하시도록 하고 무조건, 질문하시되 그것도 함이 없이 하시고, 그저 거름이 되시게끔 하십시오. 여기에 책도 있고 카세트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대승이다 소승이다, 잘된다 못된다, 아주 내가 최고지 이런 것도 다 놔야 될 거 같습니다.

질문자4(남) 제가 지난 5월 14일 날 아들을 낳았습니다. 낳았을 때는 굉장히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지난 뒤 애가 굉장히 놀라고 사경을 헤맸습니다. 병원이라는 병원은 다 다녀 봤습니다. 병명이 뇌성마비입니다. 그런데 제 인(因)으로 인해서 자식이 받은 죄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저의 마음이 너무 혼란스럽습니다.

큰스님 내가 항상 이런 말을 하죠. 금은 금대로 놓고, 또 쇠는 쇠대로 놓고, 은은 은대로 놓는다고요. 사과는 사과대로 놓고 이렇게 끼리끼리들 모두 모아 놓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인(因)으로 인해서 현재의 과(果)로 엮어진 겁니다. 보는 사람도 그런 죄, 또는 그렇게 당하는 사람도 죄인 것입니다. 그것은 보는 사람하고 그 당하는 사람하고 둘이 아닌 까닭입니다. 부딪치는 거는 깡통이기 때문에 부딪칩니다, 둘이 아니게. 끼리끼리 그렇게 은연중에 인과로 인해서 모이는 거죠. 그러니 여러분이 그런 인과응보를 어떻게 해

☞ 22면으로 계속



그저 알고도 놓고 모르고도 놓고 이렇게 사세요, 한 찰나의 뜬구름처럼

☞ 21면에서 계속

결을 할 수 있겠느냐?

일체의 모든 것을 거기다 맡겨 놔라, 이 우주 천하에 직결돼 있는 근본이 모두 사람의 마음에 직결돼 있는 것을 알고, 그 직결돼 있는 주인공을 믿고 거기다가 모든 것을 맡겨 놔라. 이 병이 거기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거니까 인과응보로 나온 데다가 다시 놓아라. 바로 너한테서 나온 거니까 네가 고쳐라. 믿고 거기에 놔라 이겁니다. 너만이 고칠 수가 있다. 주인공에서 나온 거니까 주인공에서 고쳐라 이거죠. 이열치열이라는 말이 있듯이. 자기가 오다가 엎어졌으면 자기가 일어나서 오겠지.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주고 뺏어 가는 게 아닙니다. 당신네들이 지어 놓은 거니까 당신네들이 풀어야 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겁니다. 거기서 나온 거니까 거기다 되놓는다면 바로 화(化)합니다. 응? 물도 가스가 되듯이 화해 버려. 그러면 그 마음, 인과응보를 지었던 그 업이 그냥 송두리째 무너져 버려.

그래 다시 보살로서 재생이 되니까 그때야, 억울하고 누명 쓰고 또 업보가 많고 자기가 저지른 많은 일들의 인과응보가 다 스러지게 되고, 그러면 이 몸뚱이 속의, 대뇌 속의, 이런 모든 생명들이 그때서야 활개를 펴고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잘 공급을 해 주고 잘 회전을 하기 때문에 병 증세가 낫는다 이런 겁니다. 이건 이론이 아닙니다. 실천입니다. 실천궁행(實踐躬行)하는 데 우리가 참, 노력을 해서 체험하고, 체험하면서 우리는 믿게 되고 진실하게 되고 '아, 이런 거로구나. 그럼 일체 만법, 작든지 크든지 용도에 따라서 내가 다 이렇게 여기서 나오는 거로구나.' 내가 있기 때문에 태초요, 내가 나왔기 때문에 태초야. 내가 있기 때문에 그게 바로 화두예요. 여러분이 다, 여러분이 있기 때문에 화두지 여러분이 없다면 아무것도 없어. (중략)

그래서 우리 국기에도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려 놨죠. 둘이 아님을 알라고 둥그렇게 그려 가지고는 그 안에다가만 그렇게 하늘과 땅을 그려 놨죠? 가장자리에다가 그렇게 해 놨는데 그것이 삼(三), 사(四), 오(五), 육(六)으로 이렇게 점을 찍어 놨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천지의 근본은 인간의 근본이요, 인간의 근본은 천지의 근본이다. 이렇게 써 놓은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 여러분은 이런 공부 하는 데 어떠한 아쉬움이 있고 어떠한 못난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나 못났을 때, 나 못 배웠을 때, 나 가난했을 때, 나 병신이었을 때, 내가 미생물이었을 때 바로 내 모습으로 보시라 이겁니다. 그런다면 그 병 증세가 다 없어지고도 남음이 있어. 모든 거를 주인공이, 모두 결집된 주인공만이 바로 내 자식을 고칠 수 있다.

저 뉴욕의 어딘가 그 이름도 잊어버렸습니다마는 산호세 갔을 때도 그렇고, 댁에처럼 뇌성마비로다가 그런 건이 생겨 가지고 수술을 한다고 야단이 났었다고. 그런데 애가 뭐, 정신도 없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예요.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 엄마 아빠가 너무나 정성이 지극하고, 외삼촌도 또 거기서 사는데 그렇게 정성이 지극했어요. 지난번에 데리고 왔는데 보니까 지금은 아주 출중한 어린애가 돼 버렸어. 그건 누가 그렇게 했느냐? 그런 마음을 내 주는 것도 스님이지마는 그 마음이 서로 계합이 됐기 때문이지.

그러니 우리 이 방통 안에서도 내 한마음이 밝으면 여러 사람들이 다 밝게 앉았어. 밝게 살 수 있어요. 우리 한 가정이, 한 사람만 이런 도리를 깨치고 나간다면 그 가정을 다 이끌어 가지고 갈 수 있어, 지혜가 있다면. 다 밝게 살 수 있는 거예요. 불 하나만 켜면 항상 밝으니까 남도 밝게 살 수 있지 않아? 그래서 화목하고 마음이 편안하고 잘 이끌어진다는 얘기죠. 우리는 이론만으로 끝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실천궁행해라 이겁니다.

질문할 분 없습니까? 그러면 아까 얘기하던 거 마저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50%가 결집돼서 그 현상세계에서 사는데 모든 게 악화되고 병고액난이나 가난이나 그것이 성하기도 없어지기도 하는 이유는 어디 있느냐. 우리가 우주의 법계와 더불어 같이 이렇게 상응하고 있다는 얘깁니다.

옛날에 어느 두 남매가 연년생인데 아주 어려웁게 탄생을 해서 세 살이 되고, 하나는 두 살이 되었는데 부모가 그만 다 죽어 버렸어요. 일 년 내에 그냥 두 분이 다 돌아가시고 보니깐 두 어린애는 고아가 돼서 이리저리 떠돌게 돼서 어느 스님네가 데려다가 키우게 됐죠. 하나는 비구 처소로 가고 하나는 비구니 처소로 가게 됐죠. 옛날 얘깁니다. 그러나 옛날 얘기로만 듣지도 마시고 옛날 얘기로 안 듣지도 마십시오. 그래서 그렇게 기르다 보니까 하나는 열일곱, 여덟이 돼 오고 하나는 열아홉, 스물이 됐답니다.

어느 날 밤에 자는데 난데없이 그냥 자기 모습하고 똑같은 사람이 탁 나타나서 뭐라고 그러느냐 하면은 "자세히 들어라." 하면서 이런 말을 하더랍니다. "십만 년 전에 우리 옥황국(玉皇國)이, 천지옥황국이 악한 무리들로 인해서 혼란이 오게 됐다. 그 혼란이 오게 되면 벌써 세상이 풍비박산이 되고 큰 병폐가 생기고 멸망할 수 있는 이치가 있어 우리가 보연지불을 생산해서", 큰 별을 생산했다는 얘기죠. "생산을 해서 그 병폐를 다 막고 있었느니라. 그러나 그 보연지불은 지금, 그 큰 별은 너희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오백 년 후에 그것이 재림되지 않는다면 앞으로 오백 년 후에 올 수 있는 그런 재난을 어찌 막을 수 있겠느냐?

그러니 너희가 열심히 하다가 만약에 어떠한, 즉 말하자면 장마가 들어서 흙이 보이지 않는다거나 또는 바람이 요동치듯 불고, 안개가 끼고, 구름이 끼어서 밝은 해도 비치지 않고, 달도 비치지 않고 그럴 때, 백성이 임금을 잃게 되고 그냥 헤매고 있을 그때, 또는 임금이 그렇게 없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백성이 임금을 무시하고 또 임금은 임금대로 그렇게 무시하니까 해 나갈 수 없고, 서로가 똑같이 이런 문제가 일어나는 그런 혼란이 오면 사람의 마음이, 모두 사생(四生)들 마음이 흩어져서 온통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섬길 수 없고 병고액난들이 생기고 산란이 오게 될 테니 그게 바로 문제가 되느니라.

그러니 그러한 문제가 오걸랑은 올라가 도를 닦아서 빨리 재림을 하게끔, 네 마음이 지금 그 별, 즉 말하자면 보연지불로 같이 계합이 된다면 큰 별이 다시 재림이 되느니라. 재림이 돼서 이 세상을 다 보살필 수 있는 그러한 광명이 있느니라. 그렇게 아니 한다면 세상은 앞으로 전부 망가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길 테니 그렇게 하라." 하는 그런 말이 있었답니다.

그러니 오백 년 후다 그래서 이 세상은 오백 년 전이 되고 바로 저 세상은 오백 년 후가 된다면 한 찰나에, 우리가 공부를 한다면 한 찰나지마는 공부를 못 한 사람에게는 오백 년이 오백 년이지, 뭐. 그래서 그런 시기가 온다면 바로 재림되게 해서 광명을 되찾아서 그 옥황국(玉皇國)을 살림으로써 이 세상이 평화를 되찾을 수 있다. 그리고 융성해질 수 있고, 재난이 점점 줄어들고, 경제가 융성해지고, 모든 것이 다 평화롭게 되느니라. 이러면서 그 아이는 또 한 가지를 뭐라고 물었느냐 하면 "재림이 돼 가지고, 어떻게 해야만 그 악인을 다 없앨 수 있겠습니까?" 하니까 "없애는 게 아니니라. 대마(大魔)는, 모습 없는 악의 모습을 태어나게 해서 부하로 삼아 우리 선국(善國)을 아주 짓밟고 그러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여기 옥황국의 천지에 혼란이 오면 이 세상에 혼란이 오고, 거기가 편안하면 여기도 편안하니라." 이거거든요.

또 말씀을 하시길 "그러한 무리들이 많이 생겨서 마음으로 새끼가 새끼를 치고 새끼가 새끼를 치고 이래서 많아졌느니라. 그러나 그거를 밝은 빛으로써, 예를 들어서 광명으로써 안아 준다면, 비춰 준다면 그 무리는 다 스러지고 말아 버리느니라. 실존하는 존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스러지느니라." 실존하는 게 아니기 때문이죠. 그림자다 이거야. 모습 없는 모습, 그림자. 그러니까 "그건 실존하지 않느니라. 그러나 그 큰 별이 재림이 된다면, 그 광명으로써, 광력으로써 모든 것을 비추어 주면 그것이 스러져서 녹아 버리니 그것이 바로 자비니라. 그 악한 마음들을 다 선하게끔 해서 하나로 만드느니라." 그러거든요.

그러면서 하는 소리가 "이것이 천 년이 되고 또 십억 년을 되돌아서 다시 또 되면, 사람의 마음이 산란해지고 모두가 다시 악의 마음이 일어나면 다시 이런 문제가 또 생기고 이러느니라. 그래서 세상은 패망을 할 수도 있고, 세상은 패망 후에 올라설 수도 있고, 또는 전체가 타 죽을 수도 있고, 전체가 물에 소멸될 수도 있고 그러느니라. 그러니 이런 것을 다 해결할 수 있는 도리는 마음이니라." 마음의 그 모든 도리를 알아서 네 마음과 내 마음이 계합이 되고 또 지혜를 얻어서 공부를 하면 저 우주 옥황국에서 그 큰 별들하고도 같이 계합이 돼서 우주 천국을 전부 편안하게 만들어 놓으면 여기도 편안하고, 거기가 혼란스러우면 우리 지붕 위에서 막 혼란이 오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은 우리 여기 아래서는 지금 거기 쳐다보고 모두 그냥 뭐…, 바람이 불고 흙이 떨어지고 돌이 떨어지고 돌이 구르고 물이 치닫고 그냥 이렇게 되면 혼란이 오는 거죠. 그랬는데 그런 것만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혼란이 오면은 그냥 안절부절못하고 세상에 혼란이 오는 거죠. 이게 말세라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니 우리 마음들이, 우리 여기에 다니는 분들이 소승이다 대승이다, 체계가 없느니 있느니 이러한 혼란에 빠져서 자꾸 놓지 못하고 그렇게 망상에 끄달리지 마시고 전부 이 마음 주인공에 모든 것을, 그러니까 용광로에 넣는 작업만 하신다면, 또 작업을 하시되, 안 되는 것도 한 찰나고 되는 것도 한 찰나입니다. 그러니까 되는 것은 감사하게 맡겨 놓고, 안 되는 것은 '안 되는 것도 찰나인데 되게끔 하는 것도 거기밖에 더 있나?' 하고, 병을 앓더라도 '거기서밖에는 병을 낫게 할 수 없다.' 이렇게 놓을 수 있고, 가난이 와도 '거기서밖에는 부유하게 할 수 없다.' 그렇게 해 나갈 수만 있다면 앞으로 우리가 참,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지혜로운 자유권을 가지고 여러분은 자유자재할 수 있으며, 우리는 부처 중생이 따로 없이 중생을, 자기 몸 안에 있는 중생들부터 다 진화시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다 생기죠.

그러니 우리 한마음 도리 이것이, 물러터지고 아무 특별한 것도 없다 하지만 남이 이러든 저러든 내버려 둡시다. 그저 알고도 놓고 모르고도 놓고, 이렇게 사십시오, 한 찰나의 뜬구름처럼. 우리는 한 조각의 구름과 같은 겁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병이 깨지면 그 응고된 물은 항상 흐르고 녹았다, 흘렀다 하고 그렇게 여여한 것입니다. 그렇게 안 하면 여러분이 또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항상 지수화풍에 고맙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우리는 고맙지 않은 게 하나도 없습니다. 또 내 스승 아님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질문할 분이 안 계신다면 요다음에 하도록 하고요. 알든 모르든 그걸 제껴 놓고, 모든 것을 놓으라고 그러시는데 내가 질문할 게 뭐 있나 이런 것이 아니라, 알면 아는 것도 떡그릇인 줄 번연히 알면서 떡그릇에 엎드러진다. 돌다리도 한 번 두드려 봐 가면서 간다. 남들 위해서 내가 그렇게 해 본다, 이런 것도 있죠.

그러니 함이 없이 우리는 말을 하는 겁니다. 전력이 오고 감이 없이 와서 불을 켜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설된 줄이나 저런 거는 다 볼 수 있을지언정 전력이 오고 가는 거는 못 봅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인간의 마음이 오고 가는 건 못 볼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서 지혜롭게 참, 마음의 자비를 그대로 중용하셔서 실천으로 궁행하도록 하십시오. 오늘은 이걸로써 끝마치겠습니다.

**우리는 그릇부터 크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릇이 요만하다면 요만한 거밖에 담기지 못하는데
그냥 빨리 성장하라고 막 그 에너지를 들이부으니
이게 넘쳐흐르는 것입니다.**

※위 법문은 1989년 9월 17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하신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에서도 같은 내용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삶의 고해(苦海)를 건너가는 지혜의 가르침

삶은 고가 아니다

"살아있는 탑에는
개개인의 살림살이와
보이지 않는 곳의 마음이
같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탑은, 거꾸로 세워놓아도 바로 세워놓아도
모로 세워놓아도 뒤집어서 세워놓아도
세상을 모두 하나로 돌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2009년 4월 9일, 책 표지에 탑을 형상화하여 넣으라시며 탑의 의미에 대하여 말씀하신 대행 스님의 법문입니다.

대행 큰스님의 생활 속 불법 이야기

인생은 고통이 아닙니다.
생로병사의 괴로움이 있다고 하나
그것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부처님의 감로법이 있기에 고통이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누구나 부처가 될 수 있는 성품
즉, 불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불성을 이름하여 한마음이라 하였습니다.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나의 보배입니다.
이렇듯 내 집 창고에 보배가 가득한 줄도 알고
보배 창고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열쇠가 어디 있는 줄 모른다면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마음공부는 열쇠를 얻기 위한 공부입니다.
누구든지 열쇠도 갖고 있고 곳간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열쇠를 갖고도 열지를 못한단 말입니까?
마음이 곧 그 열쇠입니다.
- 본문 중에서

10,000원 | A5 | 287쪽 (택배비 별도)

주문은 마하몰! 02)732-1520 인터넷 주문 : www.mahamall.co.kr 농협 053-01-269062 (주)현대불교신문사

| 현불 논단 |

양극화 시대, 中道를 생각한다

주경 스님
수덕사 부주지



풍요 누리면서도 양극화 심각해
사회 분야 전반 걸쳐 갈등 심화

대기업 입사 평균 연봉 공개 등
정부 통계도 양극화 요소 제공
대기업 취업자 상위 10% 이내
상위 아닌 중간에 초점 맞춰야

1등 지상주의, 이젠 놓아야 돼
양극단 떠난 '中道'를 주목해야

세상이 점점 양극화 되어가는 것 같다. 경제가 발전하며 어느 때보다 넘치는 물질적 풍요를 누리고 있음에도 빈부의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며, 군사독재를 넘어 민주화의 시대로 접어든지 적지않은 세월이 흘렀음에도 균형있는 중도의 시각과 입장보다 강경파들이 점점 세력을 키워가는 비정상적인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다.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의 세대 간 갈등도 만만치 않고 전에 없던 새로운 대립과 투쟁의 양상들이 사회 각 분야에서 표출되고 있다.

정부의 통계발표도 이런 양극화와 사회갈등의 원인을 제공하는 부분이 적지 않다. 언제부터라고 특정할 수 없지만 우리사회는 1등 지상주의에 몰입되어 왔다. 대학시험을 보아도 항상 최상위대학의 합격점수를 우선으로 하고, 수많은 취업생이 있음에도 일부 대기업 취업자의 임금을 기준선으로 발표하곤 한다. 실제로 최상위 대학의 입학자나 대기업에 취업한 사람들의 비율은 많이 잡아도 10% 이내의 한 자리 숫자를 벗어나지 못한다.

만약 우리 사회가 그 최상위를 기준으로 삼게 되면 나머지 90% 이상의 사람들은 패배자이자 미달자로 규정될 수 있는 것이다. 차라리 대학 입학생 전체의 평균 점수나 그 해 취업생의 평균 임금을 사회적 기준으로 삼는다면 우리 사회가 건강하게 나아갈 방향을 정립할 수 있을 텐데, 늘 우리의 통계는 최상층에 기준을 두곤 한다. 중간점을 기준으로 두게 되면 그 이상의 위치에 있는 사람은 안도감과 만족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며, 부족한 위치에 있는 사람은 얼마간의 노력으로 그 위치에 도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최상위를 기준으로 하면 많은 사람들의 희망과 가능성을 박탈해버리는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중간을 기준으로 하자면 어떤 사람은 "위를 바라보고 살아야지 중간을 바라보고 살면 되겠냐"며 힐난할 지도 모르겠다. 하지만 우리가 바라봐야 할 '위'는 지금의 우리가 이룩한 현실에서 그리 큰 의미가 없다고 본다. 현재 한국의 경제수준과 소비수준은 '세계 최상위'라고 해도 지나치지 않기 때문이다.

가만히 찬찬히 살펴보시라. 지금 우리만큼 물질적 풍요와 해외여행 등의 여가와 안전한 치안환경을 누리는 나라가 몇이나 있는지. 맹목적이고 광적으로 상향을 지향하던 시대는 이미 지나갔다. 이제는 현실을 바로보고 내면의 자신을 성찰하며 진정한 삶의 의미와 가치를 추구해야 하는 시대인 것이다.

불교 수행의 기본정신은 중도(中道)이다. 양극단을 떠난 균형 있고 조화를 이룬 길이 중도에 있기 때문이다. 불교 초기 가르침인 '8정도'는 중도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중도가 바로 바른 길, 정도(正道)이기 때문이다.

현대사회의 양극화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불교의 중도사상에 대한 깊은 통찰과 현실인식이 가장 좋은 해답이 될 것이다. 인간의 탐욕은 소금물을 마시는 것처럼 더욱 갈증과 고통이 심화될 뿐 진정한 행복은 만족함에서 오는 것임을 알아야 할 것이다. 국가의 중요통계와 미래에의 방향 설정도 더 이상 최상위를 기준으로 하고 성장만을 지향해서는 안 된다. 기본적인 물질적 빈곤이 해결된 상태에서 균형있고 조화로운 사회를 이루기 위해 중도와 중립의 크기를 키우는데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제는 빈곤과 독재에 시달리던 과거의 관념적 속박에서 벗어나야 한다.

자기를 바로 보고 세상을 바로 보는 중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개인의 삶과 세상을 보다 균형 있고 행복하게 하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되는 것이다.



지원 스님의
마음처방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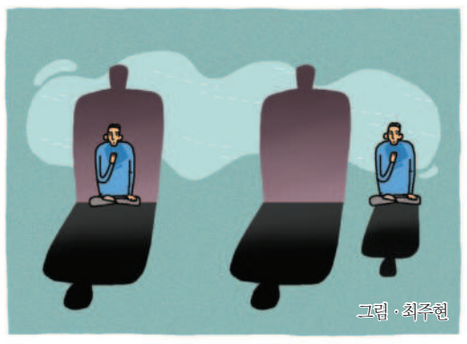
불평불만은 에너지 낭비

손가락으로 남을 가리킬 때 네 개의 손가락은 자신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신의 허물이 더 많다는 것입니다. 불평불만은 비건설적이며 나쁜 에너지를 생산합니다.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옆에 있으면 나의 생산적인 에너지 혹은 평화스런 에너지를 빼앗기는 느낌을 받았을 것입니다.

자신을 탓하기보다 남을 탓하는 사람은 불평불만이 많습니다. 자신의 능력이 보잘 것 없는 사람들이 남을 원망하거나 불평불만을 많이 합니다. 불평불만을 함으로써 자신의 피난처로 삼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자신과 관련된 일에 대해 남에게 불평을 늘어놓아보았자, 별 소득이 없습니다. 오히려 매사에 자신 없는 사람으로, 만족을 모르는 사람으로 낙인찍힐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나면 나쁜 것은 모두 남의 탓으로 돌리고 책임을 전가하려고 합니다. 자신의 책임을 면하려고 합니다. 에머슨은 "불평불만은 자기 신뢰심의 결핍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의지가 약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결혼 생활이 불행한 것도, 회사에서 승진을 하지 못하는 것도, 자신이 가난한 것도 남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이 세상은 나를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들 수 없습니다. 자신의 환경에 대해 불평불만을 하려 들면 끝도 없이 이어집니다.


그림 · 최주현

임제 선사는 '수처작주 입처개진(隨處作主 立處皆眞)'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주인공으로 살아라'는 말입니다. 내가 머무는 그 자리에서 주인공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불평불만하는 그 마음에는 주인의식이 없습니다. 주도적인 삶을 살고 있는 사람은 불평불만을 함부로 하지 않습니다. 내가 모든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는데 누구에게 불평불만을 합니까?

우리들은 어느 누구에게 지배를 받을 나약한 존재가 아닙니다. 자신의 운명과 환경은 어디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기에 자신의 노력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재 상황에 불만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고 싶은 욕구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불만에 머물러 있지 말고 적극적으로 고치려고 애쓴다면 해결되겠지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불만을 토로할 뿐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습니다.

어떤 일을 할 때 불만에 가득 차서 마지못해 할 것인지 아니면 즐거운 마음으로 할 것인지는 자신의 선택에 달려있습니다. 불평불만하지 않고 모든 것을 대할 때마다 긍정의 시선으로, 감사의 마음으로 받아들여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켜보세요. 이럴 때 우리는 늘 생동감 넘치고 충만한 삶, 깨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열정적으로 살아가십시오. 열정적인 삶은 의식을 깨우고 몸도 깨웁니다. 〈육지장사 회주〉

社 說

차별금지법 제정, 국회가 답하라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가 9월 10일까지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30km 오체투지를 진행하고 있다. 8월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로 첫 발을 디딘 오체투지는 국회 정문까지 10일간 릴레이로 이어지고 있다.

불교계는 조계종을 중심으로 지난 2009년부터 차별금지법 제정을 추진해왔다. 이는 모든 생명은 존귀하고 평등하다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였다. 10여 년의 노력 끝에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국민적 동의는 이뤄진 상황이다. 지난 6월에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요구하는 국회 청원이 10만 명을 넘어섰다. 국민동의청원은 '30일 내에 10만명 동의'를 얻은 청원을 국회에서 심사하는 제도다. 지난해 국가인권위원회 여론 조사에서는 시민 88.5%가 차별금지법 법제화를 찬성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장혜영, 이상민, 박주민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을 발의했지만 국회 법사위 문턱에 멈춰있는 상황이다. 차별금지법이 제정이 더딘 이유는 명확하다. 일부 개신교 단체들이 '성적 지향이 정상 가족을 해체한다'면서 국회의원들을 압박하고 있어서다. 이미 차별금지법은 17~19대 국회에서 6번이나 입법 발의됐지만, 개신교 단체들의 집요한 방해공작으로 입법이 좌절됐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 차별금지법 제정에 대한 국민적 동의는 이뤄졌고, 그 열망도 어느 때보다 높다. 몇몇 개신교 단체들의 몽니는 시대착오적인 망령된 행동일 뿐이다. 이를 국회가 수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인권 시계를 거꾸로 돌리는 행위다. 평등사회를 위한 불교계와 국민들의 목소리에 이제는 국회가 답해야 될 때이다.

재한 네팔 불자포교 '비상'

우르겐 스님이 네팔로 돌아간다. 지난해 7월 뇌출혈로 쓰러진 후 1년간 투병 끝에 귀향을 결정했다. 생사를 넘나든 수술과 지속적인 재활에도 스님은 마비된 신체를 회복하지 못했고 말을 잃었다. 스님을 떠나보내는 이들의 마음이 더없이 슬프고 먹먹한 이유다.

우르겐 스님은 2006년 한국에 온 뒤 15년간 재한네팔인들의 정신적 지주이자 든든한 지원자로 살아왔다. 동두천에 위치한 네팔법당 용수사는 네팔 불자들의 신행공간으로 운영되면서, 위기에 처한 네팔인들을 보듬는 의지처로 역할했다. 일자리를 잃고 거주지를 구하지 못한 이들에게는 쉼터를 제공했으며, 마음이 지치고 힘든 이들에게는 신심으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이 돼줬다. 모두 우르겐 스님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마지막 만남에서 스님은 자유롭지 않은 입을 힘겹게 움직여 감사인사를 전했다. 마지막 작별인사가 아니길 바랄 뿐이다. 스님을 바라보는 모두의 마음이 무거운 이유는 또하나 있다.

바로 스님의 부재로 인한 단절의 문제다. 스님은 한국에 거주하는 네팔인들을 위한 사실상의 유일했던 소통창구였던 만큼, 스님이 떠난 공백은 대단히 클 것이다. 재한 네팔 불자들과 한국불교계와의 연결고리도 어떻게 변화할지 미지수다. 스님이 쓰러진 후 파상 스님과 서울 텍첸사 주지 쿤상 스님이 최선을 다해 빈자리를 메우고 있지만, 15년간 쌓인 우르겐 스님의 활동 노하우는 사실상 단절될 것으로 보인다.

우르겐 스님의 병마로 발생한 갑작스런 공백은, 동시에 우리에게도 적지 않은 고민을 안긴다. 한 사람의 원력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언제든 발생할 수 있는 난제이기 때문이다. 우르겐 스님의 출국이 불교계 이주민활동에 어떠한 방식으로든 변화의 계기를 던져주길 바란다.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 · 현대화 · 세계화 1994년 10월15일 창간
발행인 : 혜도 대표이사 : 김재진 편집국장 : 김주일 인쇄인 : 배성한
(우)03131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6길 36, 606호 (운니동, 월드오피스텔)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8
편집국 02)2004-8257 / 광고국 (02)2004-8215~6 / FAX (02)737-0698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현불뉴스 www.hyunbulnews.com
쇼핑몰 마하몰 www.mahamall.co.kr
현대불교 지사안내
부 산 지 사 : 010-5640-8883 / 경 남 지 사 : 010-3860-7008 / 광주전남지사 : 010-2629-1508
대 구 지 사 : 010-2813-8008 / 영 주 지 국 : 010-9373-3778 / 전 북 지 사 : 010-8642-7733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구독료 : 1개월 5천원
등록일:2007년 3월 9일 · 등록번호:서울다 07641(주간)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훤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영가의 생각을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몸에 들어온 이유를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영가의 병이 사람에게 옮겨온 경우.)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떠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빛은 영가가 천상으로 가는 길이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조상영가,전생영가로 인해 잡귀가 들어온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않고 살이 찌시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신들림, 불면증, 악몽, 가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나가는 병, 근육이 풀어지며 통증으로 고통 받는 분, 몸이 굳어지며 감각이 없는 분, 병원 등을 수 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

풍수에 관한 모든 것 상담 가능 천광수련원 TEL 043) 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

제6회
천태예술 공모대전
Cheontae Order of Korean Buddhism Art Award



제5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수상작입니다

접 수 10.13(수) ~ 14(목)
전 시 11.24(수) ~ 29(월)

주최 대한불교천태종
주관 제6회 천태예술공모대전 운영위원회
시행 대한불교천태종 천태문화사업단
후원 금강신문사, 불교천태중앙박물관

부문 및 부문별 공모 개요

부 문	규 격	유 의 사 항
불 화 (전통·현대)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표구된 완성작만 접수
조 각	높이 25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무게 500kg 미만	조립한 완성작으로 제출
공 예	높이 200cm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민 화	200호 미만 가로×세로 합 400cm 이하	액자 제작 후 접수

※ 자격 제한 없음
※ 1인 3점 이하
※ 1점당 5만원, 대학 재학생은 3만원 (학생증 사본 필수)
※ 액자 유리 금지

시상 내역

시 상	수 상	시 상 내 역	비 고
대 상 (문화체육관광부장관상)	1명	상금 2,000만원 상장 상패	종단 귀속
최 우 수 상 (문화재청장상)	1명	상금 700만원 상장 상패	
우 수 상	4명	상금 각 200만원 상장 상패	
장 려 상	4명	상금 각 50만원 상장 상패	
특 선	약간명	상장 및 상품	
입 선	약간명	상장	
특 별 상		상장 및 기념패	

제출서류

- 출품원서(소정양식) 1부
- 작품설명서(소정양식) 1부
- 대학생 학생증 사본

공모요강·원서 배부

-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다운로드

작품 접수

- 접수 기간 : 10월 13일(수) ~ 14일(목)
- 접수 시간 : 오전 10시 ~ 오후 5시
- 접수 장소 : 관문사 2층 (서울시 서초구 바우뫼로 7길 111)

접수 계좌

신한은행 100-030-083607 예금주 대한불교천태종

심사 발표 금강신문 홈페이지 및 개별 문자 통보

문의 천태예술공모대전 사무국 02-547-4746

시상식 및 전시

11월 24 ~ 29일 서울 관훈동 동덕아트갤러리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훈동 151-8 동덕빌딩 지하 1층

자세한 사항은 금강신문 홈페이지 www.ggbn.co.kr에서 확인 바랍니다.